

발간사

최근 한·중·일 사이에는 영토와 역사 인식 문제로 불신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중·일 국민들의 진지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상과 실현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이러한 취지에서 2008~2012년까지 ‘동북아해양평화벨트’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매년 동북아 각국의 해양 인접 주요 대도시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중국·일본·타이완 등지의 국제 전쟁과 교류 관련 유적 및 기념 시설, 박물관 등을 조사·답사하며, 그 성과물을 출판하는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중·일의 전쟁 유적과 동북아 평화』, 『근현대 전쟁 유적 그리고 평화』 등의 단행본을 발간하여 그 성과를 널리 알렸습니다.

이 책은 중국 랴오둥·산둥반도 지역의 국제전 및 근현대사 관련 역사 유적과 주요 기념관·박물관, 한국 관련 유적 등을 조사하고, 이들 유적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며 평화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나름대로 답하고자 하였습니다.

중국 랴오둥·산둥반도는 한반도와 근접한 지역으로서 정치·경제·사

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 이곳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고,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우리나라와 매우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각국의 상호이해와 협력, 평화공존의 모색이 절실한 이때 『중국 랴오둥·산둥반도 국제전 유적과 동북아 평화』의 발간은 시의 적절하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중국의 랴오둥·산둥반도 지역을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 복잡하게 얽힌 한·중·일 3국의 근현대 국제 관계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중국 랴오둥·산둥반도 국제전 유적과 동북아 평화』가 나오기까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제출하여 주신 박선영, 한상도 교수님과 중국 대학에 재직하면서도 이번 과제와 출판 작업에 참가해주신 우영란, 최봉룡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의 기획에서 출판까지 애써 주신 우리 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13년 9월 30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학준

일러두기

- 지명과 인명은 가능한 한 범주에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였다.
- 내용 이해에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였다. 단, 지명이나 인명 등을 표기할 때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경우는 () 안에, 중국어 표기법으로 표기하는 경우는 ()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 한자음 표기의 경우: 노철산(老鐵山), 이홍장(李鴻章) 등
 - 중국어 표기법 표기의 경우: 다롄(大連), 텐산(天山), 마오쩌둥(毛澤東) 등
 - 중국어 표기법 표기와 한자음 표기가 혼용되는 경우: 랴오둥반도(遼東半島) 등
- 한국전쟁을 중국에서는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이라고 하는데 본문에서 고유명사로 쓰일 때는 항미원조전쟁으로, 이를 설명할 때는 한국전쟁으로 표현하였다.
- 중국에서 사용하는 고유명사지만 한국어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풀어서 설명하였다.
- 독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각종 참고자료 및 답사코스를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 라오둥 반도 지역의 유적지는 최봉룡(2010), 「뤼순의 청일·러일전쟁 유적과 유물 및 동북아 평화」, 『한·중·일의 전쟁유적과 동북아 평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된 것임을 밝힌다.
- 출처를 밝히지 않은 사진 자료는 집필자들이 제공한 것이다.

■ 그림 차례	11
■ 책머리에	17

I. 총론 : 동아시아 전쟁 및 역사 유적과 평화

1. '승자 영광'과 '패자 치욕'의 역설	22
2.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	24
3. 중국 랴오둥 · 산둥반도에 주목한 이유	27

II. 중국 랴오둥반도 지역의 전쟁 및 역사 유적

1. 랴오둥반도의 지정학적 특징 및 군사 전략적 위치	32
2. 청일전쟁의 의의 및 유적지	37
1) 청일전쟁의 의의와 경과	37
2) 청일전쟁의 유적지	41
① 갑오고포(甲午古炮)	41
② 뤼순 만충묘기념관(萬忠墓紀念館)	43
③ 백옥산탑(白玉山塔) 유적	47
④ 석문자저격전기념비(石門子狙擊戰紀念碑)	49
⑤ 토성자저격전기념비(土城子狙擊戰紀念碑)	50
⑥ 화원구기념비(花園口紀念碑)	52
⑦ 남자탄고(南子彈庫) 유적	54

3. 러일전쟁의 의의 및 유적지	56
1) 러일전쟁의 의의와 경과	56
2) 러일전쟁의 유적지	65
① 동계관산보루(東鷄冠山堡壘) 유적	65
② '203고지' 유적	71
③ 황금산포대(黃金山炮臺) 및 전암포대(電岩炮臺) 유적	74
④ 망대포대(望臺炮臺)	82
⑤ 수사영회견소 옛터(水師營會見所舊址)	85
⑥ 소련군열사능원(蘇聯軍烈士陵園)과 제정 러시아 공동묘지	89
4. 한국사 관련 유적지	95
1) 안중근 의거 및 한인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뤼순)	95
① 뤼순 일본관동지방법원 옛터 진열관(日本關東地方法院舊址陳列館)	96
② 뤼순 일본러시아감옥 옛터 박물관(日俄監獄舊址博物館)	97
2) 한국전쟁 관련 유적지(단둥)	108
① 항미원조열사능원(抗美援朝烈士陵園)	108
② 항미원조기념관(抗美援朝紀念館)	111
③ 압록강단교(鴨綠江斷橋)	113

Ⅲ. 중국 산둥반도 지역의 전쟁 및 역사 유적

1. 산둥반도의 지정학적 특징 및 군사 전략적 위치	120
2. 청일 · 러일전쟁 관련 유적지	124
1) 연타이(煙臺) 지역	124
① 동포대	125
② 서포대	128
③ 연타이산(煙臺山)	130
2) 웨이하이(威海) 지역(유공도)	133
① 중일갑오전쟁박물관(中日甲午戰爭博物館)	141
② 갑오해전기념관(甲午海戰紀念館)	142
③ 정여창기념관(丁汝昌紀念館)	144
④ 수사학당(水師學堂)	145
⑤ 철부두(鐵埠頭)	146
⑥ 포대(炮臺)	147
⑦ 정원함관광지구(定遠艦景區)	149
3. 독일 관련 유적지(칭다오)	150
① 칭다오잔교(靑島棧橋)	152
② 샤오칭다오(小靑島)	153
③ 칭다오산포대 유적(靑島山炮臺遺址)	154

④ 독일군이 건축한 해안 및 육지 방어용 포대	159
⑤ 독일군이 건축한 보루 및 병영	162
⑥ 칭다오총독부 및 영빈관	165
⑦ 칭다오기독교당과 칭다오천주교당	169
⑧ 법원, 해군영, 감옥, 경찰서 옛터	173

4. 한국사 관련 유적지 180

① 영성시(榮成市) 석도(石島) 적산(赤山) : 장보고 관련 유적지	180
② 봉래(蓬萊, 登州)	184
③ 대주산(大珠山)	187
④ 정몽주와 일조시(日照市) 천태산(天台山)	188



IV. 맺음말 : 전쟁 역사 유적에 대한 기억과 활용

1. 랴오둥반도 지역의 역사 유적	190
2. 산둥반도 지역의 역사 유적	194
3. 전쟁 유적에 대한 기억과 활용	197

■ 부록	199
------	-----

■ 찾아보기	237
--------	-----

그림 차례

- 그림 1 청일전쟁 경과도 · 40
- 그림 2 갑오고포 · 41
- 그림 3 백옥산탑 안내 · 42
- 그림 4 백옥신사납골사 모습 · 43
- 그림 5 표충탑 · 43
- 그림 6 만충묘기념관의 대문 옆에 적혀있는 글 · 44
- 그림 7 만충묘기념관 근경 · 45
- 그림 8 만충묘 건립 때의 현판 글씨 · 45
- 그림 9 구 만충묘비 · 46
- 그림 10 '뤼순대학살' 100주년에 새로 세운 만충묘 비석 · 46
- 그림 11 백옥산에서 굽어본 뤼순 군향 · 48
- 그림 12 석문자저격전기념비 · 49
- 그림 13 전투 과정을 적은 기념비 뒷면의 비문 · 49
- 그림 14 토성자저격전기념비 · 51
- 그림 15 화원구기념비 · 52
- 그림 16 기념비 비문 · 53
- 그림 17 기념비 아래 새겨진 글자 · 53
- 그림 18 남자탄고 유적의 표지 비석 · 54
- 그림 19 라오닝성 문화보호단위로 지정된 남자탄고 유적 · 55
- 그림 20 성급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된 남자탄고 유적 · 55
- 그림 21 화강암에 '안포탄'이란 글자가 새겨진 탄약고 · 55
- 그림 22 남자탄고 표지판 · 55
- 그림 23 뤼순 입성식 광경 · 57
- 그림 24 라오양회전 제1군 전적지 · 58
- 그림 25 라오양회전 제2군 전적지 · 58
- 그림 26 사하(沙河)회전 제1군 전적지 · 58
- 그림 27 만주군 총사령부 위치 · 58
- 그림 28 훈하(琿河)철교가 폭파된 광경 · 59

- 그림 29 만보산(萬寶山) 지역에 있었던 러시아군 방비 광경 · 59
- 그림 30 오오야마(大山) 총사령관 봉천 입성 장면 · 60
- 그림 31 러일전쟁 휴전 체결지 · 60
- 그림 32 러일전쟁 경과도 · 64
- 그림 33 동계관산보루 기념 비석 · 65
- 그림 34 동계관산 북보루 전쟁 유적지 · 66
- 그림 35 동계관산 제2보루 · 67
- 그림 36 동계관산 북쪽 보루 폭파 장면 · 68
- 그림 37 이치코(一戶)보루의 모습 · 68
- 그림 38 제정 러시아 루손 요새 사령관 칸트라친크가 전사한 곳에 세운 표석비 · 69
- 그림 39 이령산기념비 · 71
- 그림 40 노기 마레스케의 아들 노기 야스스케가 사망한 곳에 세워진 기념비 · 71
- 그림 41 203고지에 세워진 계시판 · 72
- 그림 42 203고지진열관의 표지판 · 72
- 그림 43 203고지 중턱 참호의 일본군 사상자 모습 · 73
- 그림 44 전암포대 표지석 · 74
- 그림 45 전암포대 전경 · 75
- 그림 46 전암포대에 설치된 대포 · 75
- 그림 47 1988년 12월 라오닝성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된 전암포대 · 76
- 그림 48 1988년 12월 성급 문물보호단위 표지석 · 76
- 그림 49 반룡산(盤龍山) 북포루 · 77
- 그림 50 반룡산(盤龍山) 동포루 · 78
- 그림 51 이룡산(二龍山)보루 뒷부분 목구멍 부분 · 79
- 그림 52 이룡산보루 · 79
- 그림 53 송수산(松樹山)보루 · 80
- 그림 54 송수산 제4포대 · 80
- 그림 55 용안(龍眼) 북방 보루(일명 그로바토킨보루) 외곽 참호 모습 · 81
- 그림 56 용안 북방 보루 · 81
- 그림 57 망대포대 비석 · 82
- 그림 58 망대포대의 두 문의 군함포 · 83
- 그림 59 망대포대 · 83
- 그림 60 도보 포병 제1연대 제1중대 진지 · 84

- 그림 61 공성산(攻城山) · 84
- 그림 62 수사영회견소 비석 · 85
- 그림 63 수사영회견소 비석의 비문 · 85
- 그림 64 수사영회견소 옛터의 표시판 · 85
- 그림 65 수사영회견소의 '봉대소지적' 비석 · 86
- 그림 66 노기 대장과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대장의 회합 장면 · 87
- 그림 67 투항하기 위해 수사영회견소에 도착하는 코사크 기병의 모습 · 87
- 그림 68 수사영회견소 · 88
- 그림 69 스톡렛리 중장이 수사영회견소에 오는 장면 · 88
- 그림 70 소련군열사기념비 · 89
- 그림 71 성급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된 소련군열사능원 · 90
- 그림 72 휘순시 평화광장의 소련군기념탑 · 91
- 그림 73 소련군열사능원 내의 묘지 · 91
- 그림 74 일본관동법원 옛터 · 95
- 그림 75 당시 공판 광경 · 96
- 그림 76 공판이 열렸던 법정 모습 · 97
- 그림 77 휘순 일본러시아감옥 옛터 박물관 · 97
- 그림 78 휘순 감옥의 뒷모습 · 98
- 그림 79 휘순 감옥 내부 · 99
- 그림 80 국가 중점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된 휘순 감옥 유적 · 99
- 그림 81 감옥 내 형구 · 100
- 그림 82 안중근이 수감되었던 감방 앞에 전시된 게시판 · 102
- 그림 83 안중근이 수감되었던 감방 전경 · 103
- 그림 84 감옥묘지 전경 · 103
- 그림 85 교형실 표시판 · 104
- 그림 86 교형실 전경 · 104
- 그림 87 휘순 대화여관의 옛 건물 모습 · 105
- 그림 88 휘순 대화여관의 현재 건물 모습 · 105
- 그림 89 휘순 대화여관 옛 건물 · 105
- 그림 90 휘순 대화여관의 건물 내부 · 106
- 그림 91 단동 향미원조열사능에 세워진 기념비 · 108
- 그림 92 1951년 중국인민지원군 제50군이 단동에서 항일열사능원을 조성할 때 세워놓은 기념비 · 109

- 그림 93 푸른 숲 속에 줄지어 서 있는 묘비 · 110
- 그림 94 향미원조기념탑 · 111
- 그림 95 향미원조기념관의 전쟁 무기 유물 전시장 · 111
- 그림 96 향미원조전쟁기념관의 전경 · 112
- 그림 97 압록강단교의 표지판 · 114
- 그림 98 압록강단교(2006. 5. 25 국가급 문물보호단위로 지정) · 115
- 그림 99 압록강단교의 전망대 · 115
- 그림 100 이룡양행 전경 · 116
- 그림 101 이룡양행 입구 · 117
- 그림 102 엔타이 전경 · 124
- 그림 103 동포대 · 126
- 그림 104 동포대 입구 · 126
- 그림 105 동포대 안내도 · 126
- 그림 106 동포대 전시물 1 · 127
- 그림 107 동포대 전시물 2 · 127
- 그림 108 동포대 전시물 3 · 127
- 그림 109 서포대 입구 · 128
- 그림 110 서포대 성벽 · 129
- 그림 111 엔타이산 안내도 · 130
- 그림 112 엔타이산 전경 · 130
- 그림 113 민족 영웅비 · 131
- 그림 114 엔타이산 주변 관련 유적지 · 131
- 그림 115 미국영사관 영사관저 옛터 안내문 · 132
- 그림 116 웨이하이~유공도 여객 안내판 · 138
- 그림 117 유공도 기념물 · 138
- 그림 118 유공도포대 전경 · 138
- 그림 119 유공도 유람 안내도 · 139
- 그림 120 갑오전쟁박물관 전경 · 141
- 그림 121 갑오전쟁박물관 · 141
- 그림 122 갑오전쟁박물관 진열관 · 142
- 그림 123 갑오해전 전시관 · 142
- 그림 124 영국 조차지 웨이하이웨이 역사박물관 입구 · 143

- 그림 125 영국 조차지 웨이하이웨이 역사박물관 · 143
- 그림 126 정여창 처소 · 143
- 그림 127 정여창 동상 · 143
- 그림 128 정여창기념관 · 144
- 그림 129 수사학당 표지판 · 145
- 그림 130 수사학당 안내문 · 145
- 그림 131 북양해군 철부두 안내문 · 146
- 그림 132 철부두 전경 · 146
- 그림 133 기정산포대 · 147
- 그림 134 기정산포대 표시석 뒷면 · 147
- 그림 135 기정산포대 전시물 1 · 147
- 그림 136 기정산포대 전시물 2 · 148
- 그림 137 기정산포대 설명도 · 148
- 그림 138 북양해군총훈비 · 148
- 그림 139 정원함 전경 · 149
- 그림 140 정원함 전시물 · 149
- 그림 141 정원함포대 전시물 · 149
- 그림 142 칭다오잔교 · 152
- 그림 143 샤오칭다오 전경 · 153
- 그림 144 샤오칭다오에서 바라본 칭다오 · 154
- 그림 145 샤오칭다오등대 · 154
- 그림 146 칭다오산포대 내부 전시물 · 155
- 그림 147 칭다오산포대 유지 · 155
- 그림 148 지하 지휘부 · 155
- 그림 149 지하 지휘부 안내도 · 156
- 그림 150 유적지 전체 안내도 · 157
- 그림 151 청대고포 전시물 · 158
- 그림 152 청대고포 안내문 · 158
- 그림 153 북포대 안내판 · 159
- 그림 154 칭다오총독부 · 166
- 그림 155 칭다오영빈관 · 167
- 그림 156 독일총독루 옛터 박물관 · 168

- 그림 157 영빈관 내 역사 전시물 1 · 169
- 그림 158 영빈관 내 역사 전시물 2 · 169
- 그림 159 기독교당 안내판 · 170
- 그림 160 기독교당 전경 · 171
- 그림 161 기독교당 표지석 · 172
- 그림 162 칭다오천주교당 · 172
- 그림 163 교오법원 옛터 · 173
- 그림 164 교오법원 · 173
- 그림 165 칭다오독일감옥 옛터 박물관 안내판 · 175
- 그림 166 칭다오독일감옥 · 176
- 그림 167 칭다오독일감옥 역사진열실 · 177
- 그림 168 경찰서 옛터 · 178
- 그림 169 적산법화원 내부 전경 · 180
- 그림 170 적산법화원 표지석 · 181
- 그림 171 장보고전기관 표지판 · 182
- 그림 172 장보고전기관 전면 벽화 · 182
- 그림 173 장보고전기관 전경 · 183
- 그림 174 장보고 동상 · 183
- 그림 175 봉래각 · 185
- 그림 176 보하이해와 황해 분계선 · 185
- 그림 177 대주산 · 187

책머리에

이 책은 2010년 동북아역사재단의 ‘동북아해양평화벨트 구축사업’ 연구용역 결과물로 제출된 현장 조사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책의 기획 취지는 주로 중국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 일대에 산재한 청일·러일전쟁 및 국제 교류 관련 유적, 그리고 한국전쟁(6·25전쟁) 및 한국인 관련 유적 등을 조사·연구하고, 추후에 어떻게 동북아 평화의 정착을 위해, 한국·중국·일본의 시민과 학생 등이 평화적으로 활용하고 교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나름대로 해답을 제공해 보려고 시도한 것이다.

최근 한국·중국·일본 사이에 영토와 역사 인식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평화를 실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중국·일본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허심탄회한 협력과 진솔한 교류를 통하여,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상과 실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중국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 일대의 근현대 국제 전쟁 및 한국 관련 주요 역사 유물·유적, 기념관, 박물관 등을 단행본으로 간행하는 것은 이러한 거시적·장기적 시야에서의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총 4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가까운 중국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 일대의 청일·러일전쟁 등 국제전 및 국제 교류, 한국(한국인) 관련 유적(지)과 기념물, 전시관, 박물관 등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조사한 현장보고서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 지역에 대한 치밀한 현장 조사 보고서, 혹은 역사 유적 탐방 안내서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이 책은 좋은 역사 탐방 안내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쉽게 찾아보고, 또 이 책을 들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참고하기 쉽도록 풍부한 현장 사진과 그림, 전문적 해설, 지도 등을 대폭 수록하였다. 또한 현장 방문시 탐방 일정을 참고하도록 부록에 몇 가지 현장 탐방코스를 제시하였다.

이 책은 청일·러일전쟁과 관련된 역사 유적지와 시설물을 현장 조사하여 그 위치와 구조 등을 살피고, 지정학적 조건과 목적 등을 분석코자 하였다. 나아가 설명문의 내용을 채록하여 향후 서술에 함축된 학술적·역사적 의미를 알아보고, 중국 측의 역사 이해와 역사 인식을 살피는 작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중국 소재 기념관의 전시물이나 설명문 내용을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분석하는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이는 과거 전쟁의 원인과 배경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민족의 공존·공영의 길을 추구하는 데 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랴오둥·산둥반도 등지의 근현대 국제 전쟁 관련 유적지 외에도 한국사 관련(장보고 활동 및 항일독립운동 등) 역사 유적지를 발굴·조사하며, 이왕의 시설물과 한국사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추적·조사하고자 하였다.

전적지 탐방의 현장 조사 방법과 문헌 자료(연구 논문, 연구 서적, 자료집, 사진첩, 회고록, 수기, 증언, 관련 신문·잡지 기사 등)도 동시에 참고함으로써 이론과 실재가 괴리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동북아 평화와 전쟁 유적을 심도 있게 다루고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좀 더 깊이 있는 조사와 심도 있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동아시아 국민들이 라오동반도와 산둥반도에 남아 있는 동아시아 제 국가의 교류 흔적을 기초로 역사의 거울로 삼아 미래 지향적인 동아시아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저자를 대표하여 건국대학교 한상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총론 : 동아시아 전쟁 및 역사 유적과 평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승자 영광’과 ‘패자 치욕’의 역설

동북아시아의 세 나라, 한·중·일은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세 나라 간에는 우호와 협력의 시간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엇갈린 이해관계와 국제관계의 정치적 환경에 의해 갈등과 대립, 충돌과 전쟁을 거듭하기도 하였다.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근대 국제 질서 변천 속에서, 세 나라는 모두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았다. 동방 제국으로 자칭하던 청나라는 아편전쟁을 계기로 점차 쇠락의 길로 들어섰지만, ‘종주국(宗主國)’이라는 특권을 유지하려 했다.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을 통해 부국강병과 제국주의의 길로 들어선 일본은 ‘탈아론(脫亞論)’에 바탕을 둔 대륙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북아시아, 나아가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 했다. 이와 함께 제정 러시아를 포함한 서구 열강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침략 야욕도 확대되어 갔다. 이로 인해 근대 동북아시아는 제국주의의 대륙 침략 각축장으로 전락하였다.

전쟁의 기억은 두려움과 죽음으로 표상되기 때문에 생명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새삼 일깨워준다. 그러나 민족이나 국가를 위한다는 ‘타자(他者)’를 위한 거룩한 죽음은 성스러움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장식되기도 하여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장식하고, 역사에도 아로 새겨지고 길이 남아 역사적 기억을 재생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한다.

전쟁은 흔히 ‘승자의 영광’과 ‘패자의 치욕’으로 종식되지만, ‘패자의 치욕’은 복수심을 불태우게 하여 새로운 시대에 또 다시 ‘승자의 영광’을 꿈꾸는 전쟁을 만들게 하기도 한다. 물론 전쟁이 승자의 영광과 패자의 치욕만 있다면 단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승자도 패자도 없는 치욕만 덩그러니 남아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지도 이해하기 힘든 역설에 빠지기도 한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는 명칭에서 한반도의 존재는 찾아볼 수 없지만, 양대 전쟁의 직접적인 발화점이자 피해자로서의 한반도는 승자와 패자의 줄다리기 속에서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제대로 위치 규정이 안 되는 역설에 빠져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한 청일전쟁과 뒤이어 발발한 러일전쟁은 전쟁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청과 일본, 일본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로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단순히 전쟁의 당사자로서의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2.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

동북아시아 지역을 무대로 전개된 근대의 전쟁은 이와 같은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동일한 전쟁 유적과 유물 및 기념물을 놓고, 시대와 주체에 따라 성격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었으며, 심지어는 상반되고 모순된 평가와 해석을 기반으로 각기 상이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동일한 전쟁 유적과 유물 및 기념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해석의 주체가 부여하는 시대적 의미에 따라 사회적 기능과 교육적 가치가 서로 다르게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의적인 해석과 평가가 사람들의 역사의식을 왜곡시킬 소지가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과연 이와 같은 현실이 동북아시아 지역 각국의 국민과 시민들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역사에 어느 정도나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근대 동아시아 전쟁이 우리들에게 침략과 피해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이는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을 텐데, 현존하는 유적지와 유물 및 기념물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서로 화해하고 평화 지대를 구축하는 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근대 동아시아 전쟁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 및 기념 시설물들을 미래 지향

적인 차원에서 활용할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 동북아시아 국가와 민족 간의 갈등과 대립 및 오해를 극복하고, 동북아시아 평화 지대를 만드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서로 다른 역사의식을 가진 세 나라 국민이 모두 수용할 있는 역사적이고 사실적이며 객관적인 해석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동북아시아 평화 지대를 열어 가는 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과거 역사에 대한 왜곡되고 자기중심적인 기억과 오해를 불식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공유하는 내일을 연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고 실천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지향적인 동아시아 관계를 창출하기 위해 심도 있게 고려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해 다시 질문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사실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 랴오둥반도와 신둥반도 일대에 퍼져 있는 전쟁과 교류 관련 유적지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한·중·일 근현대사의 상호 이해와 연대 의식을 고양하고, 이를 상호 교류 활동의 주요 거점 및 평화 벨트의 한 축으로 활용해 보고자 한다.

이는 동북아시아 제 민족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의 접합점을 마련해가는 작업이 될 것이며, 나아가 동아시아 시민 사회와 새 시대를 담당하는 의식 있는 청소년층을 양성하는 데 의미 있게 활용될 것이다.

한국·북한·중국·일본·타이완이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가와 민족이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오해와 불신을 털어버린 다음, 대화와 교류, 협력과 화해, 공존과 번영의 평화 지대를 구축해 나가는 일은 침략 전쟁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근현대사의 슬픈 기억을 극복하는 일

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이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 공동의 염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전쟁의 역사적 기억은 해석의 주체와 시대적 상황·사회적 분위기 및 부여하는 정치적 의미에 따라 그 사회적 기능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전쟁 기억에 대한 왜곡된 해석은 보복주의·국수주의·민족주의·국가 지상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

더불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한국의 보수적 민족주의 경향 및 중국의 국가 지상주의 논리, 그리고 북한의 극단적인 폐쇄주의 등은 동북아시아 평화 지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역사 해석 문제, 영토 분쟁 문제 및 무역 마찰 등은 동북아시아 평화 지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동아시아 각국이 자국의 '국익'만을 내세운다면 또 다른 전쟁으로 치닫게 되겠지만,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므로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

3. 중국 랴오둥·산둥반도에 주목한 이유

이 책은 동아시아사 및 세계사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유적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중국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 지역에 주목하고자 한다.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만 유용하게 활용되었던 전략적 요충지는 아니다. 과거 한반도와 협력하고 교류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서양의 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독일이 산둥반도를 장악하여 동서 교류가 있었던 점에도 의미를 두고자 한다.

랴오둥반도는 중국·일본·러시아·한반도 등의 국가와 교류 관계가 있었고, 산둥반도는 중국·일본·한반도·독일 등의 국가와 교류하는 관계가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즉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는 동아시아의 교류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었지만, 동서양의 교류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충지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94년 7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계속된 청일전쟁은 일본 제국주의 '대륙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청국에 대한 침략 야욕 확대와 조선에 대한 침략 발판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일본의 '대륙 정책'과 제정 러시아의 '동진남하 정책(東進南下政策)'은 양

국 간 대립을 격화시켰고, 결국 1904년 2월에서 이듬해 1월에 걸쳐 한반도와 중국 동북 지역을 쟁탈하기 위한 제국주의 간 식민지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러일전쟁이 이어졌다.

두 차례 전쟁은 근대 동북아시아 국제 정치 구도와 지형의 변동을 초래하였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야망은 더욱 팽창하였다. 이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졌고,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 민족에게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었다.

랴오둥반도(다렌·뤼순 일대)는 그 전략적 위치로 말미암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주된 전장이 되었다. 현재 이곳은 ‘노천전쟁박물관’으로 불릴 정도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유적과 유물 및 기념 시설물이 비교적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산둥반도(엔타이·웨이하이·칭다오 일대)는 고래로부터 한·중·일 삼국 간의 교역과 교류의 거점 노릇을 하였다. 근현대에 들어서는, 국제 정치적, 지정학상의 이점으로 인해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의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았다. 그러기에 산둥반도 곳곳에는 청일·러일전쟁을 비롯한 근현대사 관련 유적지와 건축물이 산재해 있다.

이 책은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에 남아 있는 청일·러일전쟁의 유적과 유물 및 기념 시설물, 그리고 이 지역에 남아 있는 한국과 독일에 관련된 역사 유적지도 조사 대상으로 삼아 직접 실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한 것이다.

특히 국가적·시대적·지역적 상황으로 중국의 주관적인 입장이 강하게 투영된 설명문과 안내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시아 근현대사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서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전쟁의 격전지

로서 역할을 하였던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에 남겨져 있는 전쟁 유적지 조사는 중국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이해하고 기념하는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방편이 되고,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관련 국가들의 역사 인식과 비교·검토한다면 향후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향후 동아시아 제 국가와 민족이 화해하고 공존하는 시금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작업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동북아시아 평화 지대를 구축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유적·유물 및 기념 시설물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과 대책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국가(한국·북한·중국·일본) 간에 존재하는 대립과 갈등 요소를 재점검하여 새로운 협력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된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의 실태 조사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주력하였다.

첫째, 청일·러일전쟁과 관련된 역사 유적지와 시설물을 현장 조사하여, 위치와 구조 등을 살피고 유적지가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설명문의 내용을 채록하여 서술에 함축된 학술적·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중국 측의 역사 이해와 역사 인식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데 주력하였다.

둘째, 기념관의 전시물이나 설명문 내용에서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찾아내는 데 관심을 두었다. 이는 과거 전쟁이 발생했던 배경과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 동아시아 제 국가와 민족이 공존하고 공영하는 길을 찾는 데 단서를 마련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셋째,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에 남겨져 있는 한국사 관련(장보고 활동 및 항일독립운동 등) 역사 유적지와 독일 관련 역사 유적지도 조사하여 동아시아 내

의 교류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교류에도 관심을 가졌다.

넷째, 전적지 탐방의 현장 조사 방법과 문헌 자료(연구 논문, 연구 서적, 자료집, 사진첩, 회고록, 수기, 증언, 관련 신문·잡지 기사 등)도 동시에 참고함으로써 이론과 실재가 괴리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II

중국 랴오둥반도 지역의 전쟁 및 역사 유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랴오둥반도의 지정학적 특징 및 군사 전략적 위치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남부에 위치한 랴오둥반도는 만주 대륙이 가장 남단으로 뻗은 황해와 보하이해(渤海) 사이의 산간 지역을 말한다. 랴오둥(遼東)이란 랴오허(遼河) 동쪽의 광대한 지역을 지칭하는 지명으로서 전국 시기 연(燕)나라가 이곳에 랴오둥군(요동군)을 설치하면서 기원되었다. 반도의 왼쪽은 황해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멀리 마주하고 있으며, 반도의 오른쪽은 중국에서 제일 큰 내해(內海)인 보하이해다. 랴오둥반도 남단은 산둥반도까지 직선거리 66해리밖에 안 된다. 현재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를 이어주는 해운 철로와 해륙 화물 선박이 개통되었으며, 다롄항(大連港)은 일본과 한국으로 통하는 국제 해운 원양 항선이 개통되면서 중국 동북 경제 개발의 창구로 급부상하고 있다.

랴오둥반도 북부에는 고대 랴오둥(요동)의 중진(重鎭)이었던 랴오둥성(遼東城)이 소재하고 있는데, 즉 오늘의 랴오닝성 랴오양시(遼陽市)다. 일찍이 전국 시대(戰國時代)에 연(燕)나라는 이곳에 랴오둥군(遼東郡, 요동군)을 설치하였다. 그 후 진(秦), 삼연(三燕), 위진(魏晉)뿐만 아니라 고구려(高句麗), 수당(隋唐), 요(遼), 금(金), 원(元), 명(明), 청(淸)은 모두 랴오양성(遼陽城)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 지역 및

한반도 북부에 대한 관할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고구려는 라오둥(요동)을 탈취하기 위해 약 2백여 년간 줄곧 전쟁을 진행하였으며 404년에 끝내 라오둥을 점령하였다. 고구려인들은 라오둥 지역을 장기적으로 점거하기 위해 라오양성을 중심으로 라오둥반도 지역에서 몇십 곳에 산성을 수축함으로써 라오둥성과 라오둥 지역을 수호했다. 수·당과 고구려 간의 전쟁에서 수·당군은 해상으로 라오둥반도에 상륙하여 고구려를 전복하려고 했다.

근대에 들어와서 라오둥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은 줄곧 군사적 요충지로서 많은 사건과 전쟁들이 발생하였다. 그중에서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은 모두 라오둥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청일전쟁은 일본이 라오둥반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청일 양국 간의 ‘시모노세키 조약(馬關條約)’ 및 러일전쟁 후의 ‘포츠머스 조약(善茨茅斯條約)’ 등 근대 동북아 지역 정치 판도에 큰 영향을 주었던 역사적 사건들은 대체로 라오둥반도와 불가분의 연관성을 갖는다.

예컨대 근대 이래로 일본의 궤기, 청국의 쇠퇴, 한국의 망국 및 동북아 지역 국제 환경의 변화 등은 모두 라오둥반도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때문에 라오둥반도는 세계 근대사 중 많은 사건과 역사적 변화상을 기록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 내에서 산둥반도, 라오둥반도, 한반도 이 세 반도의 특수 지역으로 구성된 산해반도(山海半島)의 지리 환경은 세계 지리 환경 중에서도 극히 특수한 예에 속한다. 그중 라오둥반도는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추적 위치에 속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라오둥반도는 중국 대륙의 중원 문화가 산둥반도를 거쳐 해양을 통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간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고대나 근대를 막론하고 상술한 세 반도 지역은 동북아 국가가 대륙에 진출할 때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라오둥반도를 소

유하면 곧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중원에 진출하는 경진(北京-天津)에 이르러 동북을 위협할 수 있었다. 때문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특별히 랴오둥반도의 군사 전략적 위치를 중시함과 동시에 두 차례나 큰 대가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랴오둥반도를 점령했고, 또한 이로부터 한반도와 산둥반도의 군사 점령을 공고히 함으로써 중국 침략에 대한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랴오둥반도 북단의 단절선은 랴오허 하구와 압록강 하구의 평행 직선을 표준으로 한다. 행정 구역에는 랴오닝성 잉커우시(營口市)의 개주(蓋州), 웅악(雄岳), 대석교(大石橋), 단둥시(丹東市)에 속하는 동항시(東港市-원 東溝市), 봉성시(鳳城市), 안산시(鞍山市)에 속하는 수암시(岫岩市) 및 다롄에 속하는 장하(庄河), 보란점(普蘭店), 와방점(瓦房店)을 포함한 16개 도시가 있다. 총면적은 2.94만km²로서 중국 3대 반도 중 산둥반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반도이며, 인구는 약 900만에 달한다. 반도의 북부는 약 150km,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차 좁아지고 최남단은 다롄시 뤼순구구(旅順口區)의 노철산(老鐵山)이다.

랴오둥반도는 낮은 산지와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백산계에 속하는 텐산산맥(天山山脈)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으면서 랴오둥반도의 대간을 이루고 있고 지하수가 많아서 하천이 매우 발달하였다. 주요 하천은 대요하(大遼河), 대청하(大清河), 웅악하(熊岳河), 복주하(復州河), 벽류하(碧流河), 대양하(大洋河), 압록강 등이다. 반도에는 오래된 변질암은 풍화되어 파도 모양의 구릉을 이루었고 연안에는 해식애(海蝕崖), 낭떠러지(巖灘), 갑각(岬角) 등이 많다. 그리고 지형 구조는 중간이 높고 동, 서, 남쪽 세 면으로 계단 모양으로 하강되면서 황해와 보하이해의 해변에 이르는데, 중간 부위는 양측으로 향하면서 순차적으로 중산(中山), 저산(低山), 구릉(丘陵)과 해변 평원 등 지형 유형으로 배열된다. 장백산계에 속하는 텐산산맥은 연산관(連山關)으로부터 남쪽 노철산(老鐵山)까지 남북

으로 이어지고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길게 뻗은 산마루를 형성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북쪽이 높고 넓으며, 남쪽이 낮고 좁은 지세를 나타내고, 대부분은 구릉 및 충적 평원이 많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랴오둥반도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고구려는 랴오둥반도를 사수하려는 방침을 굳히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랴오둥반도를 지킨다면 고구려는 곧 랴오둥을 소유할 수 있었으며, 또한 랴오둥 지역이 있음으로써 고구려의 정치 중심인 한반도 북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때문에 고구려는 240여 년이란 시간을 들여 적극적으로 이곳에 수많은 산성을 쌓아 전략적 방어선으로 삼았던 것이다. 사실상 고구려가 랴오둥반도에서 이런 산성들을 중심으로 수축한 방어 체계는 고구려의 존립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근대에 이르러 서세동점의 위기 속에서 청나라는 북방 해안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양무운동을 주도하던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의 건의에 따라 1881년부터 약 8년 동안 뤼순구에 북양수군기지를 건설하면서부터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그 전략적 위치가 급부상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뤼순구는 당나라 때 ‘도리진(都里鎭)’, 원나라 때는 ‘사자구(獅子口)’라고 불렸다. 명나라를 건립한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은 1371년에 두 장군을 파견하여 수군을 거느리고 산둥반도 봉래각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바다를 건너 랴오둥 지역을 지키도록 하였는데, 그때 여정이 순풍에 돛 단듯이 순조로웠기 때문에 사자구를 뤼순구(旅順口)라고 개칭하였다. 뤼순 군항은 중국 북방에서 얼지 않는 항구이고 또한 천연적인 요새로서 동쪽은 황금산(黃金山), 서쪽은 노호미반도(老虎尾半島), 서남쪽은 높은 노철산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은폐성과 방풍성이 양호하여 전략적으로 역수난공의 군항이었다. 당시 ‘북양 제1군항’으로 불리며 북양함대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곳은 한반도의 지배를 둘러싼 일본의 ‘대륙

정책과 러시아의 '남진 정책'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결국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바로 관동주를 발판으로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도발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소련군이 약 10년 동안 뤼순 군항을 조차하다가 1955년부터 중국인민해방군 모 해군부대가 해군기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세계 5대 군항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랴오둥반도는 다롄을 주요 출해구로 삼고 랴오닝성 대중형 주요 기업의 90%, 도시 인구나 고정 자산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고, 랴오닝성 경제 총생산액의 85%를 점하는 중요한 경제 지역으로 도약하면서 환보하이해 지역 경제 정책에 의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 지역은 교통이 매우 발달하여 선양-다롄, 다롄-잉커우, 단둥-다롄, 단둥-선양으로 형성된 고속 도로망과 철도망 및 다롄을 중심으로 국내외로 통하는 항공·해운·육해 연운은 육·해·공의 입체적 교통망이 형성되었다. 랴오둥반도는 다롄을 중심으로 다롄-잉커우-단둥의 경제 삼각구를 형성함으로써 이곳은 중국 동북 지역의 미래 경제 발전에 가장 큰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 주목된다.

2. 청일전쟁의 의의 및 유적지

1) 청일전쟁의 의의와 경과

청일전쟁은 1894~1895년 중국(淸)과 일본 간에 조선의 지배를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이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조선에서 발생한 동학농민운동이다. 청일전쟁 결과, 조선은 비록 청국의 종주권에서는 벗어났으나 반식민지로 되어가는 전기가 형성되었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대상으로 바뀌어 인적·물적으로 착취를 당하였다. 청국은 조선에 대한 전통적인 종주권을 상실한 데다 열강의 격렬한 제국주의적 분할 경쟁 대상국으로 전락하여, 대내외적으로 청 왕조의 붕괴를 재촉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 전쟁은 동아시아의 전통적 중국 중심 세계 질서가 붕괴되고 섬나라 일본이 동아시아 패자(覇者)로 등장하여 청·일본·조선 등 관련 각국 간의 국제 질서를 일본 중심으로 재조정시킴과 동시에, 이들 각국의 근대화 방향을 결정 지은 역사적 전쟁이다. 또한 당시 아시아에서 대립하던 영국과 러시아 등 제국주의 열강 간의 영토 분할 경쟁을 촉발시켰던 세계사적 의의도 지닌다.

청일전쟁 결과로 일본은 랴오둥반도를 획득하였으나, 삼국간섭으로 다시

반환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은 여전히 타이완 등의 영토를 식민지로 확보하여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제국주의 국가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청국으로부터 받아낸 배상금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과 군비 확장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청일전쟁의 경과를 개략적인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¹

〈표 1〉 청일전쟁의 경과

연도	월 일	내용
1885	4월 18일	특명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와 이홍장이 텐진 조약 체결
1894	2월 15일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교도와 농민이 고부에서 봉기
	3월 10일	이토 히로부미는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 문교장관에게 조선 사태 대응책 문의, 보호병 배치 제안
	5월 8일	이홍장 북양대신이 위안스카이(袁世凱) 주조선 총리교섭통상사의로부터 동학 기의 보고 접수
	5월 16일	홍계훈(洪啓薰) 초토사(摺討使)가 고종(高宗)에게 외병(外兵)을 빌려 토벌할 것을 비밀 진술
	5월 20일	가와가미 소로쿠(川上操六) 육군참모차장은 이지치 고우스케(伊知地幸介) 포병소좌참모부원을 부산에 파견하여 동학 기의 상황 조사
	5월 24일	조선 장성(長城)에서 중앙 관군이 동학농민군에 패배
	5월 26일	위안스카이가 병조판서 민영준을 만나 동학 평정을 위해 조선 돕기를 희망
	5월 29일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 외무장관이 스키무라(杉村) 주조선 대리공사에게 조선이 중국에게 구원 요청하는 것에 주의할 것을 밀령
	6월 1일	고종은 중국에 구원 요청하여 동학기의 진압 결정
	6월 2일	이토 히로부미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목적으로 조선 출병 결정
6월 5일	일본 천황은 조선 파병을 비준하고 히로시마(廣島) 주재 제5사단 동원 명령	
6월 6일	섭사성(聶士成) 청 태원진(太原鎭) 총병이 900여 명을 이끌고 대고항(大沽港) 출발. 텐진 조약에 의거하여 중국 파병을 일본에 공한(公翰)	

1 大阪市役所 編(1937), 『日清戰爭回顧展覽會目錄』, 大阪市役所, 45~50쪽; 문희수(2009), 「국제적 전후 관계에 있어서 청일전쟁(1894~1895)에 관한 연대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0집 2호, 229~321쪽을 종합하여 정리

1894	6월 7일	일본 출병 소식을 들은 조선 정부가 청군에게 상륙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나 거부됨
	6월 9일	오오시마 요시마사(大島義昌)의 지휘로 혼성여단 도해 시작
	6월 10일	오오도리 게이스케(大島圭介) 육전대(陸戰隊) 약간이 경성(京城)에 진입
	7월 18일	조선 정부는 일본군 주둔에 항의하고 철병 요구
	7월 23일	오오도리 게이스케는 중국과의 밀약 폐기를 조선 국왕에게 권고
	7월 24일	일본공사 오오도리 게이스케에게 아산에 주둔한 중국 병사 철퇴를 위임
	7월 25일	연합함대 제1유격대가 중국 해군과 교전
	8월 1일	중국에 선전 포고
	8월 26일	조선과 공수(攻守) 동맹 조약 조인
	9월 16일	제1군 평양 점령
	9월 17일	황해대해전, 중국 북양함대 괴멸
	10월 31일	다초미(立見) 혼성여단(混成旅團) 봉황성(鳳凰城) 점령
	11월 7일	제2군 다렌 공략
	11월 21일	뤼순 함락
1895	1월 10일	혼성 제1여단 개평(蓋平) 함락
	1월 14일	산둥반도 상륙 개시
	1월 30일	연합함대 웨이하이웨이포대 공격
	2월 6일	유공도(劉公島) 습격
	2월 11일	중국 수사제독 정여창 유공도(劉公島)에서 자결
	2월 12일	중국 북양함대 항복
	3월 6일	제1사단 잉커우(營口) 함락
	3월 7일	우장성(牛莊城) 점령
	3월 26일	팡호도(澎湖島) 점령
	3월 30일	청일 휴전 조약 조인
	4월 11일	점령지 총독부를 금주(金州)에 개설
	4월 17일	청일 강화 조약 성립. 금주반도·타이완·팡호도 할양, 배상금 2억 냥
	5월 29일	근위사단 타이완 상륙 시작
	5월 30일	대본영 동경에 개선
	10월 26일	타이완 평정

1895	11월 8일	랴오둥반도 반환 조약 조인
	12월 21일	랴오둥반도 반환 완료

이상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쟁의 경과를 이 책 뒷부분에 나오는 각 지역의 전쟁 유적지 조사 내용을 통해 구체적인 전쟁의 의미를 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청일전쟁 경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도로 경과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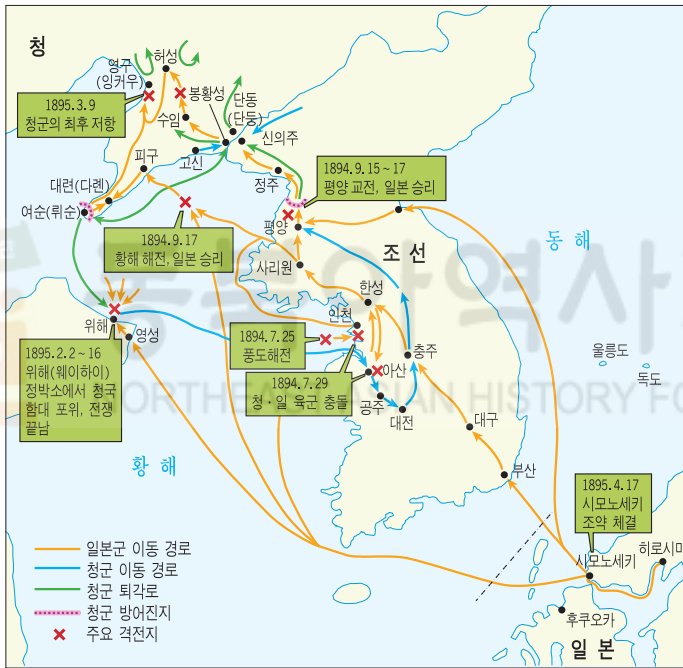


그림 11 청일전쟁 경과도

2) 청일전쟁의 유적지

현재 뤼순에 있는 청일전쟁의 유적과 유물로는 황금산(黃金山)포대, 모율취(磨律嘴)포대, 노호미(老虎尾)포대, 성두산(城頭山)포대, 의자산(椅子山)포대, 백옥산(白玉山)포대, 남자탄고(南子彈庫), 만충묘(萬忠墓), 갑오고포(甲午古炮) 및 사구청말병영유적(寺溝清末兵營遺蹟) 등이 있다. 이 유적지들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갑오고포(甲午古炮)

뤼순 시내 중심에 위치한 백옥산 남쪽 산기슭에는 오래된 대포 한문이 있다. 청일전쟁의 역사와 기억을 대변하는 상징물로서, ‘갑오고포’로 불린다.



그림 2 | 갑오고포(뤼순 백옥산 남쪽 기슭에 위치)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구매한 이 대포는 1881년 독일 크루프 병기공장에서 주조하였다. 포신 길이는 7.2m, 구경은 210mm, 무게는 13,482t에 달한다. 1885년 청 정부는 뤼순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모율취(磨律嘴)포대에 1문, 모주초(模珠礁)포대와 노호미(老虎尾)포대에 각각 2문씩 배치하였다. 현재 백옥산 남쪽 기슭에 전시되어 있는 갑오고포는 당시 모율취포대에 있던 두 문 중 하나다.

1894년 7월 청일전쟁 발발 후, 11월 21일 일본군이 뤼순을 공격하였을 때 이 대포들은 일본군의 전리품이 되었다. 일본군은 노획한 청군의 무기와 군수 물자를 모두 일본으로 운반해 갔지만, 이 대포는 남겨두었다. 1898년 12월 제정 러시아가 다렌을 점령함에 따라 러시아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 발발 후, 제정 러시아는 이 대포를 노철산 동쪽 199고지로 옮겼다. 1905년 1월 1일 뤼순에 주둔한 러시아군이 투항함으로써, '고포'는 또 다시 일본군의 전리품이 되었다.

1907년 6월부터 일본이 백옥산에 러일전쟁에서 전사한 일본군 장병들의 '망령(亡靈)'을 위로하기 위해, 백옥신사 남골사(白玉神社納骨祠)와 표충탑(表忠塔)을 만들 때, 노철산 199고지에 있던 고포는 또 다시 이곳으로 옮겨졌다.

화강암으로 쌓아 만든 포대의 기반 우측에는 '明治四十一年(1908년)五月'이라고 표기되어 노철산으로부터 옮겨진 시기가 새겨져 있다. 현재 '고포'는 관광객들의 관람물로 전락했지만,



그림 3 | 백옥산탑 안내



그림 4 | 백옥신사남골사 모습



그림 5 | 표충탑

두 차례 전란을 겪었던 '신세(身世)'는 전쟁의 상처와 아픔 및 치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② 뤼순 만충묘기념관(萬忠墓紀念館)

뤼순 백옥산 동쪽 산마루에 위치한 뤼순 만충묘기념관은 흔히 '만충묘(萬忠墓)'라고 불린다. 청일전쟁 때 일본군이 조작한 '뤼순대학살'에서 희생된 2만여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의 고훈(孤魂)이 묻혀 있는 곳이다.

청일전쟁 발발 후인 1894년 11월 7일, 일본군 제2군 제1사단은 다렌의 만포대를 점령했고, 11월 21일 뤼순을 점령했다. 11월 21일~11월 25일까지 일본군은 2만여 명의 중국인을 학살하는 이른바 '뤼순대학살'을 자행했다. 당시 일본 외상이었던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는 그의 회고록 『건건록(蹇蹇錄)』에서



그림 6 | 만충묘기념관의 대문 옆에 적혀있는 글(“소름이 끼쳤던 도시, 시체가 산처럼 쌓였던 도시, 선혈로 물들었던 도시, 죽음으로 보유했던 도시”)

“이번 학살에서 재난을 면할 수 있었던 중국인은 전체 도시에서 36명만이다.”라고 서술했다.

현재 만충묘기념관에 보존되어 있는 만충묘 비석 4개는 청일전쟁의 처참한 기억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죄상을 일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세들에게 전쟁의 기억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1896년 11월 일본군이 랴오둥반도에서 철퇴할 때 직예후보지주(直隸候補知州) 고원훈(顧元勛)은 일본군이 중국인을 학살하고 화장한 뼈가루를 묻은 곳에 세웠던 ‘청국장사진망지묘(淸國將士陣亡之墓)’라고 쓴 목패(木牌)를 뽑아버리고, ‘만충묘(萬忠墓)’라는 글자가 새겨진 돌비석을 세웠다. 이것이 첫 번째 비석이다.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 후, 일본군은 또 다시 뤄순을 점령했다. 일제 식민당국은 ‘만충묘’가 중국인들의 분노와 반항 및 반일 정서를 촉발시킬 것을 두려워하여, 비밀리에 만충묘 비석을 관동청의원(關東廳醫院)에 감추었다.

그리고 청명절에 중국인들이 만충묘에서 제사지내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계속 만충묘에 제사를 지냈다. 1922년 3월 12일 뤄순화상공의회(旅順華商公議會) 회장 도옥정(陶旭亭) 등은 만충묘의 보수를 위한 조직을 발기하여 ‘만충묘비’를 세웠다. 이것이 두 번째 비석이다.



그림 7 | 만충묘기념관 근경

1946년 10월 25일, 뤄순 시민들은 만충묘에서 성대한 제사를 올림과 동시에 만충묘를 확장하기로 선포하였다. 1948년 만충묘 확장 건설 공사에 착수하여, 그해 11월 세 번째 만충묘 비석을 세웠다.



그림 8 | 만충묘 건립 때의 현판 글씨(뤄순화상공의회, 1922)

비석 뒷면에 새겨진 비문은 모두 385자인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관동인민(關東人民)은 중소우의(中蘇友誼)를 공고히 하고, 원동(遠東)의 영구 화평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1994년 11월 21일, 뤄순의 각계각층 사람들이 ‘뤄순대학살순난자백년제사일(旅順大屠殺殉難者同胞百年祭日)’을 맞아 대규모의 갑오백년 제사 활동을 거행하였다. 이때 만충묘의 유골을 중국식에 따라 원형으로 증건한 묘지에 다시 안장하면서 동시에 ‘갑오백년제증건만충묘비기(甲午百年祭重建萬忠墓碑記)’를 세웠



그림 9 | 구 만충묘비(1922)



그림 10 | '뤼순대학살' 100주년에 새로 세운 만충묘 비석 (1994. 11. 21)

다. 이것이 만충묘의 네 번째 비석이다.

이 비석의 비문은 모두 383자인데, 비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백년대제(百年大祭)를 맞이하여 돌에 새김으로써 영령을 위로하고 또한 후세에 경시(警示)하 노니, 평안에 처했을 때 안위를 걱정하고 국가의 치욕을 잊지 않으며(居安思危 勿忘國恥), 국가가 강하고 국민이 부유하여 중화를 진흥시키자(強國富民 振興中華)” 라는 내용을 새겼다.

만충묘에 있는 네 개의 비석은 침략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중국 민중의 꾸준한 노력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 시기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 근대사는 외세 침략으로 말미암아 비운과 치욕으로 얼룩졌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역사를 기억하고 국치를 잊지 말자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국민 정신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은 곳곳에 세워져 있는 ‘명기역사 물망국치(銘記歷史 勿忘國恥)’라는 표어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③ 백옥산탑(白玉山塔) 유적

뤼순 군항의 북쪽에 위치한 백옥산 꼭대기에 있는 '백옥산탑'의 원명은 '표충탑'이지만, 흔히 '백옥탑' 또는 '백옥산탑'으로 불리고 있다(그림 5 참조). 청 말기 백옥산은 중요한 군사 요지였다. 1883년 동북쪽 산언덕에 청군의 군계총고(軍械總庫)가 수축되었고, 백옥산포대를 만들었지만, 청일전쟁 때 일본군이 모두 파괴하였다.

제정 러시아가 뤼순을 점령한 후, 백옥산 북측에 3문의 대포를 설치하고 포대 진영을 확충하였다. 러일전쟁이 끝난 뒤인 1905년 11월, 일본군은 백옥산 꼭대기 동북쪽에 '백옥신사납골사(白玉神社納骨祠)'를 건립하고 뤼순 요새 전투에서 전사한 2만 2723구의 유골을 보관함과 동시에 남쪽 산마루에 '제3회 폐쇄대기념비(閉塞隊記念碑)'를 세워 전사한 일본군 사병들의 혼령을 위로하였다. 해방 후 이 두 건축물은 철거되어 현재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1907년 6월,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와 제3군 사령관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는 전사한 일본군 사병의 '충혼'을 기리기 위해, 백옥산에 '표충탑'을 세우기로 하였다. 일본 식민당국은 일본 국내에서 모금한 25만 엔(圓)을 투자하고, 수천 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동원하여 2년 5개월 만인 1909년 11월 12일 준공하였다.

백옥산탑의 높이는 66.8m이고, 모두 273개 계단과 18개 창문으로 조성되었다. 설계자는 일본군 전사자의 '충혼'이 촛불처럼 밝게 비춘다는 뜻에서 '표충탑'의 외형을 촛불 모양(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을 뜻하는 포탄 모양으로 해석되기도 함)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표충탑'이란 글자는 일본 천황의 후예인 후시미 노미야(伏見宮眞) 애친왕(愛親王)이 썼는데, 러일전쟁에서 일본 천황에게 모든 충성을 다 바친 '영령'을 기념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탑 꼭대기 북쪽에는 도고 헤이하치로와 노기 마



그림 11 | 백옥산에서 굽어본 뤼순 군항

레스케가 함께 쓴 동판의 명문(銘文)이 뤼순 요새 전투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는 글자가 닳아서 알아볼 수 없다.

일본 식민당국은 매년 봄가을 이곳에서 제사 의식을 거행하면서, 천황을 드높이고 일본의 군국주의 사상을 선양하였다. 특히 1916년부터는 ‘오사키여행구락부(大阪旅行俱樂部)’를 통해 3갈래 유람 코스를 만들고, ‘뤼순전적성지유람(旅順戰跡聖地遊覽)’을 조직하여, 일본 청소년들에게 군국주의 사상과 소위 ‘무사도 정신’을 주입시키는 장소로 활용하였다.

1945년 8월 22일 뤼순은 소련군에 의해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되었다. 당시 뤼순 지방정부는 ‘표충탑’을 ‘백옥탑’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1985년에 다시 ‘백옥산탑’으로 불렸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부터 ‘문화대혁명’이 끝날 때까지, 백옥산은 군사 요충지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곳이다.

1986년부터 백옥산풍경구(白玉山風景區)가 개방되었지만, 외국인은 공안 부문의 통행증 수속을 밟아야 했다. 그리고 1988년과 1995년에는 백옥산 꼭대

기 동북쪽에 뤼순해군병기관(旅順海軍兵器館)과 뤼순해군기지역사전람관(旅順海軍基地歷史展覽館)을 건립하여,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관련 역사 사진, 자료 및 실물 1,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현재 백옥산탑 유적은 문물보호단위(시급), 국방교육기지(성급) 및 애국주의 교육기지(시급)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렌시 ‘10대 풍경구’의 하나로 매년 80만에 달하는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④ 석문자저격전기념비(石門子狙擊戰紀念碑)

석문자저격전기념비는 다렌시 금주(金州) 이십리보(二十里堡), 종가촌(鐘家村)의 하가점둔(夏家店屯)에 있다. 이는 흔히 ‘금주 수원지(水源地)’라고 부르는 202호 국도변의 무성한 숲 속에 위치하고 있다. 청일전쟁 때 청군들이 금주로 진격



그림 12 | 석문자저격전기념비(1994)



그림 13 | 전투 과정을 적은 기념비 뒷면의 비문

하는 일본군의 진공을 막기 위해 벌였던 방어전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석문자저격전기념비’이다. 화강암으로 된 기념비의 뒷면에는 전투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1894년 10월 24일, 일본군 제2군 제1사단장 야마지 모도하루(山地元治) 중장과 보병 제1여단장 노기 마레스케 등이 인솔하는 5~6천여 명은 화원구로 상륙한 다음 세 갈래로 나누어 금주를 향해 진격하였다. 금주를 지키던 청군 총병 서방도(徐邦道)는 석문자의 동대산(東臺山, 현재 중가촌의 서대산(西臺山)과 포자산(豹子山), 현재의 중가촌의 북쪽산)에 포대를 설치하고 금주를 방어하는 전투를 지휘하였다.

11월 4일 오후, 일본군 1개 소분대가 대흑산(大黑山)에 이르렀다가, 청군의 포위에 갇혀 크게 패배하였다. 이튿날 오후 11시, 일본군 제2군 제1사단 야마지 모도하루는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청군의 진지를 공격했다.

동대산에서 2시간 남짓 방어전을 지휘하던 총병 서방도는 후퇴를 명령했다. 이어서 노기 마레스케가 이끄는 일본군 보병 제1여단이 포자산을 점령함으로써 청군의 석문자 방어선은 무너졌다. 이로 인해 6일 오전 11시쯤 결국 금주도 일본군에 함락되었다.

‘석문자저격전’은 청일전쟁 당시 ‘금주보위전(金州保衛戰)’에서 중요한 전투로 일본군 제2군이 중국 영토에 상륙하여 처음으로 맞닥뜨린 전투였다. 1994년 다롄시 문물관리위원회(大連市文物管理委員會)에서는 옛 전적지에 ‘석문자저격전 기념비’를 세웠다. 현재 시급 ‘애국주의교육기지’ 및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어 있다.

⑤ 토성자저격전기념비(土城子狙擊戰紀念碑)

다롄시 뤼순구(旅順口) 삼간보진(三澗堡鎭)에 있는 토성자(土城子)는 뤼순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서쪽으로 보하이해에 임하고, 동쪽 삼면이 구릉 지대로써 병풍 모양을 이루고 있다. 토성자는 다렌에서 뤼순으로 통하는 교통 요충지로서 청일전쟁 때 뤼순으로 진격하는 일본군을 저지하였던 곳이다.

1894년 11월 18일, 금주(金州) 방어전에서 후퇴한 청군 총병 서방도는 토성자에서 3천여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일본군이 뤼순으로 진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전을 전개하였다.

이날 오전 10시, 아키야마 요시후루(秋山好古)가 거느리는 일본군 제1로군, 니시 간지로(西寛二郎)가 거느리는 제2로군이 두 갈래로 뤼순을 향해 진격해 왔다. 청군은 서방도의 지휘 하에 유리한 지세를 이용하여 먼저 고지를 점령한 뒤, 세 가지 경로로 일본군을 공격했다. 치열한 전투는 오후 1시까지 지속되었고, 일본군은 영성자(營城子) 일대로 퇴각했다.

‘토성자저격전’은 청일전쟁의 첫 승첩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일본군 사상자가 46명(사망 11명, 부상 35명)이었다. 토성자저격전 후, 서방도는 청군을 이끌고 뤼순으로 퇴각하였다. 19일 아침 오전 5시, 일본군은 영성자에서 두 갈래로 나누어 뤼순으로 진공을 재개하였고, 21일 뤼순을 점령한 뒤 무고한 중국인 2만여 명을 살해하는 이른바 ‘뤼순대학살’ 만행을 저질렀다.

1994년에 다렌시 문물관리위원회와 뤼순구 정부에서 토성자저격전기념비를 세웠다. 현재 시급 ‘애국주의 교육기지’ 및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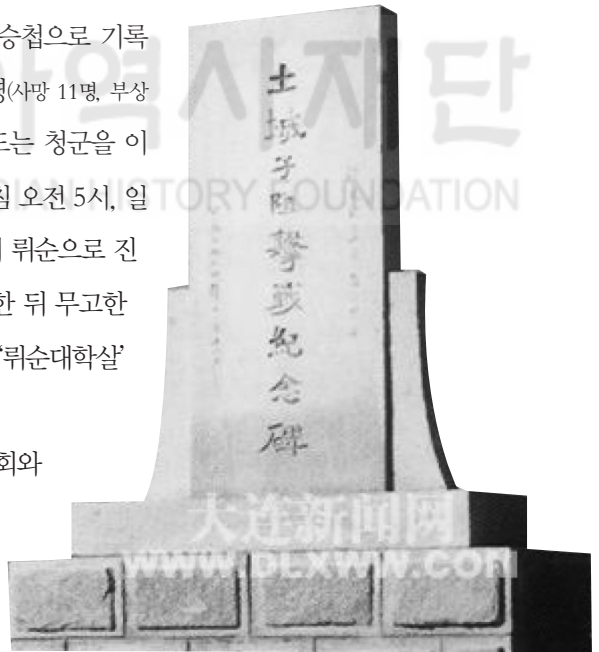


그림 14 | 토성자저격전기념비(뤼순 삼간보진, 1994)

⑥ 화원구기념비(花園口紀念碑)

다렌시에 속하는 장하시(莊河市) 명양진(明陽鎮)에 있는 화원구(花園口)는 랴오둥반도의 남단에 속하며, 황해 연안의 작은 만(灣)으로서,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군사 요충지다. 옛 지명은 ‘도화포(桃花浦)’였다.

바닷가에 복숭아 나무가 무성하고, 봄에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 마치 ‘화원을 이룬 듯하다’는 뜻에서, 화원구라는 이름이 유래하였다고 한다.

당 태종이 랴오둥을 공격할 때, 화원구로 상륙했으며 명나라 때에는 왜구를 방어하는 초소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 일본군은 두 차례 이곳으로 상륙하였다.

1894년 7월 25일,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조선에 출병한 일본군이 풍도에 정박한 청나라 군함과 아산에 주둔한 청군을 공격함으로써 청일전쟁이 발발했다.

9월 17일 ‘황해대전’에서 청나라 북양함대를 격파한 일본군 대본영은 해륙



그림 15 | 화원구기념비(1994)

로 양 방향으로 북진하기 위해 제2군을 편성함과 동시에, 일본 연합함대 참모장 사메시마 가즈노리(鮫島貞規) 대좌로 하여금 랴오둥반도에서 상륙 지점을 찾도록 명령했다. 10월 5일 사메시마 가즈노리 대좌는 전보로 화원구로 상륙할 계획을 알렸다.

10월 24일 새벽, 조선 대동강 입구의 어은동(漁隱洞)을 떠난 일본군 제2군 제1사단, 제12혼성여단은 일본 연합함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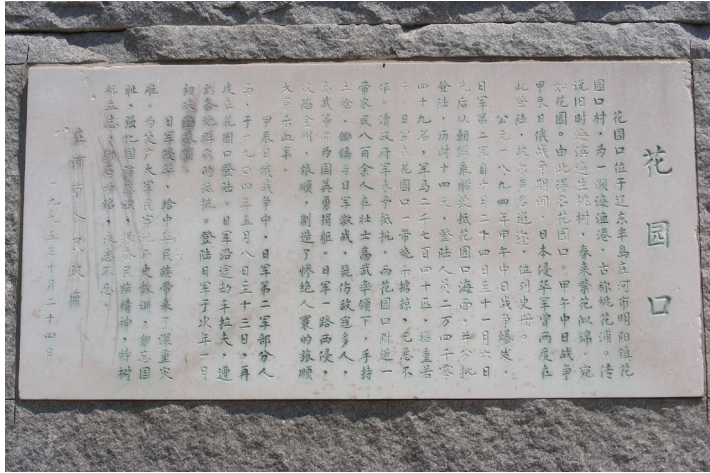


그림 16 | 기념비 비문(청일·러일전쟁 때 일본군이 화원구를 두 차례 상륙한 과정 기록)

구로 상륙했다. 11월 6일까지 14일 동안 24,049명이 상륙하였고, 2,470필의 전마(戰馬) 및 중무기가 운송되었다. 당시 청나라 군대는 효과적인 방어망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군은 병력의 손실 없이 쉽게 상륙할 수 있었다.



그림 17 | 기념비 아래 새겨진 글자(勿忘國恥振興中華)

북쪽에서 압록강을 넘은 일본군 제1군과 화원구로 상륙한 제2군은 남북으로 협공 태세를 취했다. 이어서 일본군 제2군 제1사단이 금주와 다렌의 만포대 및 뤄순 요새를 점령했다.

일본군의 화원구를 통한 상륙 작전은 러일전쟁에서 다시 재현되었다. 1904년 5월 8일부터 13일까지 일본군 제2군은 화원구로 상륙하여, 이듬해 1월 1일 뤄순을 함락시켰다.

1994년 10월 24일 청일전쟁 100주년을 맞아, 당시 국무원 부총리 겸 국방부 부장 장아이핑(張愛萍)이 '화원구기념비'란 제사(題辭)를 쓴 기념비를 세웠다. 현재 시급 '애국주의교육기지'와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어 있다.

⑦ 남자탄고(南子彈庫) 유적



그림 18 | 남자탄고 유적의 표시 비석

북으로 향한 정문의 두 옆벽은 돌로 쌓았으며, 동서 길이 125m, 남북 넓이가 62m이다. 정면 탄약고와 동·서 탄약고로 나뉘는데, 정면 탄약고의 동서 길이는 55m, 남북 길이는 23m, 총면적은 1200㎡에 달한다.

당시 뤼순은 청나라 북양함대의 군항으로 사용되었는데, 해안과 육로에 구축한 포대 19곳에 대포 90여문이 설치되었고, 육군 1만 명이 주둔했으며,

뤼순 군항의 동쪽에 있는 황금산해수욕장과 모주초가(模珠焦街) 사이에는 청나라 이홍장이 1880년부터 뤼순 군항을 수축하고, 육지 및 해안에 포대를 쌓을 때 만들었던 탄약고가 여러 곳 있었다. 그중에서 은밀한 곳에 있으면서도 규모가 커서 탄약 보관 규모가 가장 큰 창고가 바로 남자탄고(南子彈庫)였다.

이 탄약고는 '반지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남

북양함대는 군함 25척, 장병이 4,000명에 달했다.

청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1894년 9월 12일 제독 정여창(丁汝昌)이 이끄는 북양함대는 위순 군항에 정박하면서, 남자탄고의 탄약을 실었다. 9월 17일 남자탄고에서 탄약을 싣고 다렌만에서 돌아오던 북양함대와 일본의 연합함대가 '황해대전(黃海大戰)'을 벌였다.

1985년 6월 남자탄고 유적은 다렌시 '문물보호단위' 및 '애국주의교육기지'로 지정되었으며, 위순의 전쟁 유적 관광 명소가 되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그림 19 | 라오닝성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된 남자탄고 유적(2003)



그림 20 | 성급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된 남자탄고 유적(2005) (그림출처) 王記華 제공



그림 21 | 화강암에 '안포탄'이란 글자가 새겨진 탄약고



그림 22 | 남자탄고 표지판

3. 러일전쟁의 의의 및 유적지

1) 러일전쟁의 의의와 경과

러일전쟁은 1904~1905년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제국주의 전쟁이다. 러시아는 '동청철도부설권(東淸鐵道敷設權)'을 획득하여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고, 독일이 교주만(膠州灣)을 조차한 것을 계기로 1898년 뤼순과 다렌을 25년간 조차하여 만주를 세력권화하였다.

러시아와 일본은 1903년 8월부터 러일전쟁 개전에 이르기까지 만주와 한국 문제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교섭을 시도하였다. 일본은 한국을 자국의 보호령으로 삼고, 러시아는 만주에서 우월권을 인정받는 것으로 기회균등 원칙을 주장하였다. 러시아는 자국의 만주 독점권과 아울러 중립 지대(한국의 39° 이북) 설정 및 한국령의 전략적 사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다.

러일전쟁의 결과 동아시아 정세가 크게 변하여 제1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세력 구도의 형성을 촉진시켰다. 러일전쟁은 세계사적으로도 영국에 맞서던 러시아와 미국의 협조 관계가 영국, 미국, 일본의 동맹 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고 동아시아에서는 미·일 중심의 근대 체제가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

기가 되었다.²

러일전쟁 후 일본은 뤼순의 전장을 중시하여 1913년 ‘만주전적보존회’를 설립하여 과거 전쟁 유적지 보존과 건설에 노력하였다. 주요 전장의 유적지에 기념비를 세우고 동시에 백옥산(白玉山), 동계관산(東鷄冠山), 이룡산(二龍山), 송수산(松樹山), 이령산(爾靈山) 등 10여 km를 도는 ‘전적선(戰迹線)’과 ‘관광유람선’을 만들어 일본인이 전적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러한 유적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파괴되거나 부분적으로 훼손되었다. 백옥신사납골사(白玉神社納骨祠), 전리품진열관, 수사영회견소(水師營會見所) 등은 소련군에 의해서 철거되었고, 뤼순항구 서쪽 암초상의 ‘폐쇄대기념비(閉塞隊紀念碑)’와 203고지 부근의 ‘노기 야스스케 전사비(乃木保典戰死之所碑)’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파괴되었다. 최근 과거의 전쟁터를 관람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뤼순구 인민정부가 전쟁 유적지에 대한 보호를 중시하고 교통 노선을 건설하여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³



그림 23 | 뤼순 입성식 광경(1905년 1월 13일 노기 대장을 선두로 일본군이 도보로 백옥산 동쪽 도로를 거쳐 뤼순에 입성하는 모습) <그림출처> 『1904~1905年 戰績紀念寫眞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 2 도진순(2006), 『세기의 망각을 넘어서: 러일전쟁 100주년 기념행사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77, 279쪽
- 3 藩茂忠 編(2000), 『日俄戰爭在旅順』, 遼寧師範大學出版社, 4쪽



그림 24 | 라오양회전 제1군 전적지(라오양회전은 1904년 8월 25일~28일에 걸쳐 벌어졌다)
〈그림출처〉『1904~1905年 戰績紀念寫眞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그림 25 | 라오양회전 제2군 전적지
〈그림출처〉『1904~1905年 戰績紀念寫眞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그림 26 | 사하(沙河)회전 제1군 전적지
〈그림출처〉『1904~1905年 戰績紀念寫眞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그림 27 | 만주군 총사령부 위치(러일전쟁 당시 만주군 총사령관은 이곳에 주둔하면서 사하흑구대(沙河黑溝臺) 및 봉천(奉天)회전을 지휘하였다)
〈그림출처〉『1904~1905年 戰績紀念寫眞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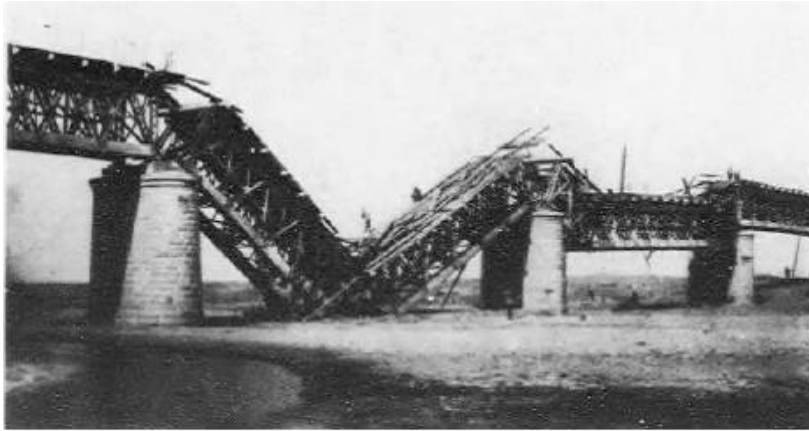


그림 28 | 훈하(琿河)철교가 폭파된 광경
 (그림출처) 『1904~1905年 戰績紀念寫真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그림 29 | 만보산(萬寶山) 지역에 있었던 러시아군 방비 광경
 (그림출처) 『1904~1905年 戰績紀念寫真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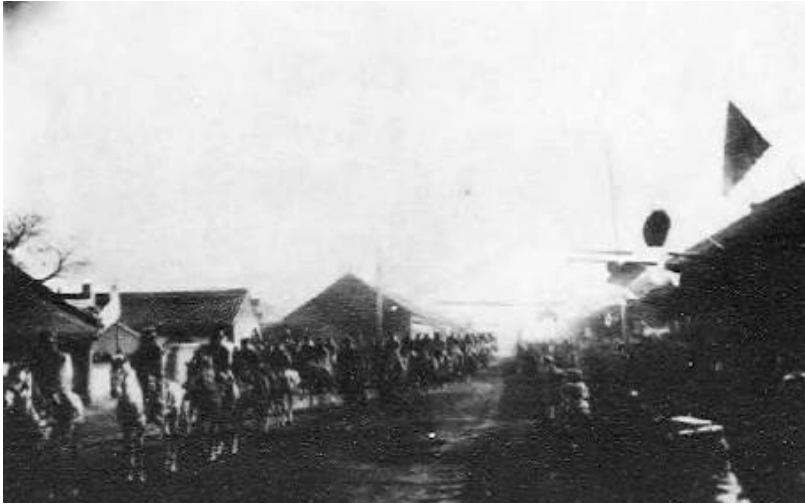


그림 30 | 오오야마(大山) 총사령관 봉천 입성 장면
 (그림출처) 『1904~1905年 戰績紀念寫眞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31 | 러일전쟁 휴전 체결지(1905년 9월 포츠머스에서 러일전쟁 휴전 강화 조약 체결)
 (그림출처) 『1904~1905年 戰績紀念寫眞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러일전쟁의 경과를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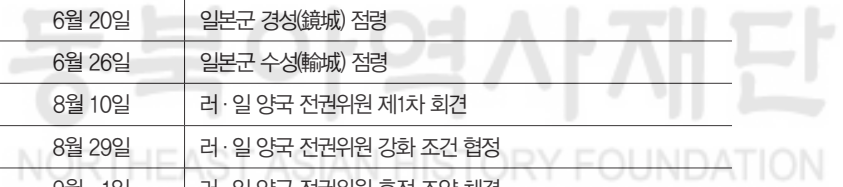
〈표 2〉 러일전쟁의 경과

연도	월 일	내용
1903	10월 30일	러일 교섭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 확정 수정안 제출
	12월 19일	러시아함대 증파
1904	2월 5일	일본과 러시아 외교 관계 결렬 통고
	2월 6일	일본 연합함대 사세보(佐世保) 항 출발
	2월 8일	우류(瓜生) 제독(提督)이 일본 함대 운송선을 호송하여 인천에서 러시아함대에 개전 제1포 발사
	2월 8일	도고 제독의 일본 함대 뤼순구 공격
	2월 9일	니콜라이 2세 대일 선전 포고
	2월 10일	일본이 공개적 선전 포고
	2월 12일	청은 중립 선언
	2월 14일	뤼순구 공격
	2월 23일	한일협약
	2월 24일~2월 25일	뤼순구 공격, 항구 폐쇄 계획
	3월 9일~3월 10일	뤼순구 공격
	3월 27일	뤼순구 공격
	4월 23일	일본 전위 부대 압록강 넘음
	4월 29일~5월 1일	압록강전
	5월 1일	일본이 구련성(九連城) 점령
	5월 3일	뤼순구 폐쇄 계획
	5월 6일	일본 제1군 봉황성 점령
	5월 12일	가다오카(片岡) 제독 일본 함대 다련만 포격
	5월 14일	일본 제2군 보란점(普蘭店) 점령
	5월 16일	일본 제2군 금주(金州) 진격
5월 19일	일본군 대고산(大孤山) 상륙	
5월 26일	금주전(金州戰), 라오둥반도 남부 직접 봉쇄 선언	
5월 27일	일본 제2군 남관령(南關嶺) 및 유수둔(柳樹屯) 점령	

4 런던,타임스所載森晋太郎 譯,時事新聞社 編(1905),『日露戰爭批評:及附錄』,時事新聞社,戰局日誌 참조; 藩茂忠 編(2000),『日俄戰爭在旅順』,遼寧師範大學出版社, 41~44쪽

1904	5월 30일	일본군 청니와(靑泥窪) 점령
	6월 7일	일본군 새마집(賽馬集) 점령
	6월 8일	일본군 수암(岫巖) 점령
	6월 14일~6월 15일	득리사전(得利寺戰)
	6월 21일	일본군 웅악성(熊岳城) 점령
	6월 27일	일본군이 라오허 평원을 통하는 분수령(分水嶺), 마천령(摩天嶺), 대령(大嶺) 함로 점령
	7월 6일	일본 제1군 감창(城廠) 점령
	7월 19일	일본 제1군 세하연(緋可沿) 점령
	7월 25일	일본군 잉커우(營口) 점령
	8월 3일	해성(海城), 우장(牛莊) 점령
	8월 8일	뤼순구 육해 연합 공격. 일본군이 대고산(大孤山), 소고산(小孤山) 탈취
	8월 16일	일본군사(日本軍使)를 뤼순구에 보내 비전투원 퇴거와 요새 항복 권고
	8월 19일~8월 24일	뤼순구 총공격
	8월 23일	동서(東西) 반룡산(盤龍山)포대 점령
	9월 4일	일본군 라오양(遼陽) 입성
	9월 19일	제2회 뤼순구 총공격
	9월 19일~9월 20일	그로바토킨포대 및 수사영(水師營), 각면보(角面堡) 점령
	10월 26일	제3회 뤼순구 총공격
	10월 31일	일본군이 이룡산(二龍山), 송수산(松樹山), 동계관산(東鷄冠山) 북(北)포대 제방 획득
	11월 26일	제4회 뤼순구 총공격
11월 30일	이백삼미돌산(二百三米突山) 점령	
12월 6일	일본군 적반산(赤坂山) 점령	
12월 18일	동계관산포대 함락	
12월 28일	이룡산(二龍山) 점령	
12월 31일	송수산(松樹山) 점령	
1905	1월 2일	뤼순구 개성(開城) 규약 조약
	1월 10일	뤼순구 포대, 보루, 함선, 병기, 기타 물품 수령

1905	1월 25일~1월 29일	일본군 흑구대(黑溝臺) 점령
	2월 23일	봉천(奉天)회전 개시
	3월 1일	일본군 신민둔(新民屯) 입성
	3월 11일	일본군 봉천 점령
	3월 13일	일본군 흥경(興京) 점령
	3월 16일	일본군 철령(鐵嶺) 점령
	3월 19일	일본군 개원(開原) 점령
	3월 21일	일본군 창도부(昌圖府) 점령
	4월 15일	일본군 통화(通化) 점령
	5월 14일	러시아 제2, 3 태평양함대와 만남
	5월 27일~5월 28일	동해해전. 러시아함대 사실상 전멸
	6월 8일	미국 루스벨트 러일 화친 권고
	6월 10일	일본 정부 루스벨트 권고 수락
	6월 13일	러시아 루스벨트 권고 수락
	6월 20일	일본군 경성(鏡城) 점령
	6월 26일	일본군 수성(輸城) 점령
	8월 10일	러·일 양국 전권위원 제1차 회견
	8월 29일	러·일 양국 전권위원 강화 조건 협정
	9월 1일	러·일 양국 전권위원 휴전 조약 체결



이상의 전쟁 경과를 지도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2 | 러일전쟁 경과도

2) 러일전쟁의 유적지

뤼순에 남아 있는 러일전쟁 관련 유적과 유물로는 전암포대(電岩炮臺), 망대포대(望臺炮臺), 동계관산보루(東鷄冠山堡壘), 이룡산보루(二龍山堡壘), 대안자산보루(大案子山堡壘), 서계관산포대(西鷄冠山炮臺), 장군석포대(將軍石炮臺), 송수산보루(松樹山堡壘), 수사영회견소 옛터(水師營會見所舊址), 백옥산탑(白玉山塔) 등이 있다.

① 동계관산보루(東鷄冠山堡壘) 유적

동계관산보루는 뤼순시 중심에서 동북쪽 방향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동계관산의 해발 높이는 119.6m이다. 청일전쟁 발발 전에 이



그림 33 | 동계관산보루 기념 비석(1913년 11월 만주전적보존회가 세움)

곳에는 토목 구조로 만들어진 청군의 포대가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청일전쟁 시기인 1894년 11월 20일~11월 21일 일본군 보병 제14연대 좌익중대가 에키호우 헤이스케(益滿邦介)의 지휘하에 동계관산포대를 공격했다. 당시 청군은 총병(總兵) 서방도(徐邦道)의 지휘하에 일본군과 치열한 반격전을 벌였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 보병 제14연대 제1대대장 소좌 하나오카 마사사다(花岡正貞)가 사살되었다. 그러나 일본군 연합함대가 청군 진영을 향해 함포 사격을 함으로써, 청군 포대는 일군에게 점령되었다.

현재의 동계관산보루 유적은 대부분 러일전쟁 때의 것이다. 청일전쟁 후 제정 러시아는 ‘환료유공(還遼有功)’의 대가로, 1898년 3월 27일에 청나라를 협박하여 ‘중국 러시아 여대 조차지 조약(中俄旅大租地條約)’을 체결하고 뤼순을 점령했다. 이때부터 제정 러시아는 뤼순 지역 주위 10km에 방어선을 구축했다. 동계관산은 러시아군의 동부 육지 방어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지였는데, 당시 동계관산보루는 흔히 ‘동계관 북산보루(東鷄冠北山堡壘)’라고 불렸다.



그림 34 | 동계관산 북보루 전쟁 유적지

동계관산 북보루는 5변형의 반지하 형식으로 수축되었는데, 면적이 9,900㎡이고, 전체 길이가 496m이며, 외곽 해자의 길이는 4,000m에 달한다. 이 보루는 쇠금속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두 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두께가 0.9m이고, 상부는 높이 2m에 달하는 모래주머니로 덮였다.

러일전쟁 때 이곳에 주둔한 동시베리아 육군 제7사 제25단 제5련은 병력 3천 명에, 대포 30문, 중기관총 4정을 배치하였다.

1904년 8월 11일 일본군의 만주군(滿洲軍) 제3군 제11사단은 동계관산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았다. 8월 19일 일본군은 러시아군의 보루에 포 사격을 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일본군은 갱도를 파서 보루에 접근하여 폭파시키는 전법을 이용했다.

12월 15일 동계관산 북보루에서 작전을 지휘하던 러시아 휘순 주둔군 육군 총사령관 겸 동시베리아 제7사 사장 칸트라친크 소장을 포함한 9명의 고



그림 35 | 동계관산 제2보루(1904년 8월 이래 제1사단 1부대의 공격으로 1905년 1월 2일에 일본이 점령)
 <그림출처> 『1904~1905年 戰績紀念寫真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그림 36 | 동계관산 북쪽 보루 폭파 장면(아오키 대좌가 지휘하는 보병 제22연대 돌격대는 동계관산 북쪽 보루에서 돌격하여 1904년 12월 18일 오후에 자살 폭탄을 감행하여 점령하였다.)
(그림출처) 『1904~1905年 戰績紀念寫真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그림 37 | 이치코(一戸)보루의 모습(1904년 8월 9사단 및 후비보병 제4여단의 공격으로 10월 이치코 여단장이 점령한 곳) (그림출처) 『1904~1905年 戰績紀念寫真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위 장교가 일본군의 포격으로 전사했다. 12월 18일 일본군은 대포 엄호하에 갱도를 이용하여 북보루에 접근하여, 2.3t의 폭탄으로 동계관산 북보루의 벽을 뚫었다.

결국 119일 간의 동계관산 북보루 쟁탈전은 일본군이 점령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이어서 이룡산포대(二龍山炮臺), 망대포대(望臺炮臺)도 함락됨으로써, 제정 러시아군의 동부 육군 방어선은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다.

1913년 11월 일본관동도독부 후쿠시마 야스마사(福島安正), 뤼순진수부(旅



그림 38 | 제정 러시아 뤼순 요새 사령관 칸트라친크가 전사한 곳에 세운 표석비(1904. 12. 15)

順鎮守府) 사령관 츠카사 사카모토 이치카(官阪本一和), 만철총재 나카무라(中村) 등의 발기로 성립된 만주전적보존회(滿洲戰跡保存會)는 일본 천황과 군국주의의 신성한 위엄을 표방하고, 일본 국민을 고무시키기 위해 러일전쟁 전장에 전적 기념비를 세웠다. '동계관산 북보루(東鷄冠山北堡壘)'란 글자와 함께 동계관산 북보루 전투 상황을 서술한 비문은 이 전투를 지휘했던 일본군 중장 사메시마 시게오(鮫島重雄)가 썼다.

1914년 겨울, 만주전적보존회는 일본 천황이 하사한 1000엔, 일본 국회에서 지불한 15만 엔 및 민간 모금 50만 엔으로 각 전장에 전적 기념비와 신사 등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전적지 유람'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전공'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해방 후 동계관산 북보루는 한때 소련군과 해당 지역 공안 기관에서 매설된 옛 폭탄을 제거하는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1986년 뤼순 지방정부는 수백만 원을 투자하여, 동계관산풍경구를 조성하고 관광객들에게 개방하였다. 1997년 4월 동계관산 북보루 서남쪽에 개설된 러일전쟁진열관(日俄戰爭陳列館)에는 귀중한 역사 사진과 자료 및 실물이 진열되었다.

그중에서 1904년에 일본의 저명한 여류시인 요사노 아키고(与謝野 晶子)가 발표한 '너는 죽지 말아다오'라는 한 편의 시가 주목된다. 그는 시에서

“너는 죽지 말아다오.
천황은 친히 전역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황은은 호탕한데
어찌 이런 뜻으로
사람들을 피 흘려 죽이는가”

라고 읊으면서 반전(反戰) 정서를 그대로 드러내었다.

현재 동계관산풍경구는 다렌시 '애국주의교육기지', 성급 '문화보호단위' 및 '국방교육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4A국가급 풍경구로 지정되어 매년 40~50만 명에 달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② '203고지' 유적

뤼순 태양구(太陽溝)에서 서북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있는 203고지(高地)의 원명은 '후석산(猴石山)' 또는 '노야산(老爺山)', '후석산(後石山)'으로 불렸다. '203고지'라는 이름은 러일전쟁 때 일본군이 관측한 해발 높이가 203m라는 숫자에 따른 것이다.

러일전쟁 때 이곳에서 가장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벌어졌다. 1904년 9월 19일 일본군은 203고지를 공격했다. 러시아군은 동시베리아보병 제15사단·



그림 39 | 이령산기념비(203고지에 세워진 포탄형의 기념비)



그림 40 | 노기 마레스케의 아들 노기 야스스케가 사망한 곳에 세워진 기념비

14사단·5사단이었고, 일본군은 제3군 제1사단과 제7사단이었다. 쌍방이 투입한 병력은 각각 1만여 명에 이르렀다.

11월 27일 일본군은 203고지의 해자(壕字)에서 150~200m 떨어진 곳까지 전호(戰壕)를 팠다. 28일 새벽 일본군은 재차 공격을 개시했지만, 러시아군의 반격으로 이틀 동안에 제3군 사령관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가 지휘하는 제1사단 사상자가 3,800명에 달했다.

쌍방은 203고지 쟁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는 매우 치열했다. 일본의 만주군 총참모장 고다마 겐다로(児玉 源太郎)는 직접 랴오양(瀋陽)에서 기차를 타고 뤼순에 와서 친히 전투를 독려하였다.

11월 30일 새벽 일본군은 여러 차례 ‘육탄’ 공격에서 많은 대가를 지불한 다음, 저녁에야 203고지의 일부를 점령했다. 노기 마레스케의 작은 아들인 노기 야스스케(乃木保典) 소위도 이날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12월 6일 일본군은 제6차 공격에서 203고지를 점령했는데, 9일 동안에 일본군의 사상자는 17,000명이었고, 러시아군 사상자도 6,000명에 달했다.



그림 41 | 203고지에 세워진 게시판(‘병기역사 물망국耻’라고 적혀 있다.)



그림 42 | 203고지진열관의 표지판

203고지를 점령한 일본군은 포병관측소를 설치하고, 뤼순항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태평양분견대를 향해 포 사격을 가하여, 며칠 사이에 러시아 태평양 분견대 함대는 모두 격침되었다.

203고지 전투는 러시아군의 실패를 가속화하였다. 1905년 1월 1일 뤼순을 수비하던 러시아군은 일본군에게 투항을 선포하였다. 그 후 일본 식민당국은 203고지 전투에서 전사한 일본군을 위해 세웠던 ‘유골기표(遺骨基標)’를 없애고, 기념탑을 세우기 시작했다. 1913년 8월 31일 높이 10.3m, 총탄 모양의 기념탑을 세웠는데, ‘이령산(爾靈山)’이란 글자는 노기 마레스케가 직접 쓴 것이다.

해방 후, 203고지는 군사 금지 구역으로 구분되었다. 문화대혁명 때 동판의 ‘이령산’이라는 세 글자는 홍위병들이 파 버리고 ‘향양산(向陽山)’으로 고쳐놓았다. 또 총탄 모양의 탑 기둥에 새긴 동판비문도 뜯겨졌으며 분실되었다.

1987년 7월 뤼순 지방정부는 30만 위안을 투자하여, 203풍경구를 조성함



그림 43 | 203고지 중턱 참호의 일본군 사상자 모습(1904년 11월 26일~1904년 12월 5일까지 밤낮으로 격전이 벌어져 일본군 사상자가 10,178명에 이르렀다.)
 <그림출처> 『1904~1905年 戰績紀念寫真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과 동시에, 제정 러시아 군대의 전호(戰壕) 및 ‘노기 야스스케가 전사한 곳’을 복원하여 관광객들에게 개방하였다. 그리고 ‘203고지진열관’을 개관하여 귀중한 사진과 자료 및 유물을 전시·보관하고 있다. 1997년 8월부터 203고지 유적은 다렌시 애국주의 교육기지가자 국방교육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③ 황금산포대(黃金山炮臺) 및 전암포대(電岩炮臺) 유적

뤼순항의 동쪽에 위치한 황금산은 해발 119.1m인데, 이곳에 있는 황금산 포대는 청나라 말기 뤼순 해안에 설치한 포대 중 규모가 제일 크다. 1879년 청 정부는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의 상소에 따라 뤼순 해안 방어선 건설을 결정하고, 주성전(周盛傳)을 파견하여 감독하게 했다.

이듬해 북양해군은 종래의 수사영(水師營)을 대체함과 동시에, 군항과 독을

건설했다. 1883년 황금산의 첫 포대가 준공되었다. 청일전쟁 이전 황금산포대에 독일에서 구입한 각종 대포 17문을 배치했다. 이는 뤼순 해안 방어선에 서 제일 큰 규모의 포대로 백은(白銀) 18만 6천 냡을 썼다고 한다.

청일전쟁 시기인 1894년 11월 21일 새벽 일본군이 의자산보루(椅子山堡壘)를 공격해 왔을 때, 황금산포대가 위력을 발휘했다. 황금산포대



그림 44 | 전암포대 표지석



그림 45 | 전암포대 전경

의 대포는 360° 전방위에서 일본군 육·해군에 반격을 가함으로써, 일본군의 진공을 여러 차례 효과적으로 방어하였다.

그러나 치열한 공방전에서 포대수군총병(砲臺守軍總兵) 황사림(黃仕林)이 도주했고, 고립무원에 빠진 황금산포대는 일본군에게 점령되었으며, 황금산포대의 무기들은 대부분 일본군의 전리품으로 빼앗겼다.



그림 46 | 전암포대에 설치된 대포



그림 47 | 1988년 12월 랴오닝성 문화보호단위로 지정된 전암포대



그림 48 | 1988년 12월 성급 문화보호단위 표지석

청일전쟁 이후 뤼순을 점령한 제정 러시아는 1899년부터 황금산포대를 확대 수축했는데, 러일전쟁이 발발할 즈음에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다. 이때 황금산포대에는 대포 8문, 탄약고 3개 및 포대와 연결된 병영숙사 7칸이 있었으며, 포대 공사의 총길이는 128m에 달했다.

그리고 황금산포대의 서남쪽에 있는 전암포대는 황금산포대를 수축할 때 함께 만든 것인데, 당시에는 '전계포대(田鷄炮臺)'라고 불렀다. 뤼순을 점령한 러시아는 1900년에 이 포대를 확충하여, 길이 200m, 넓이 50m에 달하는 포대에 구경이 254mm인 화포 5문과 57mm인 화포 1문 및 탐조등 2대를 설치했다. 이때부터 '전암포대'라고 불렀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한 후, 황금산포대와 전암포대는 러시아 군대의 중요한 전략적 진지였다. 2월~5월까지 일본군은 러시아 태평양분견대를 뤼순 항구에서 침몰시키기 위해, 17척의 함선을 동원하여 세 차례의 이른바 '뤼순구 폐쇄 행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황금산포대와 전암포대는 큰 위력을 발휘함으로써, 일본군 함선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해전에서 실패하고 뤼순의 전체 방어선이 무너짐에 따라, 이 두 포대도 일본군의 손에 들어갔고 모든 화포도 전리품으로 약탈되었다.

현재 황금산포대에는 참혹한 전쟁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예컨대, 러시아군이 수축한 포터, 탄약고 및 병영숙사 등의 시설이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되고 있지만, 아직도 개방되지 않은 군사 금지 구역에 속한다.

그리고 전암포대는 1945년 8월 뤼순에 진주한 소련군에게 접수되었는데, 1955년 소련군이 철수한 뒤에는 중국 정부에서 관리하였다. 그러나 전암포대의 대포는 러일전쟁 후 일본군이 약탈하였던 것이다.

현재 전암포대에 있는 구경 130mm인 대포 3문은 모두 1940년대 구소련에서 생산한 것이다. 하지만 전암포대는 여전히 두 차례의 전쟁 기억을 더듬게 하는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



그림 49 | 반룡산(盤龍山) 북포루(1904년 10월 16일 제9사단의 공격으로 일본이 점령한 곳)
(그림출처) 『1904~1905年 戰績紀念寫真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그림 50 | 반룡산(盤龍山) 동포루(1904년 제9사단 및 후비보병 제4여단의 공격으로 일본이 점령)

〈그림출처〉『1904~1905年 戰蹟紀念寫真帖』滿洲戰蹟保存會, 1921.



그림 51 | 이룡산(二龍山)보루 뒷부분 목구멍 부분
 (그림출처) 『1904~1905年 戰績紀念寫眞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그림 52 | 이룡산보루(1904년 10월 제9사
 단의 공격으로 일본이 점령)
 (그림출처) 『1904~1905年 戰績紀念寫眞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그림 53 | 송수산(松樹山)보루(1904년 10월 제1사단의 공격으로 12월 31일 일본이 점령)
 <그림출처> 『1904~1905年 戰績紀念寫真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그림 54 | 송수산 제4포대(1904년 11월 26일 나가무라 여단장 특별지대가 공격하여 점령)
 <그림출처> 『1904~1905年 戰績紀念寫真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그림 55 | 용안(龍眼) 북방 보루(일명 그로바토킨보루) 외곽 침호 모습(이 보루는 수원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각면보(角面堡)인데 그로바토킨 대장의 휘순 순시 후에 시작된 방첩 계획에 더해진 것)
 <그림출처> 『1904~1905年 戰績紀念寫真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그림 56 | 용안 북방 보루(1904년 8월 제9사단의 공격으로 9월 20일에 점령)
 <그림출처> 『1904~1905年 戰績紀念寫真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④ 망대포대(望臺炮臺)



그림 57 | 망대포대 비석(민주전적보존회, 1915. 10.)

뤼순항의 동북쪽에 위치한 망대포대는 동계관산 북보루에서 서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해발 높이는 182m이다. 동남쪽은 동계관산 주봉이고, 북쪽은 반룡산(盤龍山) 동서 보루이며, 서쪽은 이룡산(二龍山)보루와 송수산(松樹山)보루다.

현재 망대포대에는 러일전쟁의 유물인 두 문의 대포가 남아 있다. 이 대포는 1899년 제정 러시아의 페트로그라드 병기공장에서 주조한 구경 150mm의 함대용 대포다.

1904년 8월 10일 뤼순항에 정박한 러시아 태평양분견대의 함선

9척은 일본군의 봉쇄를 돌파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하여 러시아 사령부는 함선 위에 있는 284문의 대포를 뜯어 육상에 있는 각 보루에서 사용토록 결정했다. 망대포대의 두 문의 대포는 중국인 농민 2천여 명을 동원하여 옮겼다. 당시 러시아는 이 포대를 ‘대응소(大鷹巢)’라고 불렀다.

1904년 8월 24일부터 일본군은 4개 연대의 병력으로 망대포대를 공격했다. 몇 차례 공방전에서 일본군은 망대포대를 점령하지 못했다. 10월 4일 일본군의 우회 공격으로 한때 점령되었지만, 러시아군이 반격하여 수복했다.

1905년 1월 1일 이치코(一戶) 소장(少將)이 이끄는 보병 제7연대, 보병 제35연대 및 마에다(前田) 소장(少將)이 이끄는 보병 제43연대가 돌격을 감행하여 망

대포대가 끝내 일본군에 점령되었다. 망대포대의 함락은 러일전쟁에서 뤼순 요새 쟁탈전이 끝났음을 의미하였다. 러일전쟁이 끝난 뒤 일본 식민당국은 망대포대에 있는 두 문의 대포를 의도적으로 보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1909년 10월에는 만주전적보존회의 이름으로 '망대포대'란 글자를 새긴 화강암 기념비를 세웠다. 그때부터 망대포대는 '뤼순전적지유람코스'의 중요한 사적지 중의 하나가 되었다.

1980년대 개혁 개방 이후, 뤼순 지방정부는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망대포대' 전쟁 유적지를 보존함과 동시에, 포대 서남쪽에 183층 계단을 만들고 대내



그림 58 | 망대포대의 두 문의 군함포(러일전쟁 때 러시아군이 설치)



그림 59 | 망대포대(1905년 1월 1일, 일본이 점령)
 <그림출처> 『1904~1905年 戰績紀念寫真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그림 60 | 도보 포병 제1연대 제1중대 진지
 <그림출처> 『1904~1905年 戰績紀念寫眞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그림 61 | 공성산(攻城山)(1904년 8월 포병의 주력으로 공격하였다.
 좌측에 작은 돌표지석은 전역 당시 포병사령관이 건립한 기념비)
 <그림출처> 『1904~1905年 戰績紀念寫眞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외에 개방하였다. 현재 두 문의 포신에 다양한 언어와 문자로 새겨진 많은 ‘유언(留言)’들은 전쟁을 혐오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박한 마음과 진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수사영회견소 옛터(水師營會見所舊址)

수사영은 뤼순에서 북쪽으로 4km 떨어진 용하(龍河)의 오른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러일전쟁 때 러시아 군대가 투항 문서를 조인한 곳이다. 원래 이곳은 청나라 수군의 주둔지였다. 청나라 말기 수사영이 철수한 뒤 점차 주민 구역으로 변하였는데, 러일전쟁 때 심하게 파괴되었으나, 서북가(西北街) 29호의 주택 한 곳만이 완전하게 보존되었다. 일본군이 뤼순을 총공격할 때, 이 주택이 일본군 제3군 제1사단의 위생소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62 | 수사영회견소 비석(만주전 적보존회, 191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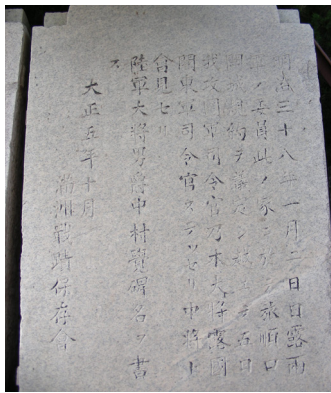


그림 63 | 수사영회견소 비석의 비문



그림 64 | 수사영회견소 옛터의 표시판(뤼순구 수사영가에 위치)

1905년 1월 1일 제정 러시아 뤼순 주둔군사령관 스토셋리는 레이스를 파견하여 일본군(만주군) 제3군 사령관 노기 마레스케에게 투항서를 전달했다. 그 이튿날 쌍방의 대표는 투항 문제에 대한 담판을 통해, 쌍방의 최고 장교가 수사영에서 만나기로 결정했다.



그림 65 | 수사영회견소의 '봉대소지적' 비석(민주전적보존회, 1929. 11)

1월 5일 노기 마레스케와 스토셋리는 수사영에서 투항 문서, 즉 '뤼순 개성 규약(旅順開城規約)'을 체결함으로써 뤼순 요새 쟁탈전은 막을 내렸다. 그리하여 뤼순 요새는 일본군에게 넘어갔고, 러시아 장교 878명과 병사 23,491명이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다.

당시 쌍방이 회견할 때, 스토셋리가 노기 마레스케에게

선물로 준 백마를 매어 놓았던 대추나무는 러일전쟁 후 관동군이 그 주택을 매입함에 따라, 일본군의 '전적(戰績)'을 선전하는 기념물이 되었다. 일본관동군은 주택 울타리 안에 '수사영회견소'라는 글자를 새긴 돌비석을 세웠다.

일본이 뤼순을 통치하는 40년 동안, 수사영회견소는 전적지로 분류되었다. 일본 군국주의의 '영광'과 제정 러시아의 '치욕'으로 부각되던 이곳은 이제 러일전쟁의 유적지로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어 무언의 교훈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66 | 노기 대장과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대장의 회합 장면(1904년 12월 20일 유수방(柳樹房)에서 도고 헤이하치로 대장이 노기 대장의 방문을 받고 그 막료와 함께 촬영한 것이다.)
 <그림출처> 『1904~1905年 戰績紀念寫真帖』滿洲戰績保存會, 1921.



그림 67 | 투항하기 위해 수사영회견소에 도착하는 코사크 기병의 모습
 <그림출처> 『1904~1905年 戰績紀念寫真帖』滿洲戰績保存會, 1921.



그림 68 | 수사영회견소(1905년 1월 2일 러·일 양군 위원이 뤼순구 개성 규약을 의정하고 일본의 노기 대장과 러시아 관동군사령관 스토셋리 중장이 회견한 곳)
 (그림출처) 『1904~1905年 戰績紀念寫眞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그림 69 | 스토셋리 중장이 수사영회견소에 오는 장면(관동군사령관 스토셋리 중장은 개성 규약을 조인한 후 노기 사령관을 회견하였다.)
 (그림출처) 『1904~1905年 戰績紀念寫眞帖』, 滿洲戰績保存會, 1921.

⑥ 소련군열사능원(蘇聯軍烈士陵園)과 제정 러시아 공동묘지

뤼순 수사영진(水師營鎮) 삼리교(三里橋) 서쪽에 위치한 소련군열사능원(蘇聯軍烈士陵園)은 1945년 8월 22일 소련 공산당이 뤼순에 주둔한 후 이곳에 있던 제정 러시아 공동묘지를 확대하여 만든 것인데, 4만 8천㎡에 달한다. 현재 중국에서 제일 큰 외국인 열사능원인 이곳에는 러일전쟁의 기억과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1897년 12월 24일 제정 러시아는 '삼국간섭(三國干涉)'을 통한 랴오둥반도 반환의 '구세주'를 자처하면서, 이른바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뤼순을 점령했다. 러시아는 식민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포대·보루 및 전호를 수축함과 동시에, 뤼순구(旅順口) 사구(寺溝) 삼리교(三里橋)의 황폐한 땅을 공동묘지로 조성하였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이곳을 원동 지역에서 '황색 러시아 강토의 첫 공동묘지'라고 불렀다. 현재도 공동묘지의 비문을 통해, 러일전쟁 때 전사한 러시아 장교와 병사 및 그 가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05년 4월 17일, 일본과 러시아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했다. 이때부터 일본은 랴오둥반도에서 식민통치를 확립했다. 1906년



그림 70 | 소련군열사기념비(소련군열사능원 내, 1955. 5. 24)

8월 7일 러·일 양국은 전후 처리를 위해 ‘장졸유해위원회(將卒遺骸委員會)’를 결성하였다.

쌍방의 협의에 따라, 전승국인 일본이 2년이란 시간을 거쳐 동일한 전장 혹은 인근의 전장 및 뤼순 쟁탈전에서 전사한 러시아 군인 1만 4,873구의 유해를 공동묘지에 안장했다. 동계관산 북보루, 반룡산 서보루의 러시아군 322구와 203고지, 의자산보루의 6,550구 유해가 합장되었다. 당시 일본 식민당국은 묘지 앞에 ‘러시아 병사의 무덤(露兵之墓)’이라는 돌비석을 세웠다.

1907년 10월 일본 식민당국은 러시아 공동묘지 안에 뤼순 쟁탈전에서 전사한 러시아 사병을 위해 유럽 건축 양식으로 ‘뤼순에서 사망한 러시아 병사의 비석(旅順陣歿露兵將卒之碑)’을 세웠다. 화강암으로 쌓은 비석의 정면에는, 러시아어로 “이곳은 아얼뚜항(뤼순항을 말함-필자) 전투에서 전사한 러시아 사병의 유해”라는 글자가 쓰였고, 우측에는 “메이지 40년 10월 10일 대일본 정부 건립”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 비석을 세울 때, 일본 식민당국은 성대한 제막 의식을 거행했다. 이 제막식에는 당시 러일전쟁의 ‘영웅’으로 추앙되었던 노기 마레스케와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가 이른바 ‘인도’와 ‘인자’를 표방하면서 일본 정부 대표로 출

석했다.

동시에 일본 식민당국은 러시아 정부로 하여금 묘지 중심에 ‘러일전쟁기념비(日俄戰爭紀念碑)’를 세우는 것을 허락했다. 화강석으로 쌓은 기념비의 높이는 6m이고, 꼭대기에 동정교 표식이 있다. 비문에는 러시아어로 “제정 러



그림 71 | 성급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된 소련군열사능원 (1988. 12)

시아 황제와 조국과 신앙을 위해 용감하게 헌신한 뤼순구 보위자(保衛者)는 영생불멸”이라고 쓰여 있다. 기념비 뒷면에는 뤼순 쟁탈전에 참가한 러시아군 각 부대의 명세표가 새겨져 있다.

이러한 전쟁 유적과 기념 시설물은 지난 날 일본과 제정 러시아 두 제국주의 간에 서로 대립하면서도 또한 서로 결탁하여 중국 영토를 분할하려던 침략적 야망과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입증한다.

1945년 8월 22일 만주에 진출한 소련 공산당이 뤼순을 점령했다. 이때부터 이 공동묘지에는 만주 전장에서 전사한 일부 소련 공산당 사병들이 안장되었다. 해방 후 뤼순 지방정부는 중·소 양국의 우호 관계를 고려하여 이 공동묘지를 ‘소련군열사능원(蘇聯軍烈士陵園)’으로 개칭했다. 1955년 5월 중·

소 양국 정부의 협의에 따라, 12만에 달하는 소련군이 뤼순에서 철수할 때 여대시(旅大市, 다롄시의 옛 명칭) 정부는 ‘소련군열사능원’ 중앙에 ‘소련군열사기념비(蘇聯軍烈士紀念碑)’를 세웠다. 그러나 소련군이 철수한 뒤에는 계속 폐쇄되었다.

1992년 소련군열사능원은 정식으로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었다. 이곳이 비교적 늦게 개방된 원인은 ‘한국전쟁(항미원조전쟁, 抗美援朝戰爭)’에 참전했다가 희생된 소련 공군 비행사들이 묻혀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소련군 비행사들의 묘비는 202개에 달한다.



그림 72 | 뤼순시 평화광장의 소련군기념탑



그림 73 | 소련군열사능원 내의 묘지

1999년 4월 다렌시 인민광장에 있던 ‘소련군기념탑’이 소련군열사능원 앞에 있는 평화광장(平和廣場)으로 옮겨졌다. 이 기념탑들은 중·소 두 나라 국민들의 우의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때 뤼순이 겪은 풍운의 역사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러일전쟁기념비와 소련군열사기념비 및 소련군기념탑 등 전쟁 기념 시설에 대한 역사적 기억과 해석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역사적 기억과 해석에는 다양한 시대정신과 정치 이념 및 이데올로기 시각차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곳은 러시아 국가 원수들이 찾는 명소로서 2001년 6월 4일 보리스 옐친(Boris Nikolaevich Yeltsin)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다녀갔고, 2010년 9월 26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Anatolyevich Medvedev)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소련군열사능원에 화환을 증정하였다.



소련군열사능원 난제⁵⁾

러일전쟁 이래 러시아 및 소련 병사들의 공동묘지로 역할을 했던 소련군열사능원은 오랜 시간과 역사 자료의 부족으로 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 다음과 같은 난제가 전해 오고 있다.

첫째, 제정 러시아 공동묘지 남측에 있는 여러 무덤 위에는 흰색의 거위 알 같은 돌로 십자가 문양을 덮었는데 묘비는 없다. 이곳에 매장된 것은 러일전쟁 시기 사망한 러시아군 전마(戰馬)나 군견으로 보기도 한다.

둘째, 일본이 세운 12기 ‘러시아 병사의 묘’에 숫자만큼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유해설과 골회설이 있다.

셋째, 제정 러시아 공동묘지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의 문자 묘비가 있는데 묘지 주인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신분인지 불분명하다.

넷째, 러시아 공동묘지 서쪽 담장에 8개 묘비 비문은 히브리어인데 이들은 뤼순에 온 유대인인가?

다섯째, 능원 남부에 466개의 아동 묘지가 있는데, 8~9세에서 몇 개월된 아동의 무덤도 있다. 1952년에서 1955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전염병으로 인한 것인가?

여섯째, ‘애인 무덤’의 2개 묘비와 1세의 아웨이시아의 묘비는 능원 내에 있는 3개의 서향 묘비인데 왜 서향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

일곱째, 전설에 ‘뤼순에서 사망한 러시아 장졸의 비(旅順陳歿露兵將卒之碑)’에 러시아군 골회합과 순장 보석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

여덟째, 능원 동편에 1개의 홍군 가족 묘비가 있는데 생존 연대 표시가 1828

5) 潘研, 王維 編(2004), 『旅順景觀史話: 蘇軍烈士陵園』, 大連出版社, 23~24쪽

~1946년으로 되어 있는데 오기인가 사실인가? 118세의 고령 노인이 이곳에 묻혀 있다는 것인가?

아홉째, ‘애인 무덤’의 남주인공인 빠오리쓰 와시리예푸는 패전국의 소장 출신인데 어떻게 패전 후 30년간 뤼순에 살 수 있었는가?

열째, 능원의 작은 교회당 붉은 벽돌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돌아가셨다.”고 러시아어로 적혀 있다. 이 할아버지는 신부인가?



4. 한국사 관련 유적지

1) 안중근 의거 및 한인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뤼순)

뤼순에는 한국 애국지사 안중근이 재판을 받았던 일본관동법원 옛터(日本關東法院舊址), 그리고 안중근·신채호·이회영 등 한국 독립지사들이 순직한 뤼순 일본러시아감옥 옛터(旅順日俄監獄舊址) 등의 유적이 있다. 2008년에는 하얼빈



그림 74 | 일본관동법원 옛터

시내에 있는 조선민족예술관 내에, 안중근전시실과 조선족생활전시실 공간을 마련하였다.

① **뤼순 일본관동지방법원 옛터 진열관**(日本關東地方法院舊址陳列館)

뤼순 감옥에 수감 중이던 안중근은 우덕순·조도선·유동하와 함께, 1910년 2월 7일~2월 14일 사이에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6차례의 공판을 받았다. 법정이 협소하여, 관동도독부 고등법원의 대법정을 빌려 공판을 진행하였다.

안중근은 법정 진술에서 의거의 정당성과 재판의 부당함, 그리고 동양 평화 사상에 대해 역설하여, 언론으로부터 '세기적 재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만주일일신문'은 속기 형태로 공판 과정을 게재하였다.

현재 한국 뤼순순국선열기념재단에서 이 건물을 구입해 이전의 건물 형태로 법정을 복원하여, 2004년 '뤼순 일본관동법원 옛터 진열관'으로 개관하였다.



그림 75 | 당시 공판 광경



그림 76 | 공판이 열렸던 법정 모습

② 뤼순 일본러시아감옥 옛터 박물관(日俄監獄舊址博物館)

뤼순 일본러시아감옥 옛터 박물관은 러시아가 건축하다가 완공하지 못하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다렌 지역을 점령한 일본이 증축하여, 서울의 서대문형무소와 비슷한 규모의 감옥으로 만들었다.

일제 식민통치 시기 중국·한국·일본·소련 국적의 항일지사를 비롯하



그림 77 | 뤼순 일본러시아감옥 옛터 박물관

여 각종 민사 범죄자들이 수감되었는데, 한국인이 제일 많이 수용되었을 때는 300명에 이르렀다.

1909년 11월 3일 안중근(安重根)은 하얼빈으로부터 이감되어, 1910년 3월 26일 순국하기까지 옥중 생활을 하였다. 이곳에서 안중근은 「안응칠역사」, 「한국인 안응칠 소회」, 「동양평화론」(미완성) 등을 집필하였고, 또 200여 폭의 유묵을 남겼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은 감옥교형실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신채호(申采浩)는 1928년 타이완 기륭항(基隆港)에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뤼순 감옥에 투옥되었다. 1930년 5월 다렌 법정에서 '유가 증권 위조 및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10년형을 언도받고 복역 중, 1936년 2월 21일 뇌일혈로 옥사하였다. 신채호는 옥중에서 「조선상고사」 등을 집필하였다.

이회영(李會榮)은 1932년에 상하이로부터 다렌으로 이동 중 일본수상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이회영은 장기간 다렌 일본수상경찰서 지하에서 고문을 받다가 자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체포된 다음에 뤼순 감옥에 수감되어 고문을 받고, 재판도 없이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는 유가족들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림 78 | 뤼순 감옥의 뒷모습, 회색 건물(제정 러시아)과 적색 건물(일제 시기)은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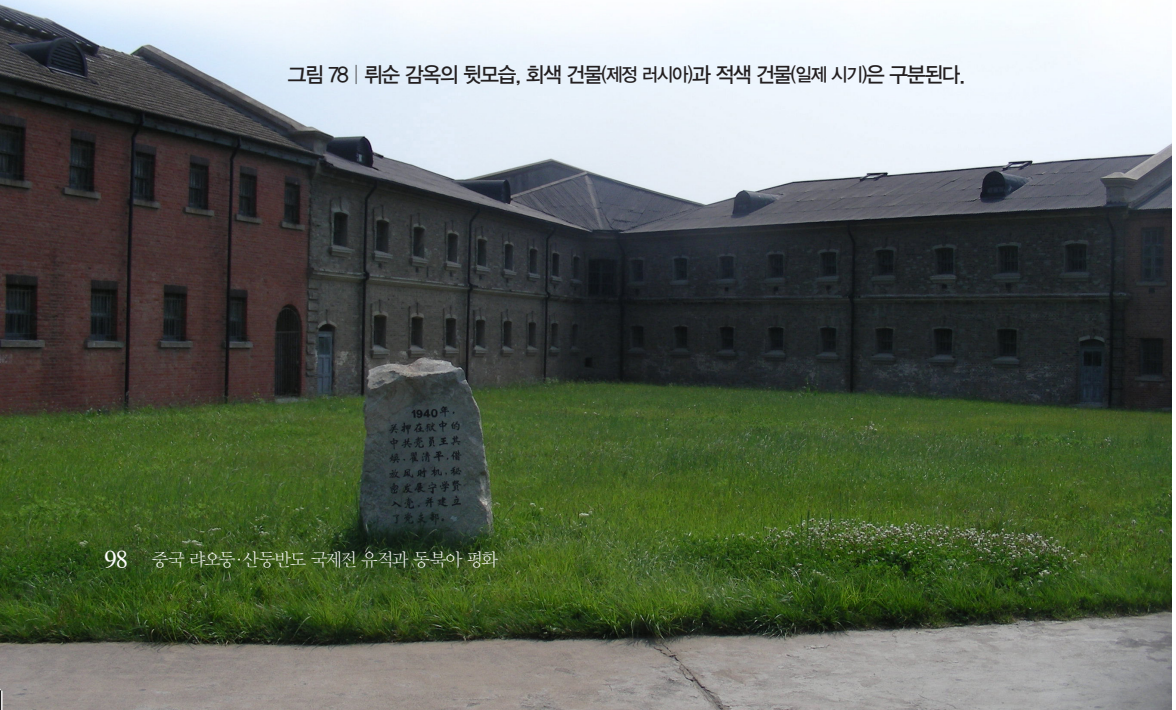




그림 79 | 뤼순 감옥 내부



그림 80 | 국가 중점文物保护单位로 지정된 뤼순 감옥 유적(1988. 1)

1932년 김구는 최흥식(崔興湜)과 유상근(柳相根)을 다롄에 파견하여, 국제연맹조사단 환영식을 이용하여 관동군과 관동도독부의 고관을 암살하려 하였다. 하지만 비밀이 누설되어 최흥식과 유상근은 체포되었고 다롄 지방법원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뤼순 감옥에서 복역 중 광복되기 바로 전날 비밀리에 처형되었다.

현재 뤼순 감옥에는 뤼순 일본러시아감옥 옛터 박물관과 다롄대학 한국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뤼순의 국제지사(國際志士)'란 전시관에 안중근·신채호·이회영·최흥식·유상근 등 한국 항일지사들의 일대기가 전시되어 있다. 안중근의 순국 장소가 복원되었고, 추모 공간도 마련되었다. 안중근이 수감되었던 감방도 복원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고증된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뤼순 감옥과 한국 독립운동가

- ◆ 1909년 11월 3일, 안중근 뤼순 감옥으로 이감
- ◆ 1910년 말, 수감자 326명, 사형수 9명(한국인 1명, 즉 안중근)
- ◆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뤼순 감옥 교수형
- ◆ 1930년 4월, 신채호 10년형을 언도받고 뤼순 감옥 수감
- ◆ 1932년, 이회영 뤼순 감옥 투옥 및 교수형
- ◆ 1932년, 유상근·최홍식 무기 징역으로 수감
- ◆ 1936년 2월 21일, 신채호 옥사
- ◆ 1936년 10월, 수감자 1,238명(한국인 227명, 일본인 462명, 중국인 546명, 기타 국가 3명)
- ◆ 1936년 12월 말, 수감인 1,053명(한국인 216명, 일본인 447명, 중국인 390명)
- ◆ 1944년 12월 말, 수감인 한국인 80여 명, 일본인 300여 명, 중국인 1천여 명
- ◆ 1945년 8월, 한국인 300여 명, 일본인 700여 명, 중국인 1천여 명
- ◆ 1945년 8월 14일, 유상근·최홍식 처형



그림 8 | 감옥 내 형구

뤼순 감옥 연혁⁶

1898년 3월 러시아가 여대(旅大) 조차를 강행하고 뤼순구를 침략의 기지로 삼으면서 뤼순 지역에 식민통치 지휘부인 관동주총독부 및 여러 식민통치 기구를 설치하였다.

1900년 의화단 운동이 폭발한 후 러시아는 뤼순을 기지로 8개국 연합군에 참가하여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였다. 동시에 뤼순과 흑룡강 등지에 파병하여 철도 보호를 명목으로 동북 지역에 들어가 많은 백성을 잡아들여 감옥이 협소하게 되었다. 러시아 관동주총독부는 황제의 비준을 얻어 1902년 뤼순 지역에 대형 감옥을 건설하였다.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로 뤼순 감옥 건설이 중지되었으나 전루(前樓)와 85칸 감옥을 건설하였다. 전쟁 시에는 러시아군이 야전 의원과 마대(馬隊) 병영으로 활용하였다.

1907년 러일전쟁 후 이 지역을 장악한 일본은 러시아가 건설했던 원래 감옥의 기초 위에 확대 건설하여 감옥이 253칸으로 증대되었고, 암실 4칸, 병실도 18칸이 있었다. 감옥 명칭도 '관동도독부감옥서'로 불렸다.

1920년 명칭을 개칭하여 '관동청감옥'이라고 하였다.

1926년에는 '관동청형무소'로 변경하였다.

1934년에는 '관동형무소'로 변경하였다. 이해에 감옥 동북각을 수리하여 2층의 건물을 지어 비밀리에 살해하는 장소로 '교형실(絞刑室)'을 건립하였다.

1939년에는 '뤼순형무소'로 개명하였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으로 뤼순 감옥은 해체되었다.

6 周祥令 編(1996), 『旅順日俄監獄舊址』, 大連出版社, 2~6쪽



그림 82 | 안중근이 수감되었던 감방 앞에 전시된 게시판

안중근이 수감되었던 감방 앞에 전시된 게시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 애국지사 안중근을 구금했던 감방

안중근(1879~1910)은 조선 황해도 해주부 사람이다. 1907년 조선 의병 운동에 가담하여 참모총장을 역임하였으며 1909년 ‘대한독립동맹’ 조직에 참여하였다. 동년 10월 26일 그는 중국의 하얼빈역에서 일본 제국주의 중심인물로 조선 초대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하였다. 체포된 후 11월 3일 뤼순 감옥으로 압송되었으며 일본의 ‘국사범’으로 분류되어 간수부장 당직실 옆에 있는 이 감방에 단독으로 구금되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안중근은 감옥 교수형장에서 순국하였으며 그때 나이 32세였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그림 83 | 안중근이 수감되었던 감방 전경



그림 84 | 감옥묘지 전경

绞刑室

1934年监狱增设了这座秘密杀人场。判处死刑的被关押者，被带到这里执行绞刑。从设立绞刑室到监狱解体，这里究竟杀害了多少抗日志士已无法计算，仅1942年到1945年8月，就有700多人被绞杀。1945年8月16日，在日本宣布投降的第2天，穷凶极恶的殖民统治者惨无人道地将共产党员刘逢川、何汉清及其他4名抗日志士杀害。

The gallows room

It was built in 1934. The detainees were sent here. It was unable to calculate the number of the anti-Japanese compatriots, only from 1942 to August 1945, there were more than 700. Only two days after the Japanese's surrender, that was, on August 16, 1945, the communist Party members Liu Fengchuan, He Hanqing and other four members sacrificed here.

그림 85 | 교형실 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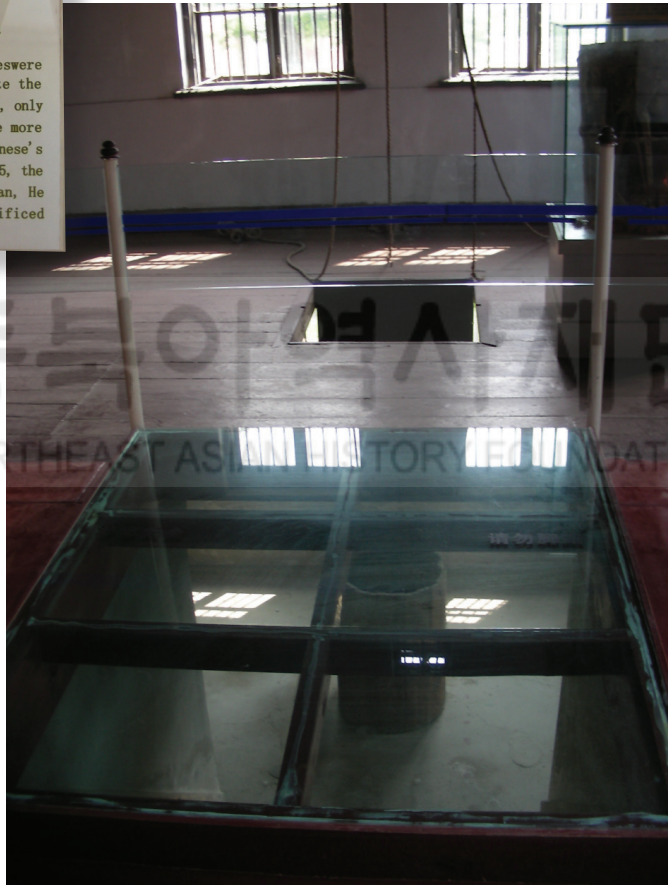


그림 86 | 교형실 전경(위에서 목을 매면 아래로 놓인 통 속으로 들어가게 설계되어 있다.)

참고자료

뤼순 대화여관(大和旅館)



그림 87 | 뤼순 대화여관의 옛 건물 모습



그림 88 | 뤼순 대화여관의 현재 건물 모습

다렌 뤼순구 문화로(文化路) 30호에 위치하고 있다. 대화여관은 만주사변 이후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溥儀)가 일본관동군의 비밀 회칙에 따라 이곳에서 105일간 체류하면서 이른바 '신국가', 즉 만주국의 산파 노릇을 했던 곳이다.



그림 89 | 뤼순 대화여관 옛 건물(현재 시금 문물보호단위)

1903년에 건축된 이 건물은 러시아식으로 된 2층 건물로 부지 면적은 4,300㎡, 건축 면적은 1,100㎡에 달했다. 당시 제정 러시아에 입적한 중국인 부호 기봉대(紀鳳臺)의 사택이었는데, 아래층은 상점으로 사용하였다. 1906년 러일전쟁에서 승전한 일본은 이 건물을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서 경영하는 '대화여관'으로 고쳤다. 1927년에는 일본의 유명한 여성 스파이인 금벽휘(金碧輝, 가와시마 요시코)가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1931년 11월 18일 푸이는 일본군의 계획에 따라 잉커우(營口)로부터 뤼순으로 끌려와 대화여관 2층에서 약 3개월간 체류하였는데, 이곳은 일본관동군이 만주국의 신국가 창출을 위해 음모 활동을 획책하던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1932년 1월 28일 일본관동군 참모 이다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와 정효서(鄭孝胥)는 이곳에서 만주국의 정체(政體)에 대해 타협을 보았고, 2월 23일 오후에 이다가키 세이시로는 관동군사령관 혼쵸 시게루(本庄繁)의 명령에 따라 푸이와 '신국가' 건립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여, 신국가의 명칭은 '만주국'으로 하고, 수도를 장춘(長春)으로 하



그림 90 | 뤼순 대화여관의 건물 내부

되 그 이름을 '신경(新京)'으로 고치며, 신국가의 원수 명칭을 '집정(執政)'으로 확정했다. 1932년 3월 6일 푸이는 뤼순을 떠나 8일에 신경에 도착하여 그 이튿날 만주국의 집정에 취임했다.

1945년 8월 일본이 투항하고 뤼순에 주둔한 소련 홍군은 이곳에 경비 기관을 설치하였고, 1955년 중국인민해방군이 접수하였다. 1977년 보수 건설에 의해 비록 외부 구조가 심하게 훼손되었지만, 내부 시설은 옛날의 화려한 빛을 잃지 않고 있다. 현재 다롄시 '애국주의교육기지',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어 있다.



2) 한국전쟁 관련 유적지(단둥)

① 항미원조열사능원(抗美援朝烈士陵園)

단둥시 금강산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단둥시 항미원조열사능원'은 1951년 5월 1일 당시 중국인민지원군 제50군이 세웠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중국인민지원군을 안장한 곳이다.

단둥시(이전의 안둥시(安東市))에서 가장 먼저 건설된 '항미원조전쟁'에서 전사한 중국인민지원군의 묘소다. 중국인민지원군이 가장 먼저 세운 능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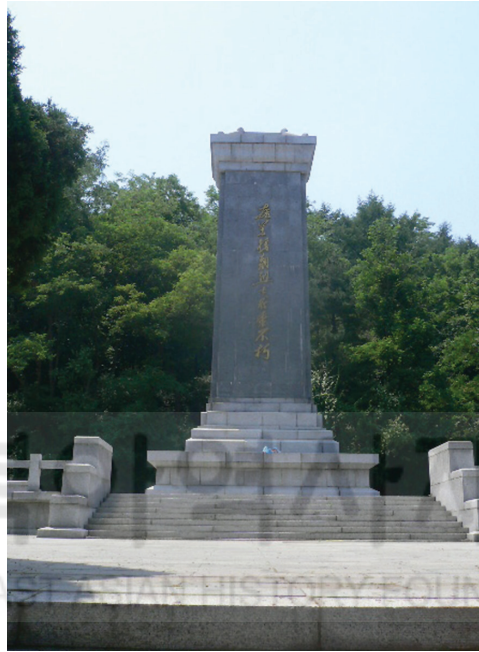


그림 91 | 단둥 항미원조열사능에 세워진 기념비(1971. 10.)

능원 내에는 두 개의 기념 건축물이 있다. 하나는 1971년 단둥시에 주둔하던 군부에서 건축한 '항미원조열사기념비(抗美援朝烈士紀念碑)'이고, 다른 하나는 1951년 중국인민지원군 제50군에서 건축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기념탑(中國人民支援軍烈士紀念塔)'이다. 현재 능원 안에는 열사사적전람실(烈士事蹟展覽室)이 있는데, 면적은 280평이고, 18명 '열사'의 사적을 전시하고 있다.

1971년 10월 25일 새롭게 확장된 능원의 정면에서 화강암 계단을 따라 올

라가면, 양측이 푸른 소나무로 우거진 숲 속에 12m 높이의 기념탑이 솟아 있고, 그 위에는 ‘항미원조열사 영생불멸(抗美援朝烈士永生不滅)’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기념탑 앞뒤에는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264명의 묘지가 있으며, 그중에는 ‘인민영웅’, ‘전투영웅’, ‘특등공신’의 칭호를 받은 이가 13명이고, 사단(師團)급 이상의 간부가 8명이다.



그림 92 | 1951년 중국인민지원군 제50군이 단동에서 항일열사능원을 조성할 때 세워놓은 기념비

단동은 한국전쟁 때 중국인민지원군의 최전선 후방으로서 많은 전사 군인이 이곳에 안장되었다. 현재 단동시 관할 구역 안에는 ‘열사능원’이 여러 곳에 있는데, 오룡배, 화원구, 하마탕, 철도구, 사도구, 낭두진, 봉황대보 등에 ‘열사능원’이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곳에 소형의 ‘열사능원’과 묘지가 있다. 이 중에서 대보구 항미원조열사능원의 규모가 제일 크다. 단동시 민정국의 통계에 따르면, 분산적으로 안장되어 있는 지원군 전사자 중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진흥구 612명, 원보구 622명, 진안구 235명이다. 그리고 선양의 항미원조능원에 123명, 호북성 적벽시(赤壁市)의 항미원조열사묘지에도 124명이 안장되어 있다.

원보구 항미원조열사능원은 1952년 6월에 시공했고, 능원 내에는 한국전



그림 93 | 푸른 숲 속에 즐지어 서 있는 묘비

전쟁 때 부상을 입고 중국인민지원군 충후병원에 호송되었다가 사망한 688명이 안장되어 있다. 한국전쟁 초기 ‘용맹하게 싸운’ 군인들과 사단급 이상의 간부들이 안장되었고, 부상당한 군인들이 귀국하여 치료하다가 사망하여 이곳에 안장된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중국 내에서 한국전쟁 참전 중국군 전사자를 집중적으로 안장하고 있는 곳은 선양의 향미원조열사능원, 단동의 향미원조열사능원, 적벽의 지원군열사묘지 등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183,10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단둥시 향미원조열사능원은 ‘향미원조열사능원 관리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성급 ‘애국주의교육기지’ 및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어 있다.

② 항미원조기념관(抗美援朝紀念館)

단둥시 진흥구(振興區) 산상가(山上街) 7호에 위치한 ‘항미원조전쟁기념관’은 경치가 좋은 영화산(英華山)에 자리하고 있다. 1958년 9월 29일 당시의 ‘안동역 사문물진열관’을 ‘항미원조기념관’으로 개명하였다.

문화대혁명 때 일시 폐관되기도 했으나, 1994년 7월 27일 ‘항미원조전쟁’ 정전 협정 4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신축되었다. 기념관의 면적은 18만㎡에 이르며 총건축 면적은 13,790평이다. 크게 기념탑, 진열관, 원형 스크린 영화관(circle vision)의 세 개의 건축물로 구성되었다.



그림 94 | 항미원조기념탑(단둥시 진흥구 산상가 7호)



그림 95 | 항미원조기념관의 전쟁 무기 유물 전시장



그림 96 | 항미원조전쟁기념관의 전경

기념탑의 높이는 53m로 한국전쟁의 정전 협정이 체결된 1953년을 상징한다. 기념탑 정면에는 덩샤오핑(鄧小平)이 쓴 '항미원조기념탑(抗美援朝紀念塔)'이라는 일곱 글자가 있고, 아래 면에는 마오쩌둥(毛澤東)이 쓴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保家爲國)'이라는 여덟 글자가 있다. 그리고 뒷면에는 큰 대리석판에 중국 인민지원군의 업적을 기리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진열관은 3층으로 모두 10개의 전시실이 있으며, 700여 점의 사진과 1,000여 건의 자료와 도표, 그림, 모형, 조각 등이 전시되어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는 한국전쟁의 실상을 전시하고 있다.

원형 스크린 영화관은 높이 24m, 직경 44m이며, 현대 기술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회화·조형 및 조명과 음향을 통해 한국전쟁의 국면을 전환시킨 '청천강변 포위전'의 상황을 재현하고 있으며, 화면 높이는 18m이고 둘레 길이가 132m이다.

현재 이 기념관은 한국전쟁 당시 문물 12,100여 점, 역사 문물 7,391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중에 국가 1급 문물이 47점에 달하여 중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기념관으로서 국가급 애국주의교육기지 및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전국홍색관광명소로서 손꼽히고 있다.

③ 압록강단교(鴨綠江斷橋)

압록강단교는 압록강의 다리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것으로, 일본의 중국 동북 지역 침략과 자원 약탈 및 한국전쟁의 역사적 기억과 흔적들이 깃들어 있다.

러일전쟁에서 승전한 뒤,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1905년 5월에 착공하여 1911년 10월에 준공한 것이다. 길이 944.2m, 12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졌다. 중국 쪽의 네 번째 기둥을 축으로 개폐 교량으로 설계되어 큰 선박들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다.

1937년부터 다시 이 철교에서 약 100m 상류 지점에 안봉선(安奉線, 안동(安東)에서 봉천(奉天)까지 있는 철도선)의 복선 철로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길이 946m, 기둥 12개의 규모로 1943년 4월 개통되었다. 이 철교를 일반적으로 '상교(上橋)'로 부르며, 하류의 철교는 육교로 사용되면서 '하교(下橋)'로 불렸다.

1945년 8월 중국 동북 지역과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이 두 다리를 접수하여 관리하였으며, 1947년 6월 소련군이 철수한 뒤에는 중국과 북한에서 공동 관리하게 되었다. 1951년 1월 상교(上橋)의 복선 철로를 철로와 육교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 측은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 북한 측은 '조중우의교'라고 부른다.

1950년 6월 이후 한국전쟁 시기, 압록강철교는 중요한 군수 물자 공급과 운반을 담당했다. 미군은 중국인민지원군의 병력과 물자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1950년 10월부터 대부분 공군력을 배치하여 "만주 국경 지역에 있는 북한



그림 97 | 압록강단교의 표지판

측의 모든 국제 교량을 파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11월 8일~11월 21일까지 600대의 폭격기를 동원하여, 압록강 위의 모든 교량과 북한 측의 군사 시설 및 교통 요새를 폭격했다. 압록강 연안은 삼시간에 불바다로 변했고, 상교는 파괴되었고 하교는 완전히 절단되었다.

한국전쟁이 막을 내린 뒤, 중국 측은 전쟁의 상처를 입고 폐허가 된 다리를 그대로 보존했다. 당시 중국 쪽 다리가 파괴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군이 중국의 참전을 우려하여 압록강대교를 폭격할 때, 중·조 국경선을 고려하여, 중국 쪽 다리는 폭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1988년 10월 단둥시 인민정부는 이 ‘단교’를 시급 ‘문물보호단위’로 지정하고 600만 위안을 투자하여 전쟁 유적형의 관광풍경구로 조성하였다. 2000년 10월 25일 ‘항미원조전쟁 50주년’을 맞이하여, 당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겸 국방부장이었던 츠하오티엔(遲浩田)이 ‘압록강단교(鴨綠江斷橋)’라는 표제를

췌었다.

단교의 입구에는 일제 시대의 포루(炮樓)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단교로 올라가면 양쪽에는 30여 폭의 다리 역사를 설명하는 사진이 전시되어 있고, 총탄의 흔적과 개폐선전(開閉旋轉) 시설을 볼 수 있고,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압록강의 풍경과 북한 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현재 '전국애국주의교육기지', '국가급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된 압록강단교는 일제 식민통치와 더불어 냉전 시대 전쟁 역사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고 증언하는 산증인으로 남아 있다.



그림 98 | 압록강단교(2006. 5. 25 국가급 문물보호단위로 지정)



그림 99 | 압록강단교의 전망대

이룡양행 옛터(怡隆洋行舊址)



그림 100 | 이룡양행 전경

단둥시 흥룡가(興隆街) 25호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단둥시 건강교육소(丹東市健康教育所)' 건물은 이룡양행의 옛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안동교통국(安東交通局)의 소재지로 유명하다. 원래는 1층이었지만, 1971년에 1층을 증축하였다. 당시에는 '이룡양행'이라는 건물 이름이 있었다고 한다.

1902년 9월 영국이 안동에 영사관을 설치하고, 동북 지역을 무대로 한 통상권을 갖게 됨에 따라, 1908년 이룡양행을 세워 해외 무역과 항운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이룡양행에 파견된 사람은 영국 국적의 아일랜드 출신 조지 루이스 쇼(George Lewis

Show, 중국명은 소지영(蘇志英), 소조지(邵趙志), 소조직(邵兆直)다. 그의 모친이 중국인이었고, 부인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중국어와 일본어에 정통하였다.

이룡양행은 상하이·칭다오·웨이하이·옌타이와의 해상 무역 및 압록강 수로를 이용한 화물 운수 사업을 통해, 안동의 향운을 석권하였다.

1919년 4월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그 해 5월 연통제를 실시하면서 국내로 진출하는 교통의 요지인 안동에 있던 이룡양행 2층에 안동교통국 사무소를 세워 상하이와 국내 및 동북 지역 독립운동의 연계망을 구축했다.

1920년 7월 조지 루이스 쇼는 이학수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석방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한인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태평양전쟁 발발 후, 영국과 미국 영사관이 철수하면서 조지 루이스 쇼가 영국의 대리영사를 맡았으나 이후 다시 상하이로 전근함에 따라 안동교통국은 사실상 폐쇄되었다.



현재 단둥시 홍룡가 25호 그림 101 | 이룡양행 입구

에 위치한 이룡양행 건물의 실상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지만, 한국 독립운동을 전공하는 역사학자들과 많은 한국인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II

중국 산둥반도 지역의 전쟁 및 역사 유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산둥반도의 지정학적 특징 및 군사 전략적 위치

산둥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안선이 3,121km로 중국 해안선의 1/6을 차지하며, 연해에 299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장기간처럼 널려 있다. 웨이하이·옌타이·칭다오 등은 도서(島嶼)들로 둘러싸여 있고 한반도와 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또한 일본과도 내왕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고 항만(港灣)이 많아, 옛날부터 한·중·일 삼국 간의 교역과 교류의 거점으로 역할하였다.

또 지리적으로 험하고 요충지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봉래(蓬萊), 등주(登州)와 내주(萊州) 등지는 지형이 돌출되어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천연 요새로 고대로부터 줄곧 중국 동부 지역 및 한·중·일 3국의 관계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였다.

수(隋)와 당(唐)이 강성할 때에는 여러 차례 산둥 연해의 항만 시설을 이용하여 고구려를 침공하는 전쟁을 일으켰고, 많은 전함과 병력을 해로를 통해 한반도에 파견하여 해상으로 고구려 정권에 군사적인 압력을 가하였다.

북송(北宋) 시기에는 거란이 랴오둥반도를 통제하고, 산둥반도와 대치하게

되면서 랴오둥반도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등주에 해상 방어를 목적으로 요새를 건설하여 거란군의 침입을 제어하려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둥반도 지역의 해상 방어 시설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원(元) 말부터 왜구(倭寇)가 해로를 통해 중국의 연해 지역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명대(明代)에 이르러 왜구의 침략이 날로 창궐하자, 명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왜에 대처함과 동시에 산둥반도 해역에 본격적으로 해상 방어 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명(明)·청(淸) 시기에 베이징(北京)을 수도로 정하면서 산둥반도 일원의 해역(海域)은 수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해상 방어의 문호(門戶)가 되었다. 특히 등주부(登州府:蓬萊, 黃縣, 福山, 萊陽, 文登)와 내주부(萊州府:平度, 膠州, 卽墨)의 전략적 가치가 중앙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명은 산둥반도의 군사적 위치와 해상 방어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임진왜란 시, 명의 군대가 대규모로 한반도에 집결해 있어 군량의 공급이 난제였으며, 식량의 공급은 주로 산둥반도의 등주와 내주 등을 거점으로 한 해운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청대에 들어선 후, 산둥반도 연해 지역의 군사적 위치는 청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청 전기부터 산둥반도 연해 지역에 화포(火炮)를 중심으로 포대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1658년 내주 삼산도(三山島)에 포대를 건설하였는데, 소형 포대 20개를 설치하여 해적을 나포하고 연해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였다.

그 후 정성공(鄭成功) 등 반청 세력의 도전과 해적의 빈번한 출몰로 인해 타이완(臺灣)이 통일되기 이전 산둥반도 연해 지역의 해상 방어에 대한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었고, 강희(康熙) 말년부터 해적의 출몰로 인한 군사적인 방어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산둥반도 지역이 군사 요새로서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1719년 12월 청 정부는 산둥순무(山東巡撫) 이수덕(李樹德)의 건의를 받아들여 산둥 연해 지역 해상 방어 체계에 대해 수정을 가하였고 포대의 수축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의 포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지리적 위치에 있어서 산둥 지역의 해상 포대는 주로 해도 포대(海島炮臺)와 해구 포대(海口炮臺)로 나뉘어져 있었다. 둘째, 규모면에 있어서 산둥 해방포대(山東海防炮臺)는 규모가 크지 않았고, 포좌(炮座)마다 포위(炮位) 3개로 대체로 소형 포대에 속했다. 셋째, 주로 삼합토(三合土)와 전석(磚石)을 이용하여 포대를 구축하였다.

이후 한동안 청 정부의 해상 방어 의식이 약화되어 산둥반도 연해 지역의 해상 안보에 별 위협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자 포대를 봉화대로 개조하기도 하였다. 청이 타이완을 통일한 후, 서양 제국주의 식민 세력 특히, 영국이 청 해상의 강적으로 등장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청 정부는 형세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해적에게 대처하던 방식으로 제국주의 국가의 강력한 침략에 대응하려 하였다.

청 말기에 이르러 서양 열강이 산둥반도 해안 지역에 진출하여 연해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려 하자, 청 정부는 산둥반도 지역을 무대로 북양해군의 확충에 착수하여 근해 지배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산둥반도 연해 요새 지역의 포대를 점차 신식 포대로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화포(火炮)는 모두 외국에서 들여왔다. 이로 인해 엔타이·웨이하이·등주 등지에 신식 포대가 건설되기 시작하였고, 대포는 신식 크루프 후강대포(後膛大砲)와 암스트롱 전강대포(前膛大砲)로 대체되었다.

이후 이홍장은 유공도에 북양해군을 집중시켰고, 특히 웨이하이에 대규모 신식 해안 포대군(炮臺群)을 구축하였으며 독일 육군 기술자 한나견(漢納根)⁷을

7 독일어 원명이 분명하지 않아 중국어명 발음으로 표기하였음.

초청하여 건설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웨이하이의 포대는 20여 개에 이르렀다. 해안·육로와 섬 사이에 포대를 분산 배치하여 화력이 상대적으로 밀집되도록 하였고 해륙 연합 방어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이 중에서 조부취포대(自埠嘴炮臺)에만 대포 5문이 설치되었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청의 지배가 끝날 때까지 이 포대를 이용하여 산둥반도 연해 지역을 방어하였다.

특히 근현대에 들어서는 국제 정치와 지정학적 이점으로 인해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의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았다. 이로 인해, 웨이하이·옌타이·칭다오는 제국주의 침략의 현장으로 전략하였다. 웨이하이와 칭다오는 일본·영국 및 독일의 식민지가 되었고, 옌타이는 1861년 산둥반도에서 가장 일찍 개항되었으며 제국주의 국가의 영사관이 밀집한 지역이 되었다.



2. 청일·러일전쟁 관련 유적지

1) 옌타이(煙臺) 지역

옌타이는 산둥반도의 중부에 위치해 있으며, 황해와 보하이해(渤海)에 접해 있고 랴오둥반도와 마주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베이징을 보호하는 해상 문호 역할을 하였다. 또한 근대에는 제국주의 침략을 막아내는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옌타이는 진(秦) 이전에는 전부(轉附)로 불렸고, 진대(秦代)에는 지부(之罘)로



그림 102 | 옌타이 전경

불렸는데, 현재의 지부도(芝罘島)를 가리킨다. 현재 엔타이시는 지부(芝罘)·복산(福山)·모평(牟平)·내산(萊山) 4개 구(區)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밑에 용구(龍口)·내양(萊陽)·내주(萊州)·초원(招遠)·서하(棲霞)·해양(海陽)·봉래(蓬萊) 등 7개 현급(縣級) 시(市)와 장도현(長島縣)을 두고 있다.

명 초(明初)에 왜구가 중국의 연해 지역에 출몰하여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전국의 주(州), 현(縣)의 요충 지역에 위(衛)와 소(所)를 설립하였다. 이때 웨이하이웨이(威海衛)와 영해위(寧海衛, 현재의 엔타이시 모평구)가 설치되었고, 관할 구역 내에 기산수어천호소(奇山守禦千戶所)를 두었는데, 복산(北山, 현재의 엔타이산)에 낭연돈(狼煙墩)과 대(臺)를 설치하면서 엔타이(煙臺)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다.

19세기 중반부터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1861년 산둥반도에서 가장 먼저 개항하였다. 엔타이가 개항된 후 청 정부는 엔타이의 해안 방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1876년부터 여러 곳에 포대를 수축하였다.

비록 엔타이가 청일·러일 전쟁의 주된 전장은 아니었지만, 산둥반도에서 가장 먼저 제국주의에 의해 개항된 곳으로서 제국주의 중국 침략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동포대·서포대 등 많은 군사 시설이 남아 있다.

또 엔타이산(煙臺山)은 제국주의 침략 시기 외국 영사관이 밀집되어 있던 지역으로써, 침략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으로 산둥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의 침략 상황을 되돌아볼 수 있는 증거물이 되고 있다. 조선 영사관도 이곳에 있었으나 현재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① 동포대

동포대는 엔타이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빈로(海濱路)에 자리 잡고 있다. 관광지 총면적은 24ha에 이르고, 해변의 경관, 명승 고적, 역사 문화, 인문 경관

을 두루 갖춘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

1861년 옌타이가 개항된 후, 청 정부는 옌타이의 해안 방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1876년에는 여러 곳에 포대를 설치하였다. 1891년 북양대신 이홍장은 이곳이 돌도 없는 해안 방어 요지를 입증했고, 광서(光緒) 황제에게 포대의 수축을 주청하였다.

이에 청 정부는 독일인을 초청하여 독일 수입 재료로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적인 크루프 대포를 만들어 해안 지역(현재의 '옌타이동포대해변풍경구' 지역)에 동포대를 수축하고 대포를 설치하였다.

동포대는 귀대산(歸岱山)의 동, 서, 북 삼면(三面) 수심 20m의 해안 절벽에 위치해 있으며 공동도(控峒島), 지부도(芝罘島)와 정립(鼎立)해 있고 서포대와 화력이 교차되어 그 위력 또한 대단한 옌타이의 천연 요새다.

동포대에 있는 건평 600m²의 전시실에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인물 동상과 최근 출토된 문물, 실물 자료, 진귀한 전적류(典籍類) 등 옌타이 근대



그림 103 | 동포대



그림 104 | 동포대 입구



그림 105 | 동포대 안내도

사 관련 자료와 역사의 장면들을 담은 사진 및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진귀한 문헌들이 전시되어 있다. 고포대(古炮臺)는 관광뿐 아니라 군사 포화 체험을 통해 역사를 재현함으로써 역사 교육과 애국주의교육기지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엔타이 동포대는 중국 북방에서 보기 드물게 완벽한 해안 방어 시설로서 높은 역사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림 106 | 동포대 전시물 1



그림 107 | 동포대 전시물 2



그림 108 | 동포대 전시물 3

② 서포대

『엔타이백년대사기(煙臺百年大事記)』에 의하면, 엔타이 서포대는 1875년 11월 청 정부가 엔타이, 봉래, 장도(長島)에 해상 방어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이듬해인 1876년에 수축되었다.



그림 109 | 서포대 입구

고, 동북과 서북쪽에 각각 중포대(重炮臺)를 설치하여 지부도의 동서 두 개 해만(海灣)을 마주하고 있다. 특히 1890년대에 설치된 동포대와 마주보고 있어 서포대로 불린다.

1880년대 북양대신 이홍장은 양무운동을 추진하여 서양의 선진 시설을 들여왔다. 1899년에는 독일인 프리드리히와 크루프를 초청하여 포대의 건축을 지휘하도록 하였고, 이후 수 차례 확장되어 현재의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

1901년 청 정부와 제국주의 열강 간에 '신유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조약의 "경사(京師)에서 해통도(海通道)에 이르는 각 포대를 철수하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서포대의 포를 해체하였다. 포신과 포좌는 1938년 일본군이 엔타이를 침략할 때 훼손되었다.

성의 정문은 남향으로 되어 있고, 정문에 들어서면 7,000㎡의 넓은 연병장(練兵場)이 있는데 현재 탱크, 화포 등 병기들이 진열되어 있다. 연병장을 가로 질러 가면 반지하 위치에 지휘소가 있으며 면적은 580㎡이고, 담홍색의 돌로

해발 106m의 지부구(芝罘區) 서북부(西北部)의 통신강(通伸崗)에 있다. 산허리에 둘레 700m에 달하는 성벽을 쌓았고, 사격구멍을 정연하게 만들어 폐쇄식 군사 성곽을 형성하였으며, 면적은 10.7ha에 달한다.

성곽 안에는 8개의 포좌(炮座)가 있었



그림 110 | 서포대 성벽

쌓은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보이고 있다.

지휘소 밖 중문(中門) 위에는 ‘위진부산(威振斧山)’이란 금박문자로 새겨 쓴 현판이 있다(엔타이는 지부로 불렸는데, 이는 지부도로 인해 붙여진 이름이다).

더 올라가면 병영과 탄약고가 있고, 산꼭대기에는 망루(望樓)가 있다. 지휘소 안에는 주위의 성벽으로 통하는 지하 통로가 있으며, 웅성(纒城)·포대·성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토석(土石)으로 벽을 쌓았다. 웅성의 안쪽은 서포대의 남대문이고, 문 높이는 3.5m, 두께는 6m이다.

대문 위에는 ‘동번(東藩)’이라는 금박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이곳이 중국 동북 연해 지역의 병장(屏障)이며, 베이징과 톈진을 보호하는 문호라는 뜻이다. 서포대의 포와 포 사이는 성벽으로 되어 있으며, 사격 구멍이 200여 개 정도다.

서포대는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고대 성벽(城堡)의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근대의 선진적인 군사 시설을 갖춘 가장 완벽한 폐쇄식 고포대군(古炮臺群)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또 지세가 돌출되어 있고, 요충지로서 바다를 마주하고 있어 전쟁 발생 시 진공과 철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1979년부터 서포대산공원(西炮臺山公園)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99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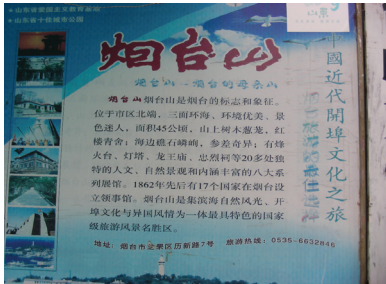


그림 111 | 엔타이산 안내도



그림 112 | 엔타이산 전경

에는 ‘서포대산국방공원(西炮臺山國防公園)’으로 명명되었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서포대는 현재 국방 교육의 주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청소년들에게 살아 있는 국방 교육을 시키는 중요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③ 엔타이산(煙臺山)

엔타이산은 엔타이의 상징으로 엔타이시 지부구(芝罘區) 북단(北端)에 위치해 있다. 삼면(三面) 환해(環海)의 풍경, 산, 바다, 도시, 항구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 모습과 1만톤 급 선박이 산을 스치듯 지나는 경관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다. 산 위의 푸른 숲 사이로 보이는 아담한 건축물들, 해변의 기이한 모습의 암초들, 신의 조화인 듯 독특한 기암괴석들이 자연의 정기를 듬뿍 받은 모습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로부터 많은 성인군자들이 등산을 할 때 시나 그림을 남겼고, 해변에서 여유롭게 낚시를 즐기거나 바다의 일출 또는 신기루를 보면서 자연의 운치를 마음껏 즐겼다고 한다.

명(明) 홍무(洪武) 31년(1398)에 지어진 봉화대는 산꼭대기에 있으며, 엔타이산과 엔타이시 이름 역시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산 위에는 용왕묘(龍王廟)와 충렬사(忠烈祠)가 있으며, 항일열사기념비(抗日烈

士紀念碑), 약랑정(慈浪亭) 등 인문 경관, 원앙석(鴛鴦石), 수려랑(隋侶廊), 맹정안(盟情崖), 모자귀(母子龜), 관해평(觀海坪), 일선천(一線天), 600년 고목 등 자연 경관 및 수많은 석각 문물 유적이 있다.

1858년 청 정부가 체결한 굴욕적인 중영 텐진 조약(中英天津條約)과 중불 텐진 조약(中佛天津條約)에 의해 등주(登州)가 통상 항구로 지정되었으나, 1861년 청 정부의 동의하에 통상 항구가 등주에서 옌타이로 바뀌었다. 그때부터 옌타이는 산둥반도 지역에서 가장 일찍 개항된 통상 항구가 되었으며, 북쪽의 옌타이산 일대는 17개 국가의 영사관 혹은 대리영사(代理領事) 거주지가 밀집해 있는 외교 공간이



그림 113 | 민족 영웅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114 | 옌타이산 주변 관련 유적지



되었다. 그 가운데서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일본·덴마크 등 6개국이 옌타이산에 영사관·별장·관공서 등 30여 채의 유럽풍 근대 건축물을 지어 산둥 지역 청일·러일 전쟁 및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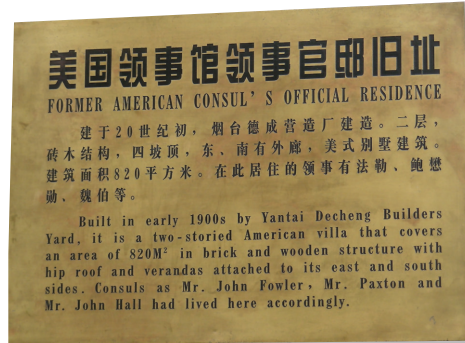


그림 115 | 미국영사관 영사관저 옛터 안내문

옌타이산은 1985년 개방되었으며, 옌타이개항진열관(煙臺開港陳列館), 중국 경극예술밀랍인형관, 옌타이 옛사진관, 민간 예술관과 덴마크영사관복원진열관 등 8개의 전시관이 있다. 산 아래의 조양가(朝陽街)는 옌타이 개항 이래 최초의 상업거리로서, 지금도 수많은 양행(洋行)과 음식점 등 근대 건축물들이 보존되어 있다. 그중에는 중국 최초의 세관인 동해관(東海關), 백년 역사의 아시아 최초의 볼링장 등도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웨이하이(威海) 지역(유공도)

청 북양해군(北洋海軍)의 제1요새지로 청일전쟁의 주요 전장이자 대표적인 유적지인 웨이하이는 산둥반도의 최동단에 위치해 있으며, 삼면이 황해에 둘러싸여 있는 천연 요새다.

또한 북쪽은 라오둥반도와 마주하고 있고, 동쪽과 동남쪽은 한반도 및 일본 열도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 한국·중국·일본 삼국의 군사 요충지로 손색이 없다. 1398년에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웨이하이웨이(威海衛)를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군사 요새가 되었다.

18세기부터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의 침투가 시작되면서, 웨이하이는 산둥반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영국의 침략 목표가 되었다. 1757년 6월 18일 영국 상선이 산둥의 웨이하이웨이(威海衛)와 유공도(劉公島) 앞바다에 나타나 무역을 시도한 것이 효시였다.

1816년 7월에는 영국의 아리스트(阿裏斯特)호가 몰래 웨이하이만(威海灣)에 잠입하여 현지 답사를 진행하였고, 해구(海口)·항로를 비롯하여 유공도 및 항만(港灣)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1832년 6월 18일 영국 동인도 회사가 간첩을 파견하여 무역을 명목으로 웨이하이만에 잠입하였는데, 목적은 산둥반도 해역의 지형을 측량하고 해양 방어의 허실을 탐색하기 위해서였다.

청일전쟁의 발발로 인해 웨이하이의 유공도는 주요 전쟁터가 되었고, 1895년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의 규정에 의해 일본에 의해 점령되었다. 1898년 영국이 강제로 웨이하이웨이를 조계지로 정했고, 1900년 웨이하이웨이 행정장관서(威海衛行政長官署)를 설치하여 영국 식민부의 관할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청일전쟁의 유적지, 북양해군의 제1요새지, 영국의 점령지였던 웨이하이는

100여 km² 범위 안에 30여 곳의 역사 관련 건축물과 유적이 밀집해 있다. 또한 북양해군의 군사 지휘 기관과 수리·보급·전보 통신·교육 훈련·의료 등의 후방 보급 시설이 있었고, 포대(炮臺) 건축과 주둔군이 사용하던 우물과 교량 등 아직 고증되지 못한 유적들도 많다.

청 정부는 독일인 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웨이하이만 남북 양안과 유공도에 15군데의 포대를 축조하였다. 청일전쟁 관련 유적과 시설물은 조북취포대(趙北嘴炮臺), 녹각취포대(鹿角嘴炮臺), 용묘취포대(龍廟嘴炮臺), 북산취포대(北山嘴炮臺), 황니구포대(黃泥溝炮臺), 제사대포대(祭祀臺炮臺), 황도포대(黃島炮臺), 공소후포대(公所後炮臺), 기정산포대(旗頂山炮臺), 영문동포대(迎門洞炮臺), 동홍포대(東泓炮臺), 일도포대(日島炮臺), 사가소포대(謝家所炮臺), 양풍령포대(楊楓嶺炮臺), 백정포대(柏頂炮臺) 등이다. 근대 제국주의 침략과 관련된 식민지 유적으로 영국 조차 웨이하이웨이 역사박물관(英租威海衛歷史博物館), 출국화공기지(出國華工的基地), 왕정정제자수회 웨이하이웨이기념탑(王正廷題字收回威海衛紀念塔), 영국 조차 웨이하이웨이 역사전람관(英租威海衛歷史展覽館), 갑오해전연시관(甲午海戰演示館), 갑오해전기념관(甲午海戰紀念館), 북양해군제독서(北洋海軍提督署), 용왕묘(龍王廟)·희루(戲樓), 웨이하이수사학당(威海水師學堂), 정여창우소(丁汝昌寓所), 정여창기념관(丁汝昌紀念館)과 북양해군장사기념관(北洋海軍將士紀念館) 등이 남아 있다.

청일전쟁 중 웨이하이만 남북 양안에 있는 8군데의 포대와 어뢰영(魚雷營) 및 군대 주둔지 등이 폐허로 변했고, 유공도 포대에 있는 대포는 일본군이 뜯어갔지만, 포의 위치라든지 갱도(坑道)·지하 병사(地下兵舍)·지하 탄약고(地下彈藥庫) 등은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

청일전쟁 시 파괴된 건물 대신에 영국식 건축물이 들어섰고, 그 결과 청대 건축과 영국식 건축물이 병존하고 있다.

‘웨이하이웨이 조차 전조(威海衛租借專條)’란?⁸

1898년 7월 1일, 혁광(奕劻) 총리아문대신, 형부상서 요수항(廖壽恒) 청 정부 대표는 영국 정부 대표와 베이징에서 정식으로 웨이하이웨이 조차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규정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웨이하이웨이 및 부근 해면을 영국에게 조차하고 조차 기간은 러시아가 점령한 칭다오 다렌의 기간과 동일하다.
- 동경 121도 40초 동연해 및 부근 연해 지방에 영국은 포대 축조와 군대 주둔 권한을 갖는다.
- 중국은 군대의 진입이 가능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한다.
- 웨이하이웨이성은 중국이 관리하고 원래 성내에 주둔한 관원은 여전히 성내에서 사무를 관장한다.
- 중국 함대는 언제든지 웨이하이 수면을 사용할 수 있다.

8 鄧向陽 主編(2003), 『米字旗下的威海衛』, 山東畫報出版社, 17쪽

웨이하이웨이 조차 기간 중 영국의 7명의 행정장관⁹

駱克哈特

F. A. Gaunt 哥恩特

道華德

Cowan 庫溫

A. P. Blunt 波蘭特

W. Russel Brown 布朗

R. F. Johnston 庄士敦



9 鄧向陽 主編(2003), 『米字旗下的威海衛』, 山東畫報出版社, 30쪽, 원명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한자를 그대로 표기하였다.

청조 북양함대 괴멸¹⁰

1895년 2월 2일 일본군이 웨이하이를 점령하고 17일 일본 연합함대가 웨이하이를 점령하였다. 항내에 정박해 있던 북양함대 ‘진원(鎭遠)·제원(濟遠)·평원(平遠)·광병(廣丙)’ 4대 함대와 ‘진서(鎭西)·진남(鎭南)·진북(鎭北)·진중(鎭中)·진변(鎭邊)·진동(鎭東)’ 6척 포함 및 7척 수뢰정이 포획되어 북양함대가 괴멸되었다.

‘제원(濟遠)’ 등 함대가 포획된 후 일본 함대에 편입되어 복역하였으나, 명칭은 바꾸지 않았다. ‘광병(廣丙)’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함대는 러일전쟁에 참가하였다. ‘제원(濟遠)’함은 일본 함대 복역 기간에 순양함에서 해방함(海防艦)으로 바꾸었다. 러일전쟁 발발 후 일본 해군은 이 함대를 보하이해에 파견하여 뤼순시와 일본 육군의 지상 공격을 지원하는 배후 포격 함대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임무 집행 중 1904년 11월 30일 러시아군이 포설한 기뢰 수뢰에 의해 폭파되어 보하이해 양두와만(羊頭灣) 서북 3해리 해구에 침몰되었다. 함장 및 38명이 사망하였으나 190명은 구조되었다.

1982년 5월 뤼순에 주재하는 중국인민해방군 37072부대가 ‘제원(濟遠)’함의 후주포(後主炮) 및 부포(副炮)를 건져 올려 뤼순 박물관에 진열해 두고 있다.

10 葉立群 編(1988), 『旅順口史記』, 海潮出版社, 28쪽



그림 116 | 웨이하이~유공도 여객 안내판



그림 117 | 유공도 기념물

유공도는 웨이하이 시내에서 2.1해리 떨어져 있으며, 면적은 3.15km²이다. 북부에는 날카로운 해안 절벽이 있고, 남부는 평활한 지대로서 87%가 삼림 지대여서 예로부터 '해상(海上)의 신산(神山)'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 1988년 국무원으로부터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와 국가급 풍경명승지역으로 인정받았다.

유공도는 청의 북양수사(北洋水師) 및 갑오전쟁 관련 유적이 상당히 많다. 1895년 봄, 갑오전쟁에서 북양수사는 전멸되었고 유공도는 일본군에 의해



그림 118 | 유공도포대 전경

3년 동안 강점되었다. 1898년 제국주의 열강들이 중국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웨이하이는 영국의 세력 범위에 속하게 되어 영국인이 관할하게 되었으며, 영국 해군의 훈련 장소로 활용하거나 요양지·피서지로 바뀌었다.

1930년 국민당이 유공도를 점령한 뒤, 1948년 중국 공산당이 점령하였으며 그 뒤로는 줄곧 군사 금지 구역이 되었다.

1985년 대외적으로 개방되었고, 정부에서 1,000만 위안이 넘는 거금을 투자하여 북양해군제독서, 정여창주거지, 용왕묘, 북양수사학당(北洋水師學堂), 고포대(古炮臺), 병기관(兵器館), 유공묘, 수족관, 갑오해전전람관, 북양해군충훈비 등을 복원하였다. 1988년에는 28곳의 청일전쟁 유적지가 ‘전국중점문화물보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최근에는 유명한 관광 명승지와 애국주의교육기지가 되었다.



그림 119 | 유공도 유람 안내도

유공도¹¹⁾

유공도는 해군 기지로 영국군의 훈련 기지일 뿐만 아니라, 웨이하이웨이를 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영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침략하는 데 발판이 된 곳이기도 하다. 1900년 8개국 연합군이 중국을 침략할 시기에 유공도는 영국군이 중국을 침략하는 보급 기지로 지정되어 중국 원정군으로 인도 군대를 조직하여 인도에서 홍콩을 거쳐 웨이하이로 갔다. 1914년 9월 영국군 1,000여 명은 유공도에서 노산만 쪽으로 함대를 운행하여 일본군이 칭다오를 공략하는 데 협조하였다. 1927년 무한(武漢) 인민이 한구(漢口)의 영국 조차지를 접수할 때 웨이하이웨이에 주둔했던 영국군 제2함대는 1927년 1월 10일 진강을 지나 한구에 이르러 무력으로 조차지 탈환을 시도하였다. 영국군은 웨이하이웨이의 특수한 전략적 지위와 우월한 자연 조건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웨이하이웨이를 반환하기 위한 몇 차례의 담판에서도 유공도를 놓지 않고 장기 점용을 시도하면서 웨이하이웨이를 반환하는 전제 조건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1930년에 웨이하이웨이를 반환할 때 유공도는 다시 10년간 조차되었다.

11 鄧向陽 主編(2003), 『米字旗下的威海衛』, 山東畫報出版社, 79쪽

① 중일갑오전쟁박물관(中日甲午戰爭博物館)

1985년 3월 21일에 세워진 중일갑오전쟁박물관은 기념 유적 박물관이며, 원래의 유공도 북양해군제독서(北洋海軍提督署) 건물을 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다. 청은 광서(光緒) 12년(1887) 북양수사(北洋水師)를 설립하고 제독서(提督署)를 유공도에 두었다.



그림 120 | 갑오전쟁박물관 전경



그림 121 | 갑오전쟁박물관

‘북양수사 제독아문(提督衙門)’은 북양해군의 지휘 기관이었다. 제독서는 ‘배산면해(背山面海) 좌북조남(坐北朝南)’의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낮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부지 면적이 1만㎡이다. 벽돌과 나무로 지어진 고건축군이며, 제독아문 밖 서남쪽 200m되는 곳에 수사제독(水師提督) 정여창(丁汝昌)의 거처 등 28곳의 기념 유적이 있는데 모두 전국중점문화보호단위(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되어 있다.

중일갑오전쟁박물관은 주로 북양해군과 갑오전쟁을 주제로 한 전시물을 전시하고 있고, 유공도 갑오전쟁 기념지로 보호·관리하고 있다. 박물관에는 역사 사진 1,000여 장, 북양해군과 갑오전쟁 문물 자료 200여 점, 인양한 함선 문물 표본 3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문물, 사진, 밀랍 인형, 모래판, 모형 등의 전시 방식과 영화로 당시 북양

해군과 갑오전쟁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원함쌍주포(濟遠艦雙主炮)는 '박물관의 첫번째 보물'로 손꼽힌다. 현재 용왕묘(龍王廟), 수사학당(水師學堂), 북양해군장사기념관(北洋海軍將士紀念館) 등 28곳의 북양해군 옛터에 대한 관리와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122 | 갑오전쟁박물관 진열관

② 갑오해전기념관(甲午海戰紀念館)

유공도 부두 동쪽 200m에 위치하고 있다. 건축·회화·영화 등 종합적인 예술 장르를 이용하여, 갑오해전의 비장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대형 전시관이다. 이 기념관은 서청(序廳), 북양수사성군(北洋水師成軍), 이화원수사학당(頤和園水師學堂), 반도해전(半島海戰), 평양전(平壤之戰), 황해대해전(黃海大海戰), 뤼순기지



그림 123 | 갑오해전 전시관

를 순기



그림 124 | 영국 조차지 웨이하이웨이 역사박물관
입구



그림 125 | 영국 조차지 웨이하이웨이 역사박물관



그림 126 | 정여창 처소



그림 127 | 정여창 동상

함(旅順基地陷), 혈전웨이하이(血戰威海), 미성청(尾聲廳) 등 9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양수사의 건립부터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재현하고 있다.

기념관 내에서는 전기·빛·음향 등 현대 과학 기술을 도입하여, 생동감 있고 진실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마치 역사의 현장에 있는 듯이 갑오전쟁 당시의 격렬하고 비장했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다.

갑오해전관(甲午海戰館)은 기세가 웅장한데 외관은 마치 서로 부딪쳐 엉켜버린 선체를 방불케 하며, 전쟁 당시 기함 정원호가 좌초되었던 바다 위에 떠있다. 18m 높이의 건물 중심 부위에 세워진 15m 높이의 ‘북양해군장령상(北洋海軍將領像)’은 중국 인물 조각상 중 최고로 꼽히고 있다.

③ 정여창기념관(丁汝昌紀念館)

정여창기념관은 1888년 정여창이 원래 거처하던 곳에 세운 것이다. 북양해군이 설립된 후 정여창은 가족을 거느리고 유공도에 이주해 이곳에서 6년을 살았다. 기념관 건물은 벽돌로 지었으며, 부지는 15,000㎡에 달한다. 서원(西院)은 가족의 거처였고, 동원(東院)은 정여창이 사무를 보고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었다. 대문 양측에는 문간방이 있었는데, 현재 정여창의 생애를 소개하는 전시실로 이용하고 있다.



그림 128 | 정여창기념관

④ 수사학당(水師學堂)

웨이하이수사학당은 광서 16년(1890)에 세워졌는데, 부지 20,000㎡이며, 현재 동서 원문(東西轅門), 조벽(照壁), 첩장(堞牆), 소희대(小戲臺)와 마구간 등이 남아 있다. 현재 중국 내에 남아 있는 유일한 수사학당(水師學堂)이다.



그림 129 | 수사학당 표지판

1889년 상하이·푸젠(福建)·광둥(廣東) 등지로부터 36명의 학생을 모집했고, 이후 10명의 학생을 추가로 모집하여 1890년 5월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영문(英文), 기하(幾何), 대수(代數), 천문(天文) 등 교과목을 강의하였다. 4년간 운영되었고, 3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중일갑오전쟁 이후 유공도가 함락되면서 파괴되었던 것을 2004년 복원하여 개방하였다.



그림 130 | 수사학당 안내문

⑤ 철부두(鐵埠頭)

철부두는 북양해군의 군함이 정박하던 곳이며, 1891년 준공되었다. 갑오전쟁 이후 여러 번에 걸쳐 복구·개조하여, 기본적으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1971년 원래의 기초 위에 '정(丁)' 자형으로 수축하였고 지금도 해군 부두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 131 | 북양해군 철부두 안내문



그림 132 | 철부두 전경

⑥ 포대(炮臺)



그림 133 | 기정산포대

유공도에는 황도(黃島), 마정자(麻井子), 기정산(旗頂山), 영문동(迎門洞), 동홍(東泓), 남취(南嘴)와 일도(日島)에 청나라 시대의 포대(炮臺)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독일인에 의해 설계되었다. 포대(炮臺) 외에도 지하 통로, 병사(兵舍), 탄약고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포대는 화강암과 시멘트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조형이 교묘하고 견고하며 실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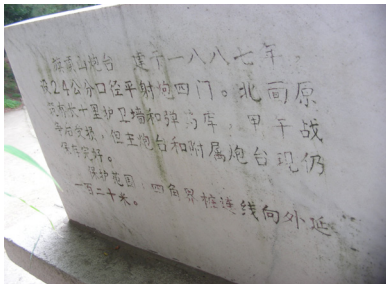


그림 134 | 기정산포대 표지석 뒷면



그림 135 | 기정산포대 전사물 1



그림 136 | 기정산포대 전시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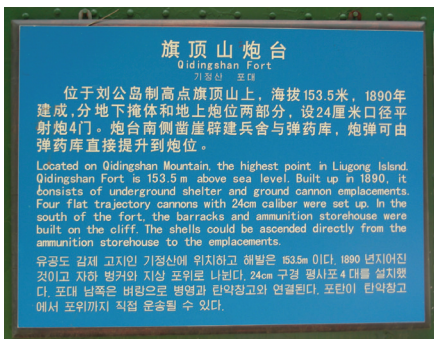


그림 137 | 기정산포대 설명도



그림 138 | 북양해군충혼비

⑦ 정원함관광지구(定遠艦景區)

정원함관광지구는 웨이하이 항구공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2002년 웨이하이시 항무국(港務局)에서 건설한 국가 2A급 관광지다.

복제 후의 정원함은 1888년 북양함대 설립 시의 것을 모델로 하였고, 실물과 완전히 일치한다. 함선 위의

305mm 구경의 거포를 포함하여 각종 무기와 장비들이 원래의 도면에 따라 다시 주조(鑄造)되었으며, 선창에는 테마 기념관, 군복, 수병 생활 등이 전시되어 있다.

주로 북양해군과 정원함 관련한 자료가 전시가 되어 있으며, 중국 고대 해군의 설립부터 시작하여 양무운동 시기 해군 방어 기지 건립 계획 및 황해해전에서 용감히 싸우던 북양해군의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9 | 정원함 전경



그림 140 | 정원함 전시물



그림 141 | 정원함포대 전시물

3. 독일 관련 유적지(칭다오)

칭다오시는 산둥반도 동남부의 화북(華北)과 화동(華東) 지역의 접경 지대에 위치해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현재 시남(市南), 시북(市北), 사방(四方), 이창(李滄), 황도(黃島), 노산(嶗山), 성양(城陽) 등 7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근대에 '교오(膠澳)로 불렸던 칭다오는 웨이하이·옌타이와 마찬가지로 군사적 요충지로 중시되었다. 1891년 청 정부는 교오에 방어 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이를 위해 1892년 등주진(登州鎮) 총병(總兵)인 고원(高元)이 4개 영(營)의 관병을 거느리고 이곳에 진주(進駐)하면서 같은 해 개항되었다.

비스마르크가 실각한 이후 독일 제국은 1890년부터 제국주의 정책을 실행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군사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이때 산둥성에서 2명의 독일 선교사가 피살된 사건을 해결한다는 구실로 교주만을 신속하게 점령하여 독일의 홍콩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¹²

1897년 독일이 군사 연습을 구실로 무력으로 교오를 강점하였고, 1898년

12 김춘식(2010), 「제국주의 공간과 융합」, 『독일 연구』 19, 115~116쪽

청 정부를 협박하여 교오조차조약(膠澳租借條約)을 체결하였다.¹³ 이때부터 교오는 독일의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산둥반도도 독일의 세력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1914년 11월 일본이 독일을 제치고 교오를 진공하여 점령하고 칭다오에서 군사 식민지배를 하였다.

따라서 칭다오에는 적지 않은 독일 등 유럽식 건축물 및 일본식 건축물이 남아 있다. 남노구(南老區)에는 유럽인 감옥과 교회가 있고, 중산로(中山路), 노신공원(魯迅公園), 팔대관풍경구(八大關風景區)에는 칭다오대강사창(靑島大康紗廠), 칭다오맥주박물관(靑島啤酒博物館), 칭다오권연창(靑島卷煙廠) 등 독일인과 일본인이 지은 건축물이 있으며, 많은 포대 유적지 및 관저(官邸)들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포대 유적지로는 1899년 독일군이 수축한 포대 유적지가 있으며, 현재 ‘국가 3A급 관광지’이고, 국가중점문물보호단위다. 포대유적지전람관(炮臺遺跡址展覽館)에는 독일의 칭다오 침략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 칭다오시 신호산(信號山) 허리에 자리 잡고 있는 칭다오영빈관(靑島迎賓館: 칭다오독일총독부 옛터 박물관(靑島德國總督樓舊址博物館), 4층 건물의 30여 개의 방 규모)은 이전의 ‘교오전구제독관저(膠澳戰區提督官邸)’로서 1907년에 지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중국인들은 칭다오의 반환을 위해 투쟁하였다. 특히 1919년 칭다오의 주권 회복 문제로 5·4 운동이 일어났고, 1922년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 정부와 ‘해결산둥현안조약(解決山東懸案條約)’을 체결토록 하였다. 같은 해 중국은 교오를 회수하였고, 이곳에 교오상부독판공서(膠澳商埠督辦公署)를 설치하였는데, 그 행정 구역은 독일의 교오조계지 구역이었다.

1929년 난징의 국민정부가 교오상부(膠澳商埠)를 접수·관리하였고, ‘칭다오 특별시’로 이름을 고쳤다. 1938년 일본 군대가 다시 칭다오를 점령하였는

13 한국에서는 교주만조차조약이라 한다. 1898년 3월 교주만에서 50km 반경 지역을 99년간 조차. 산둥성 철도 부설권과 철도 부지 주변 지역의 광산 채굴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데, 1945년에 이르러서야 국민당 정부가 미국의 지지하에 칭다오를 다시 관리하게 되었다. 산둥반도 지역에서 제국주의의 지배를 가장 오래 받은 곳이다.

① 칭다오잔교(靑島棧橋)

칭다오잔교(靑島棧橋, Qingdaoqiao Pier)는 칭다오시 남구 해변에 있고, 칭다오만(靑島灣), 샤오칭다오(小靑島)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북단(北端)은 중산로(中山路)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칭다오시의 상징이기도 하다.

잔교는 청 광서(光緒) 18년(1892) 총병(總兵)아문(衙門) 장고원(章高元)의 주도 하에 시공되어 1893년에 준공되었다. 총길이 200m, 너비 10m, 돌로 기초를 다졌고, 비포장도로이며, 다리 양측은 난간을 한 칭다오 최초의 군사 전용 인공 부두 건축물이다. 잔교는 '해군잔교(海軍棧橋)' '전해잔교(前海棧橋)' '해군철부두(海軍鐵埠頭)' '남해잔교(南海棧橋)' '대마두(大碼頭)' 등의 별칭을 갖고 있다.

독일이 칭다오를 침략한 후 잔교는 화물 운수용 부두가 되었다. 1901년 5월 확장 건설 시 북쪽은 시멘트 포장을 하였으며 철제 난간으로 바뀌었고 다리를 350m로 연장하였다. 연장 부분은 철 구조물에 나무로 바닥을 하였으며 위에 철도를 깔아 운송에 편리하게 하였다.

1931년 9월부터 1933년 4월 사이, 칭다오 시청은 25.8만 위안을 투자하여 재확장 건설 작업을 하여 원래의 철목 구조 부분을 콘크리트 구조로 바꾸고 도로면은 전부 시멘트 포장을 하였으며 다리 길이도 440m로 연장하고,



그림 142 | 칭다오잔교

높이를 0.4m 높여 남단에 ‘개(個)자 모양의 방파제를 만들고 내부에 2층 팔각 정자를 세워 이름을 ‘회란각’이라고 하였다. 1950년대 회란각은 ‘중소우호각’으로 불리기도 하였고, 이때부터 칭다오의 중요한 상징물이자 유명한 관광 유람지가 되었다.

② 샤오칭다오(小青島)

샤오칭다오는 1900년 독일군에 의해 건축되었으며, 유백색의 아담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칭다오인들의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샤오칭다오는 잔교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아담하고 경치가 아름다워 회란각과 함께 칭다오만의 ‘눈부신 진주’로 불리고 있다.

샤오칭다오는 원명이 칭다오이며, 독일이 교오(오늘의 칭다오 지구)를 강점한 후, 교오조계지 내 새로운 시가 구역을 칭다오라 하였다. 그리고 바다 위 이외탄 섬은 독일인들이 ‘아커나 섬’으로 불렀으며, 군대를 파견하여 지키도록 하였다.



그림 143 | 샤오칭다오 전경



그림 144 | 샤오칭다오에서 바라본 칭다오



그림 145 | 샤오칭다오등대

일본이 칭다오를 점령한 후에는 가등도(加藤島)로 불렸다. 일본이 두 번째로 칭다오를 강점한 후에는 일본군 주둔 기지가 되었고, 주로 군용으로 이용되었다.

1980년대 후반 샤오칭다오는 중국 해군

소속에서 칭다오시 소속으로 바뀌었고, 이후 재건 공사를 거쳐 샤오칭다오공원이라는 이름으로 1988년 관광객에게 개방되었다.

③ 칭다오산포대 유적(靑島山炮臺遺址)

칭다오산포대 유적지는 아시아 유일의 제1차 세계대전 역사 유적지다. 칭다오산은 해발 128.5m, 신·구 시(市) 지구의 접경지에 있으며 뒤로는 시가지, 앞으로는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데, 독일인들은 ‘베이스마이산’이라고 불렀다.

1891년 청군이 이 산에 포대를 세웠고, 1897년 독일군이 교주만(膠州灣)을



그림 146 | 칭다오산포대 내부 전시물

점령한 후, 독일 의회는 칭다오를 상업 무역 항구로 건설하여 산둥 내지 중국 전역의 자원을 약탈하고 중국에 공업품을 수입하는 기지로 만들려 했으나, 해군부는 원둥(遼東)의 독일 군사 기지로 삼을 것을 주장하여 군사

기지와 무역 항구로서 두 가지 기능을 갖게 되었다.

독일군은 칭다오를 점령한 후, 칭다오를 극동의 군사 기지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대량의 보루, 포대, 병영 및 지하 비밀 통로를 만들었으며, 지하 비밀 통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포대가 있는 곳의 지하에는 반드시 비밀 통로가 있었다.

포대는 보통 산꼭대기 험준한 장소에 있으며, 포대 가까운 곳에는 병영이 있었다. 일례로 칭다오산포대 부근에 비스마르크 병영이, 담산포대(湛山炮臺) 부근에 이얼치스(伊而底斯, 伊爾奇斯, 伊爾蒂斯 등으로 표기)가 있어서 완벽한 해륙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147 | 칭다오산포대 유지



그림 148 | 지하 지휘부

칭다오 민간에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현재의 해양대학에서 담산(湛山)에 이르는 지하에 비밀 통로가 있다고 한다. 모 신문의 기자가 칭다오 시당국 전문가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당시 칭다오의 해안 방어 시스템과 육지 방어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비밀 통로는 지하 배수관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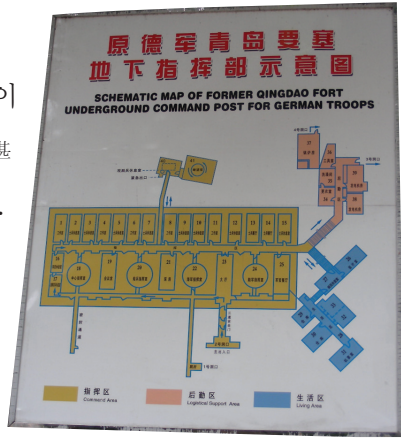


그림 149 | 지하 지휘부 안내도

포대와 병영 사이를 비밀 통로로 연결하면,

전시(戰時) 방어 시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이런 설계는 아주 합리적인 것이었다. 칭다오의 지하 비밀 통로는 아직까지 추측일 뿐 고증을 거치지 못했으며, 중국 CCTV의 '칭다오 요새' 프로 촬영 시 군대의 장비까지 동원하여 비밀 통로를 탐색해보려 했으나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실사 비밀 통로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00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에 있어서는 붕괴·매몰 우려 등 여러 상황으로 비밀 통로의 발견이 어려우며, 현존 문서에도 관련 기록은 없다. 전문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군이 칭다오의 군사 기록을 비밀리에 가져갔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칭다오시 당안관 편역처(青島市檔案館編譯處)의 연구자는 1930년대 칭다오의 도시 발전으로 인해 독일군이 남긴 포대, 보루 등이 산두공원(山頭公園)으로 개조되었다고 하였다. 당시 장제스(蔣介石) 군사위원장이 그의 직계 군관들을 칭다오로 불러 독일군이 수축한 보루를 참관하게 하였는데, 그때만 해도 보루의 원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칭다오산포대 유적지는 남·북 포대와 독일군 칭다오 요새의 지하 중심 지휘부로 구성되었고, 칭다오를 강점한 독일군의 9개 영구성 포대 중의 하나였

으며, 군사 총지휘부 소재지였고, 독일군이 '칭다오포대 중에서 최고'로 자랑 하던 포대였다.

포대는 엄밀한 해양 방어 시설의 구성 부분으로서, 휘천(隄泉), 단도(團島)에 설치된 포대는 해면을 감시하였고, 단도의 맞은편에 있는 황도(黃島)에도 포대를 수축하여, 서로 호응하면서 교주만을 통제하였다. 칭다오산포대는 군사 건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일본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칭다오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전쟁터가 되었다.

일본과 독일 양국 군대가 칭다오산에서 치열한 포전(砲戰)을 벌였는데, 독일군이 투항하며 남북 포대를 폭발시켰지만, 지하 지휘부는 잘 보존되어 있다. 지휘부는 총면적이 2000㎡ 정도로 50여 개의 청(廳)·실(室)로 구성되었으



그림 150 | 유적지 전체 안내도

며, 대부분 3층의 입체 구조이고 일부는 5층으로 되어 있다. 윗부분에는 철로 구조된 회전 전망탑이 있어서 교주만을 드나드는 선박의 동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 안에 있는 두 개의 물탱크는 2,000여 명 관병들의 3개월 작전 및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크기다.

1914년 일본군이 칭다오산을 점령한 후 '만년산(萬年山)'이라고 이름을 고쳤으며, 1922년 주권을 회복한 후에는 경산(京山)이라고 불렀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는 해군 부대 전시 지휘소로 이용되었고, 1984년부터 채벌을 금지하고 공원을 만들었다.

1992년 해군 소속으로부터 지방정부에 이양되었고, 1997년 '독일군 요새 지하 지휘부'를 복원하고, 산 아래에는 포대유적지전람관을 세웠으며, 같은 해 11월 14일부터 일반에 개방하였다. 이후 포대유적지전람관(炮臺遺址展覽館), 북포대(北炮臺), '복'자 조벽(福字照壁), 윤극충열사기념비(倫克忠烈士紀念碑) 등을 증설하였다.

포대는 해안 방어 시설의 주요 구성 부분으로, 휘천(隗泉)·단도(團島)에 포대를 구축하여 해면을 감시하였으며, 단도 맞은편의 황도에도 포대를 구축하여 교주만을 수비하였다. 칭다오산포대는 군사 건축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51 | 청대고포 전시물



그림 152 | 청대고포 안내문

④ 독일군이 건축한 해안 및 육지 방어용 포대

칭다오시 동남쪽 칭다오만(靑島灣), 휘천만(彙泉灣), 태평만(太平灣) 북쪽에는 독일군이 수축한 포대 보루, 병영 등의 군사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포대는 해안 방어용 포대어산포대(魚山炮臺), 휘천각포대(彙泉角炮臺), 단도포대(團島炮臺), 대서포대(台西炮臺), 비스마르크남포대(南炮臺)와 육지 방어용 포대, 3개의 임시포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53 | 북포대 안내판

먼저 해안 방어용 포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산포대를 독일군은 칭다오포대라고 불렀다. 어산은 칭다오시 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은 팔관산(八關山)에 인접하고 휘천만(彙泉灣)을 마주보고 있다. 이 포대는 오늘의 어산 산허리에 있으며, 지리적으로 당시의 청군총병아문(淸軍總兵衙門, 현재 새로 건설된 예약장 건물)과 가까웠는데, 그것이 포대 이름의 유래이며, 예전에 현지 주민들은 아문산포대(衙門山炮臺)라고 불렀다.

훗날 산허리에 도로를 내면서 대·소 두 개의 어산(魚山)이 형성되었고, 지세의 원인으로 소어산(小魚山)은 해발 80m로 동쪽이 높고 가파르며, 대어산(大魚山)은 해발 64m로 서쪽이 낮고 평탄하다(이 때문에 '대어산은 높지 않고, 서어산은 낮지 않다'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독일군 점령 전에는 청나라가 완공시킨 유일한 해안 방어 포대였으며, 독일군이 교주만을 점령한 후에는 산 위에 포좌(炮座)와 은폐처 확장 공사를 완성하고, 포대 위에 직사각형의 콘크리트 방패를 축조하였다. 청군이 세운 오티를 확장한 공사로, 아문산(衙門山)포대의 위치는 현재 해양박물관 북쪽 산비탈이었다.

휘천각포대는 중산공원(中山公園, 본명 제일공원, 속칭 포대공원) 내에 있으며, 1902년에 휘천만 동남쪽을 깎아서 만들었다. 독일군이 칭다오에서 자체 건설한 첫 포대로서 240mm 캐논(加農)대포 2문, 150mm 캐논대포 2문이 설치되어 있다. 대포는 포탑식 회전식이며, 원래 청 정부가 독일 크루프 회사에서 구입하여 대고구(大沽口)포대에 설치하였는데, 1900년 독일군이 8국 연합군에 가입한 후, 대고구포대의 대포를 칭다오로 옮겨와 휘천각포대에 재설치하였다. 포대 구역에는 대규모의 지하 병커가 있고, 지하 통로로 이얼치스병영과 연결되어 있다.

단도포대는 단도반도 앞에 위치한 단도비(團島瀆)에 있으며, 교주만 해협으로 뻗어 있어 주변의 지형이 험준하다. 원래 청(淸) 장고원(章高元) 총병(總兵) 휘하의 부대에서 수축하였으나, 준공 전에 독일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독일군은 기존의 포대를 중수(重修)하여 현재 보존되고 있는 포대로 만들었는데, 구경 88mm의 캐논대포 3문이 설치되어 있다.

단도 뒷쪽 서령(西嶺) 고지에 있는 서령(西嶺)포대는 청군이 구축하다가 준공 전에 독일군에게 점령되었다. 독일군은 이를 확대 건설하여 현재의 포대를 만들고, 대서진(台西鎭)포대로 개명하였는데, 구경 210mm의 캐논대포 4문이 설치되어 있다.

비스마르크남포대는 비스마르크산(俾斯麥山, 오늘의 칭다오산) 남쪽 비탈에 있으며, 1899년 공사를 시작하여 1905년에 완공되었다. 280mm 유탄(榴彈) 대포 4문이 설치되어 있고, 포대의 북측 산비탈에는 규모가 방대한 지하 비밀 지휘 부가 있으며, 그 안에는 발전기·망루·탐조등 등이 설치되어 있다.

크고 작은 42개의 방에 총면적은 1600㎡, 지하 통로로 남쪽 비탈의 비스마르크병영과 연결되어 있다. 독일군이 칭다오에 수축한 포대 중에서 최대 규모이며 화포의 구경도 가장 큰 포대다.

독일군이 건축한 육지 방어용 포대는 다음과 같다. 비스마르크포대는 비스마르크산 북쪽 비탈에 있으며, 수백 m²의 지하 병커와 2개의 큰 포좌가 있고 150mm의 캐논대포 2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얼치스북포대는 이얼치스산(오늘의 태평산(太平山), 독일군 침입 후 독일 극동함대 중 침몰된 전함의 이름을 빌어 이얼치스산으로 개명) 북쪽 산꼭대기에 있으며, 대규모의 지하 병커와 구경 120mm의 캐논대포 6문이 설치되어 있다. 독일군 육지 방어 포대 중에서 최대 규모이며, 가장 중요한 포격 진지다.

이얼치스동포대는 이얼치스산 동쪽 산꼭대기에 있으며, 지하 병커가 구축되어 있고 구경 150mm 캐논대포 2문이 설치되어 있다.

중가와포대(仲家窪炮臺)는 일명 '소담산북포대(小湛山北炮臺)' 또는 '독일 2호'로 불린다. 1897년에 구축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중가와 북쪽 고지에 있는데 규모가 대단하다. 8개의 포좌가 있지만, 대포를 설치하지는 않았다. 진강로(鎮江路) 간부휴양소 내에 있어서 진강로(鎮江路)를 포대로(炮臺路)라고도 부르며, 연안 동로시장(延安東路市場)은 포대시장(炮臺市場)으로 불리기도 한다.

임시포대(炮擊場, 野炮 陣地 등)로 독일군이 칭다오에 구축한 것은 모두 22곳인데, 그중에서 아래의 11곳이 유명하다.

- 대항유고(大港油庫)포대: 90mm 구경의 캐논대포 3문이 설치되어 있다.
- 몰케(Moltke, 毛奇, 지금의 저수산(貯水山))포대: 88mm 캐논포 3문, 85mm 캐논포 3문이 설치되어 있다.
- 대동진서포대(台東鎮西炮臺): 포좌 3곳, 대포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 대동진동포대(台東鎮東炮臺): 120mm 캐논포 6문이 설치되어 있다.
- 병기고(兵器庫, 대포도(大鮑島))포대: 88mm 캐논포 2문이 설치되어 있다.
- 이얼치스산포대(지금의 태평산(太平山)포대): 60mm 캐논포 4문이 설치되어 있다.

- 이얼치스산남포대: 90mm 캐논포 6문, 88mm 캐논포 2문, 85mm 캐논포 3문이 설치되어 있다.
- 이얼치스각(지금의 태평각(太平角))북포대: 50mm 캐논포 2문이 설치되어 있다.
- 이얼치스각포대: 88mm 캐논포 2문이 설치되어 있다.
- 중가와서포대(仲家窪西炮臺): 150mm 캐논포 3문이 설치되어 있다.
- 대항활동포대(大港活動炮臺): 이동식 장갑차 위에 포대를 설치하여, 항구로부터 해박 하구(海泊河口)의 철도를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⑤ 독일군이 건축한 보루 및 병영

독일은 칭다오를 점령한 다음, 시 경계선을 따라 6km의 보병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 방어선 위에 소담산보루(小湛山堡壘), 소담산북보루(小湛山北堡壘), 중앙보루(中央堡壘), 대동진보루(台東鎮堡壘)와 해안보루(海岸堡壘) 등 5개의 보루군(堡壘群)을 건설하였다. 1914년 일독전쟁(日獨戰爭) 시 견고한 보루로 이루어진 방어선은 일본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1899~1909년 사이, 독일 해군 당국은 칭다오에 이얼치스, 비스마르크, 몰케 등 세 개의 대형 병영을 건설하였다.

이얼치스병영은 1892~1901년 독일 해군이 칭다오에서 처음으로 건설한 군부대 병영이다. 이 병영의 건축 기사는 칭다오 요새 공정국(Fortifikation) 국장인 물러 공병상위(Hauptmann Müller, 米勒)였다. 그는 이 외에도 1909년까지 신호산에 점령기념비¹⁴를 비롯하여 단도(團島), 서령(西嶺), 아문산(衙門山) 등 요새의 확장·재건 공사를 맡아 완공하였다. 병영 공사는 독일 대재벌의 공동

14 점령기념비는 1897년 초 점령군 사령관이자 해군 함대의 부제독이었던 독일인 디트리히(Otto von Diederichs, 迪特裏希石)가 설계하였다.

투자로 세워진 교주공업집단(Kiautschou Industrie Syndicat)에서 책임지고 진행하였으며, 건축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퇴직한 정부 기술자 레펠트(Reffelt, 拉非爾特)를 초빙하여 공사 전체에 대한 감독을 맡겼다.

이얼치스병영은 칭다오 동쪽 태평산 남쪽 기슭에 있으며, 동남쪽으로 약 1.5마일 정도는 앞으로 뻗어나간 해협(太平角)에 있다. 시 중심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산과 바다를 끼고 있어 지리적 위치가 최상급이다.

비스마르크병영은 독일의 ‘강철수상’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1816~1898)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인데 이 병영은 처음으로 수세식 변기를 장착한 병영이다. 칭다오산 남쪽 기슭에 있으며, 기복이 있는 구릉에 둘러싸여 있으나 산을 등지고 바다와 마주하여 지리적 위치가 아주 좋다. 병영이 수축되기 전에는 장고원(章高元) 주둔 시기(1892~1897)에 지은 구식 군영인 동영(東營, 嵩武中營이라고도 함)이 있던 지역이었다.

비스마르크병영은 이얼치스병영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형 병영이다. 이 병영은 1903년 1호 병영 공사 시작부터 1909년 4호 병영 준공까지 7년의 세월이 소요되었고, 75만 마르크가 투자되었다. 4개의 대형 군영 이외에 사병활동강당, 군관숙소, 사관숙소, 무기수리공장, 마굿간 등의 부속 건물이 있었다.

비스마르크병영 평면도를 살펴보면, 4채의 ‘공(工)자형 군영의 중간 지역은 사각형 운동장이었는데, 독일 해군육전대 제3영의 일상 훈련에 사용되었고, 운동장 서쪽에는 3채의 부속 건물이 일렬로 서 있다.

1983년 폐가로 처리된 사병활동센터와 1, 2호 군영은 같은 시기에 수축되었으며, ‘품(品)자형으로 배열된 아름다운 아치형 창문은 군영의 주요 건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가장 품격 있는 건축물로 평가받는다. 현재 보존되어 있는 사관숙소와 3호 군영은 같은 시기의 건물로 ‘절충 및 과도기’의 품격을 띠고 있다. 1990년 폐가 처리된 사관숙소(서북쪽 마굿간에 인접한 ‘일다루(一多樓)’와 도

면 설계가 같음은 제일 나중에 건축되었으며 간결하고 실용적이다.

현재의 '일다루(一多樓)' 서북쪽에 있는 마굿간은 군영의 주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는 청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계단식의 높은 벽과 붉은 벽돌로 쌓아올린 벽면은 중산로(中山路) 및 호남로(湖南路) 입구에 있는 프리드리히로(弗裏德里希路)의 빌딩과 흡사한 부분들이 있다.

1914년 일본군이 점령한 후, 군영은 영구적인 병영으로 바뀌었고, 1922년 중국 정부에서 회수한 후 북양해군 5사(師)가 이곳에 잠깐 머문 적이 있다. 1924년 교오상부독판(膠澳商埠督辦) 고은홍(高恩洪)이 발기하여 사립 칭다오대학교가 설립되었는데, 비르마르크병영을 캠퍼스로 사용하였다. 고은홍이 총장을 맡았고, 당시 유명한 교육계 인사들인 채원배(蔡元培), 황염배(黃炎培), 장백령(張伯苓) 등이 이사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항일 전쟁 발발 후 일본 군영이 되었고, 일본 주둔군사령부도 여기에 있었으며, 1945년 9월 미국 해군육전대가 상륙한 후 이곳을 군영으로 이용하였다. 그 후 산둥대학교(山東大學校)가 복교하였으며, 1958년 산둥대학교가 제남(濟南)으로 옮길 때 해양지질학원을 칭다오에 남겨 산둥해양학원(山東海洋學院)을 설립하였고, 훗날 칭다오해양대학교(靑島海洋大學校)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 비스마르크병영 터는 칭다오해양대학교 어산(魚山) 캠퍼스의 강의동으로 사용되고 있다.

몰케병영은 대동진(台東鎮) 서남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몰케산 동쪽, 이얼치스산 북쪽 산골짜기에 있다. 이 병영은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독일의 통일을 위해 절대적인 공헌을 세운 총참모장 몰케(毛奇, Helmuth von Moltke)의 이름을 땀다. 1899년에 이미 병영이 세워졌으나, 초기에는 간이식 건물과 군용 텐트뿐이었다. 1906년 교주성(膠州城)과 고밀성(高密城)에 주둔할 부대를 위해 병영을 재건하는 공사에 착수하였다. 1905년 11월 대리총독 세먼

(凡·塞麥恩, Ernst van Semmern) 해군상교(上校)가 신등순무 양사양(楊士驥)과 제남에서 체결한 철군 협의에 의하면, 이 부대들은 1906년에 위의 도시에서 철수해야 하였다.

주로 고밀(高密)에서 철수한 독일 해군 제3영 기병련(騎兵連)이 주둔하였던 몰케병영은 ‘마방자(馬房子)’로 불렸다. ‘교오조차지 발전비망록(膠澳租借地發展備忘錄)’에 따르면, 1905~1906년 몰케병영에는 마굿간과 무기 제조 공간이 딸린 말안장 단조 공장이 건립되었고, 동시에 말 사육장, 기숙사 한 채와 사무동도 짓기 시작하였다. 1906~1907년 사이, 경마장·숙소·사무동·화포 창고·수레 창고 등이 잇달아 완공되었고, 1호 군영 건설 공사가 시작되고 2호 군영도 공사 준비에 들어갔다. 1908년 군영이 건설된 후, 기병련, 해군 제3영의 기관총련과 공병련, 해군 야전포병련이 잇달아 이 군영에 주둔하게 되었다.

몰케병영은 군영 2채, 강당 1채, 동서 마굿간 및 약간의 보조 기능을 가진 건물들로 구성되었다. ‘요(凹)’ 자형의 군영은 북쪽을 향해 평행으로 배치되었으며, 병영의 북쪽은 넓은 면적의 몰케연병장(Moltke Platz)으로, 기병련(騎兵連)의 일상 훈련에 사용되었다.

이얼치스병영과 비스마르크병영의 뚜렷한 구별점이라면, 몰케병영의 벽면에는 화려하고 번잡한 장식들이 없으며 심지어 독일 병영의 상징인 계단식 높은 벽도 없고, 완만하게 벽면에서 돌출된 경사 지붕과 화강암으로 장식된 창문에서만 독일식 건물의 풍격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⑥ 칭다오총독부 및 영빈관

칭다오총독부는 관해산(觀海山) 남쪽 비탈에 있으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마주하고 있어 숙연함과 위엄을 보여주고 있다.

1903년에 건축하기 시작한 총독부는 독일 건축사 라차로위치가 19세기

유럽풍 공공 건축물의 예술 형식을 모방하여 설계한 것이다. 건물의 외관은 칭다오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화강암 대리석을 사용하였으며 지붕에는 붉은색 기와를 얹었다. 건축물이 웅장하고 우아하며 견고하여, 지금까지도 칭다오시의 유명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1949년 6월 2일 중국 공산당이 칭다오를 접수한 후, 총독부는 칭다오시 인민정부 청사가 되었고, 1994년 칭다오시 인민정부가 새 건물로 옮겨간 후에는 칭다오시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와 정치협상회의 청사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칭다오시 정치협상회의 청사로 상용하고 있다.

칭다오영빈관은 독일총독관저 옛터로 신호산(信號山)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1903년에 시공하여 1908년 완공되기까지 6년이 걸렸다. 독일 건축 기사 마르크가 설계하고 스테라 사이얼이 감독하였으며, 당시에는 독일 교도 총독(膠澳總督)의 관저(官邸)로 흔히 '제독루(提督樓)'라고 불렀다.

독일식 관저 옛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건축 면적이 4000여 m²이며, 독일의 전통적인 황궁 정원식 건축물이다. 유럽 황실 풍격의 독일 보루식



그림 154 | 칭다오총독부



그림 155 | 칭다오영빈관

건축물로 외형이 단아하고 장식이 호화롭다. 선이 아름답고 색채가 화려하여 중국 별장 건축의 본보기로 평가받고 있다. 20세기 초에 지은 이런 풍격의 건축물은 유럽 대륙, 심지어 독일에도 흔치 않다.

총독부는 벽돌과 철의 혼합 구조물로 19세기 유럽 공공 건축물의 특징인 대칭 평면에, 네 귀퉁이와 중간이 조금 돌출한 ‘요(凹)’자형의 모양이다. 건물 앞 넓은 공간에 있는 대형 화단식 녹지에는 총독부를 중심으로 방사선 모양의 6갈래 길이 나 있다. 주변에는 법원 및 구치소와 고급 주택이 있고, 앞쪽에는 양행(洋行), 호텔 등 주요 건물이 들어서 있다. 총독부 건물은 거의 정남·정북 방향으로, 칭다오에서는 보기 드문 건축물로 건물 자체가 웅장하다.

총 건축 면적은 7500㎡이며 총독부는 4층 건물로 1층과 4층은 보조 기능을 가진 방으로 창문이 아주 작다.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문과 창문이 크고 밝으며 양지 쪽 베란다에는 긴 복도가 달려 있다. 건물 내 회의실과 대청은 높고 웅장하며 사무실 용도에 적합하다.

1914년 일본이 독일을 대신하여 칭다오를 통치하기 시작한 후 일본 칭다오 주둔 수비군사령부가 이곳에서 사무를 보았고 1922년 중국 정부에서 칭다오를 회수한 후에는 교오상부국(膠澳商埠局) 사무처로 이용하였다. 1929년 4월 이후에는 칭다오 접수전원공서(靑島接收專員公署), 칭다오 특별시청, 칭다



그림 156 | 독일총독루 옛터 박물관

오 특별시공서(靑島特別市公署) 등으로 이용되었다. 1932년부터는 손님을 접대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고, 1934년에는 정식으로 ‘영빈관’으로 명명되었다. 1938~1945년 일본군이 두 번째로 칭다오를 점령한 시기에는 ‘국제 클럽’으로, 일본군 투항 이후에는 다시 ‘영빈관’으로 불렸다.

1949년 6월 2일 중국 공산당이 칭다오를 접수한 후, 칭다오시 인민정부가 이곳에서 사무를 보았고, 이후에는 빈객 접대용 호텔로 사용되어 많은 국가 지도자와 귀빈들을 맞이하였다. 1957년 8월 12일 마오쩌둥과 부인 장칭(江青) 및 딸 리나·리민이 이곳에 머물렀고, 이전 총독이 사용하던 방에는 장징궈(蔣經國), 호치민(胡志明), 시하누크 캄보디아 왕, 시얼 호주 총리 등이 머물렀다. 1995년 국무원의 승인으로 국가중점문물보호단위가 되었고 현재 칭다오시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와 칭다오시 정치협상회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독일영사관 옛터(德國領事館舊址)는 1900년에 지어졌고, 총 건축 면적은 1165㎡로 남쪽 중심부는 두 줄로 된 긴 창문이고, 중간에 높은 벽이 있으며, 서남쪽 귀퉁이에는 당시 통용되던 ‘복층 원형 탑’ 모양의 건물이 세워져 있다.

이 건물은 처음에는 독일 교민의 주택이었는데 1926년 독일이 칭다오에 영사관을 개설한 후 이곳으로 옮겼다. 전형적인 유럽풍 건물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칭다오에서 유일한 외국 영사관이었으며 훗날 공자의 후손에게 매각



그림 157 | 영빈관 내 역사 전시물 1



그림 158 | 영빈관 내 역사 전시물 2

된 후 시청에 기증되어 ‘남원공자기념관’이 되었다.

백여 년 세월의 비바람을 맞은 독일식 관저는 여전히 눈부신 가치를 자랑하고 있다. 20세기 중국에 세워진 서양 건축물들 중 역사·문화적 함의와 건축 예술적 가치에서 이 건물과 비견할 만한 건물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⑦ 칭다오기독교당과 칭다오천주교당

기독교당은 칭다오의 유명한 종교 건축물이고 산둥성 중점문화보호단위다. 칭다오시 시남구(市南區) 강소로(江蘇路) 15호의 작은 산언덕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쪽에는 아름다운 신호산공원이 있다.

교회는 독일 교오총독부에서 출자하여 1908년 4월 19일 정초(定礎)하고 1910년 10월 23일 준공되었다. 당시 칭다오에 거주하는 독일 신도들의 예배당이므로 ‘독일예배당’이라고도 불렀고 또 교회 꼭대기에 39m 높이의 종루가 있어 ‘종표루(鐘表樓)’라고도 불렀다. 전형적인 독일 보루식 건축물로 부지 1000㎡,

종루와 예배당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종루의 높이는 39.10m로 종루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시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종루 위의 거대한 시계는 숙연한 분위기의 교회에 신비로움과 정중함을 더해주고 있다. 예배당은 밝고 넓으며 한꺼번에 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18m 높이의 홀은 위층과 아래층 두 부분으로 나뉘었고 설계가 아주 섬세하고 우아하여 성지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기독교 건축 예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정원에는 이층으로 된 건물이 두 채 있는데 한 채는 이 교회의 보조 건물이고 다른 한 채는 선교사의 주택이다. 교회당 앞의 광장은 넓고 평탄하며 주위는 녹음이 우거지고 각종 서양식 건물이 널려 있어 교회 건축의 웅장함을 반겨주고 있다. 아침 햇살이 차츰 밝아올 때면 원근의 산과 숲, 푸른 지붕과 노란 벽들이 얽은 안개 속에 몽롱하게 비치는 것이 마치 신비의 땅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바위로 된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건물의 견고한 벽, 반원의 아치형 화강암 창틀, 가파른



그림 159 | 기독교당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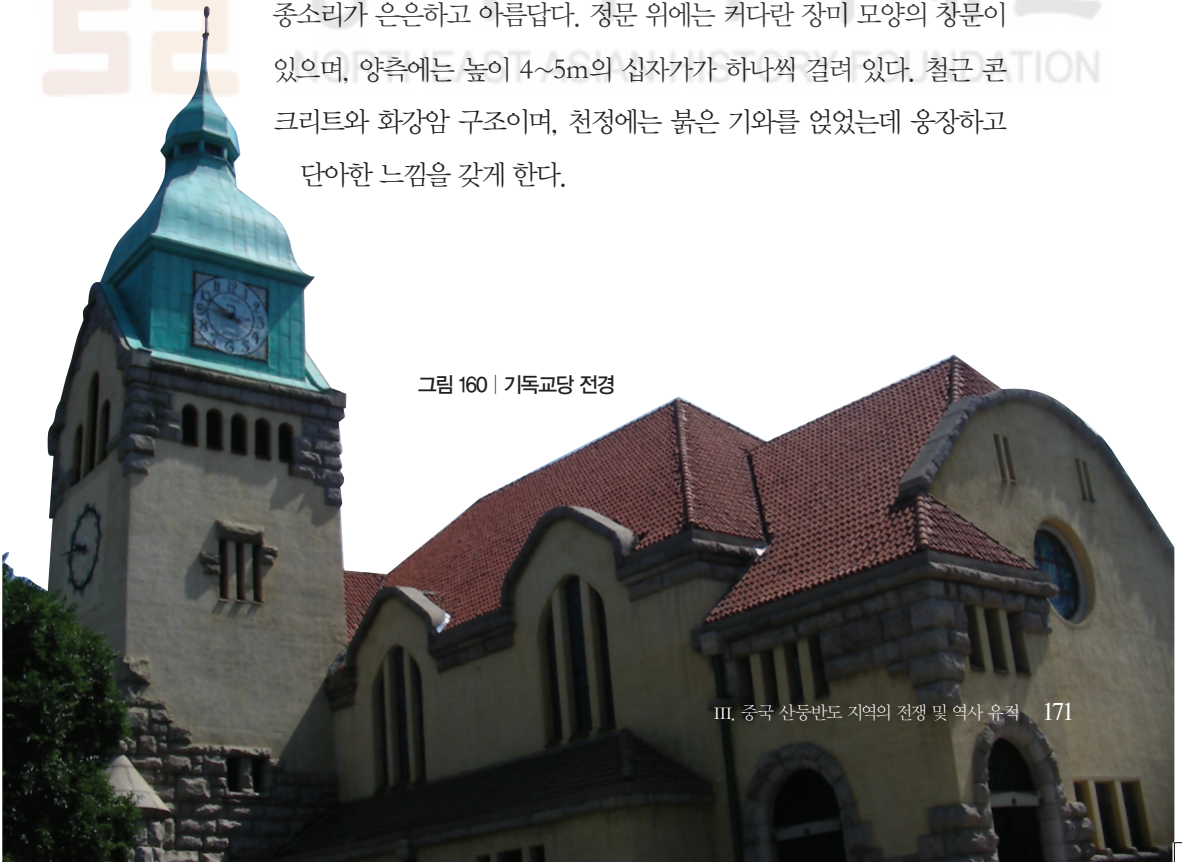
붉은색 지붕과 녹색의 뾰족 지붕을 한 종루가 뚜렷이 눈에 들어온다. 벽 아래 부분은 견고하고 중후한 분위기의 화강암으로 쌓아올려 교회 건물의 윤곽이 더욱 간결하고 명료하게 보이며 종교 건축물 특유의 느낌을 갖게 한다.

교회당은 1980년 보수 후 동년 11월 2일 예배를 시작했으며, '문화대혁명' 이후 칭다오시에서 처음으로 개방한 기독교교회당이다.

칭다오천주교회는 본명이 '성미얼 교당'이며, 독일인 설계 기사 피루하이아가 고딕 양식과 로마식으로 설계하였다. 원래 100m 높이로 설계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뒤 히틀러가 독일 본토의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엄금하였기에, 부득이 도면을 수정하여 현재의 규모로 줄였다고 한다.

1932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1934년에 완공되었는데, 부지는 11,480㎡, 건축 면적 6,301.54㎡이다. 성당 평면은 '십(+)'자 모양이며, 정면의 높이 30m 되는 지점에 테라스가 있고, 양측에는 대칭되는 두개의 높은 종탑이 있는데 높이는 60m이다. 탑 내부에는 4개의 커다란 청동으로 만든 종이 있는데, 종소리가 은은하고 아름답다. 정문 위에는 커다란 장미 모양의 창문이 있으며, 양측에는 높이 4~5m의 십자가가 하나씩 걸려 있다. 철근 콘크리트와 화강암 구조이며, 천정에는 붉은 기와를 얹었는데 웅장하고 단아한 느낌을 갖게 한다.

그림 160 | 기독교당 전경



성당의 장식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대청 높이는 18m이고, 천정에는 7개의 큰 상들이리가 달려 있으며, 뒤쪽에는 제단이 있고 지붕에 새겨진 벽화로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수천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성당으로 칭다오 최대의 고딕 건물이며, 중국에서 유일한



그림 161 | 기독교당 표지석

‘축성교당(祝聖教堂)’으로 기독교 건축 예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문화대혁명 시기 성당은 심하게 파괴되었으며, 1981년 4월 재사용되면서, 성급(省級) 중점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



그림 162 | 칭다오천주교당

⑧ 법원, 해군영, 감옥, 경찰서 옛터

교오법원(膠澳法院)은 총독관서(總督官署) 서남쪽에 있으며, 여러 채의 건물과 더불어 교오조계지(膠澳租界地)의 행정 중심 지구를 형성하고 있다. 이층 벽돌 구조 건물로 건축 면적은 3,126.53㎡이며, 붉은색 지붕과 윗부분에 만든 지붕의 창, 노란색 벽면, 벽면 밑 부분의 코너스톤 등으로 전형적인 독일풍 건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건물에는 두 개의 입구가 있는데 주 입구는 남쪽에 있고 광장을 마주보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동쪽에 있다. 전통적인 사법 건물의 엄숙한 분위기와 달리 디자이너의 역동적인 사고방식이 잘 나타나 있다. 건물은 입체감이 풍부하고 세부적인 장식에서는 자유분방한 면도 보인다. 당시 교오법관(膠澳法官)은 독일 총독이 임명했으며, 법원 내부에는 유럽인 법정과 중국인 법정이 따로 있었다.

1912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14년에 완공되었으며, 독일이 칭다오에 남긴 마지막 건물이라 할 수 있다. 건물이 완공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인



그림 163 | 교오법원 옛터



그림 164 | 교오법원

들은 칭다오를 떠나야 했다. 일본군 점령 시기에는 칭다오수비군법원이 입주하였고, 칭다오가 반환된 후에는 심판청(審判廳)으로 사용되었다. 항일 전쟁 승리 후에는 산둥고등법원 제2법원, 산둥고등법원 제2법원 검찰처, 칭다오지방법원, 칭다오지방법원 검찰처 등이 이곳에서 사무를 보았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에는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 칭다오시 남구법원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칭다오시 남구검찰원으로 쓰이고 있다.

독일 제3해군영 옛터(德國第三海軍營部舊址)는 초기 교주만조계지(膠州灣租界地) 건설 시 디트리히로(迪特裏希路, 지금의 沂水路)는 정치 중심 구역으로 계획되어 많은 식민지배 기관들이 자리 잡았고, 일부 관리들의 주택과 별장도 세워졌다. 당시의 서류에는 기수로(沂水路) 9번지에 위치한 한 주택이 '11호 관저'로 명명되어 있다. 1899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칭다오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 건축물 중의 하나로 꼽히며 1903년에 완공된 후 독일군관의 주택으로 사용되었다.

같은 시기 독일 해군은 이얼치스산 아래에 병영을 짓기 시작하였고 1912년 독일 해군 제3병영이 이 건물로 옮겨왔다. 건물은 2층으로 된 벽돌·목재 구조이며, 처음에는 개인 저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독일식 별장의 풍격이었다. 1층 홀 양쪽에는 서재·거실·주방 등이 있으며, 2층에는 방 세 개와 탈의실·옷장·욕실 등이 있다.

독일 해군 제3영의 일부 병사들은 8개국 연합군의 중국 침략 전쟁에 참가하였으며, 이들이 베이징에서 칭다오로 돌아올 때 독일 식민지배 당국은 이들을 위하여 '성대한 환영식'을 베풀어 주었다.

중국 정부가 칭다오를 회수한 후, 이곳은 칭다오철도병원의 병실로 사용되었으며 그 후에도 철도국에서 사용하였다. 현재 이곳에는 '칭다오시 공상사무자문중심(靑島市工商事務諮問中心)'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으며, 지하에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유럽인 감옥 옛터(歐人監獄舊址)는 교오조계지(膠澳租界地) 내에서 중국인과 외국인에 대해 엄격한 차별을 적용한 곳이었다. 심지어 범인들을 수감하는 감옥에서조차 그 대우가 달랐는데, 독일군이 칭다오를 강점하고 있던 시기 중국인 죄수들은 여건이 아주 열악한 이촌감옥(李村監獄)에 수감되었고, 외국인 죄수들은 현재의 상주로(常州路) 25번지에 있는 유럽인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 감옥 옛터는 부지 면적 1,168.2㎡, 건축 면적 8,297.5㎡로 각종 건물 26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존하는 건물은 9동인데, 그중에서 다섯 동의 감방 이름은 특이하게도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3층 높이의 뾰족한 탑식 건물로 중세 보루의 풍격을 뽐내고 있다.

탑 모양의 건물에는 세로로 된 작은 창문들이 있고, 원추형의 탑 꼭대기는 삼엄한 느낌마저 준다. 건물 내에는 47개로 된 회전 계단이 있으며, 탑루(塔樓)는 오늘날 감옥 내의 망루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 건물은 중국에서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고보루(古堡壘) 양식의 근대 감옥이다. 당시 독일인들이 편찬한 원동 여행 수첩에서 여러 번 이 건물을 언급하였으며, ‘해안의 보루’라고 불렀다.



그림 165 | 칭다오독일감옥 옛터 박물관 안내판



그림 166 | 칭다오독일감옥

1922년 중국 정부가 다시 칭다오에 대한 주권을 행사한 후, 이곳은 지방 검찰원의 구치소로 되었다. 1938년 일본군이 칭다오를 점령한 후, 이곳은 일본 해군의 구금 장소와 칭다오지방법원의 구치소로 사용되었으며, 감옥 내에 새로 ‘물감옥’을 지어 수많은 항일 인사들이 일본군의 고문과 박해를 받았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칭다오인민법원이 성립되었고, 구치소는 법원에 귀속되었다가 1955년 공안국으로 넘겨졌고, 이 건물은 공안국예심처(公安局豫審處)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원래의 건물이 노후되고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관리 부담이 커졌으므로, 1995년 새로운 구치소가 완공되자 상주로(常州路)의 모든 직원과 죄수들은 새 구치소로 옮겨갔다.

이후 몇 년 동안 감옥 옛터는 비어 있다가, 2006년 유럽인 감옥이 국가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된 후, 2007년 4월 수리 보강 공사를 거쳐 칭다오 독일식 감옥박물관(青島德式監獄博物館)으로 재탄생하였으며, 애국주의교육기지로 지정되었다.

칭다오에 처음 오는 관광객은 기차역을 나서는 순간 독일풍의 종루(鐘樓)에



그림 167 | 칭다오독일감옥 역사진열실

깊이 매료될 것이다. 하지만 칭다오는 탐루로 유명한 도시다. 기차역 광장에서 호북로(湖北路)를 따라 동쪽으로 수백 미터 가다보면, 정교하고 아름다운 탐루가 보이는데 그곳이 바로 교오경찰서(膠澳警察署) 옛터다.

독일 식민주의자들은 초기에 사부일회(四部一會)를 설치하여, 조계지를 관리하였다. 경찰 기관들은 민정부(民政府)에 속하였고, 임시로 설치된 순포(巡捕) 기구는 제3해군영에서 책임지고 관리하였다. 일부 해군 병사와 모집한 중국인 순포(경찰)로 최초의 경찰 부대를 구성하여, 칭다오와 이촌(李村) 두 구역의 치안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순포는 사회 치안 유지 외에도 건축과 위생 방면의 관리를 책임졌으며, 과도기 성격을 띠었던 이 임시 기구는 정부의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1900년 6월 14일 칭다오총독이 '칭다오지구순무장정(靑島地區巡武章程)'을 반포하고, 순포방경서(巡捕房警署)를 설립하여 경찰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예전에 경찰에 의해 관리되던 도시 위생 관련 업무는 유럽 경제업체가 인수하였다.

1904년 총독서(總督署)는 왕태자(王太子) 거리와 뮌헨로 입구, 즉 오늘의 호



그림 168 | 경찰서 옛터

북로(湖北路)와 몽음로(蒙陰路) 입구에 7.5만 마르크를 투자하여 새로 경찰서 사무동을 지었다. 1905년 11월 건물이 완공되자 이전의 청군 병영을 사용하였던 경찰서가 이곳으로 옮겨 왔다. 건물은 높이 솟은 탑루와 거대한 벽면이 입체적인 구도를 이루고 있다. 주요 건물은 높이 16.5m의 이층 구조이며, 탑루의 높이가 30m이다. 탑루의 꼭대기는 게르만 양식이며, 이 거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로 건물 내에는 경찰서 외에 지방법원과 감옥이 있다.

1914년 일본이 칭다오를 강점한 후에는 일본 헌병대가 이 건물에 입주하여 경찰 직무를 대행하였다. 1917년 10월 일본 수비군사령부는 민정서를 증

설하고 산하에 경무부(警務部)를 설치하여 경찰 직권을 전담하게 하였으나,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헌병대로 칭하였다.

1922년 칭다오에 대한 주권을 회복한 후, 건물 내에 교오상부독판공서 경찰청(膠澳商埠督辦公署警察廳)을 설치하였고, 난징 국민정부가 칭다오를 접수한 후 비로소 칭다오시 공안국으로 재출범하였다. 1936년 6월 칭다오시 공안국은 경찰국으로 바뀌었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에는 칭다오시 공안국의 사무동으로 사용되었다.



4. 한국사 관련 유적지

① 영성시(榮成市) 석도(石島) 적산(赤山) : 장보고 관련 유적지

‘국가 4A급 풍경구’인 석도 적산풍경명승구는 산둥반도 최동단인 영성시 석도구에 위치하고 있다.

산과 바다를 끼고 앉은 풍경구는 다양한 문화 유적이 있는데 면적은 12.8km²이다. 웨이하이(威海) 유일의 불교 사원인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 아시아 최대 규모의 관음동감음악분수광장(觀音動感音樂噴泉廣場)인 극악보살계(極樂菩薩界), 세계 최대의 동신상(銅神像)이라고 하는 적산명신(赤山明神, 大明聖境), 교동(膠東) 지역 역사의 변천을 반영하고 있는 민속박물관인 영성민속관(榮成民俗館), 한국 민족의 영웅이며 해상 무역가인 장보고(張保皋)의 일생과 업적을 기록한 장보



그림 169 | 적산법화원 내부 전경

고기념관, 심오한 불교문화의 전시장이며 일본 고승 엔닌(圓仁)이 구법입당(求法入唐) 시 머물렀던 적산선원(赤山禪院), 법화탑(法華塔), 민간예술관, 천문담공원(天門潭公園) 등 10대 관광지, 북방에서 가장 일찍 건립된 마조묘(媽祖廟)인 천후궁(天後宮), 보기 드문 자연 경관인 양천대불(仰天大佛), 삼림공원(森林公園), 해상낙원(海上樂園), 해빈욕장(海濱浴場), 봉황호(鳳凰湖), 화촌(花村), 화촌(畵村), 어촌(漁村) 등이 즐비해 있다.

한 마디로 종교 신앙의 성지이자, 산해경관(山海景觀)을 감상하고 도서 민속(島嶼民俗)을 체험하며, 자연 생태 환경에서 휴식의 한때를 즐길 수 있는 도화원(桃花園) 같은 곳이다. 현재 국가 4A급 관광지인 적산(赤山)관광구는 웨이하이 3대 관광지의 하나이며, 산둥 관광의 인기 관광지이자 한·일 양국 관광객들의 산둥 관광의 주요 목적지다.

10대 관광구는 공간 배열이 정연하고 시설이 완벽한 특색이 있는 곳이다. 적산법화원, 적산선원, 극악보살계, 대명성경(大明聖境), 천후궁(天後宮)은 이미 산둥성 최대의 종교 문화 경관 건축군을 이루고 있다. 걸출한 인재를 수없이 배출한 천혜의 땅, 석도 적산은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유구한 역사, 풍부한 문화 자원으로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그림 170 | 적산법화원 표지석

산둥성 영성시 석도진 북부 적산 남쪽 산기슭에 위치한 법화원은 당나라 때 지어진 건물로 당나라 시기 교동 반도 최대 규모의 불교 사원 중의 하나였으나, 당 회창년간(會昌年間)에 훼멸되었다. 1987년 일본 학자들이 적산을 답사하고 영성시 인민정부 외사부 사무실의 협조로 법화원을 재건하였으며, 총 200만 위안이 투자되었다.

재건된 법화원은 주 건물의 면적이 5,000㎡이며, 당나라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고, 구조도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과 거의 같다. 대웅보전(大雄寶殿)이 산을 끼고 남향으로 자리 잡았고, 중앙에는 불교 시조 석가모니상이 있으며, 그 모양이 생동감 있고 정교하다. 중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며 중국불교협회 회장인 조박초(趙樸初)가 ‘대웅보전(大雄寶殿)’이라는 현판 글씨를 썼다.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적산법화원은 신라인 장보고가 세웠다. 장보고는 당의 무녕군(武寧軍)에 입대하여, 당나라 장수와 병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귀국 후 청해대사(淸海大使)에 임명되어, 한·중 양국의 무역 거래를 적극 주도하여 ‘해상의 실크로드’를 개척하였다. 해상 무역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해 적산에 첫 대형 사찰을 세우고, 승려들을 불러 불경을 읽게 하였는데 제일 처음으로 초청된 승려들이 천태종파(天台宗派)에 속하였고, 이들이 ‘법화경(法華經)’이라는 경전을 읽어서 이 사찰을 ‘적산법화원’으로 부르게 되었다.

839년 6월 일본 고승 엔닌법사(圓仁法師) 일행이 불경을 구하기 위해 입당하여, 법화원에서 2년 9개월간 머물렀다. 그는 귀국 후 『대당구법순례행기(大唐求法巡禮行記)』를 집필하였으며, 이 책에 적산법화원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적산법화원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엔닌과 그 제자들은 적산 주민들의 호의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일본 교토 오노산(小野山)에 적산의 이



그림 171 | 장보고전기관 표지판



그림 172 | 장보고전기관 전면 벽화

름을 딴 ‘적산선원(赤山禪院)’을 세웠다.

장보고전기관(張保皋傳記館)은 영성 적산풍경구에 있으며, 2004년 3월 적산 그룹에서 5,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건립하였다. 2005년 3월에 완공되었고, 총면적 1.3만㎡에 ‘대당추몽(大唐追夢)’, ‘무녕종군(武寧從軍)’, ‘연정적산(緣定赤山)’, ‘청해침부(淸海沉浮)’, ‘원원류(源

遠流)’의 5개 전시실과 1개의 휴게실을 갖추고 있다. 주로 장보고가 입당하게 된 시대적 배경, 무녕군에 참가하여 싸운 상황, 적산법화원 건립, 청해진 설립, 해적 소탕, 노비 매매 금지령, 해상 무역 활동의 전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8m 높이의 장보고 동상이 뜰에 세워져 있고, 전기관은 당 시대의 특색에 따라 조각한 대들보와 그림을 새겨 넣은 건물기둥이 아주 웅장하다. 건물 주위에는 장랑(長廊)이 둘러져 있고, 정자가 있는 물가에는 갖가지 화초와 수목으로 장식되어 있다.

장보고(790~841)는 신라인으로, 어릴 때



그림 173 | 장보고전기관 전경



그림 174 | 장보고 동상

부터 무예에 정통하였다. 장보고와 친한 친구 정년(鄭年)이 함께 입당(入唐)하였는데, 장보고는 무예가 뛰어났기 때문에 반란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후에 장보고는 적산을 중심으로 무역 활동을 진행하여 대량의 재물을 축적하였으며, 적산에 신라인들을 모을 수 있는 법화원 사찰을 세웠다.

장보고는 828년 귀국하여 청해진(靑海鎭)을 건립하고 해상 통로를 개척하고, 해상 국제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조선업·제조업 등을 운영하여 신라의 막강한 지방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장보고가 개척한 ‘해상의 실크로드’는 한·중·일 3국의 해상 무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적산선원(赤山禪院)은 법화원 서쪽 100여 m 거리에 있으며, 엔닌구법관(圓仁求法館)과 적산각(赤山閣)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면적 1.6만㎡, 건축 면적 3,000㎡이다. 그중 엔닌입당구법관(圓仁入唐求法館)은 ‘심모불승(心慕佛乘)’, ‘고해선벌(苦海船筏)’, ‘자각대사(慈覺大師)’, ‘구법순례(求法巡禮)’, ‘공성원만(功成圓滿)’ 등 5개의 전시실로 나뉜다. 주로 수·당 시대 불교 발전사, 엔닌법사의 입당 및 귀국 후 일본에 적산선원을 세운 과정 등의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적산각(赤山閣)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심오한 불교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1층은 석가모니상과 벽화, 2층은 감진소상(鑒真塑像), 3층은 관세음보살상이다. 산 옆에 세워진 장엄하고 숙연한 분위기의 선원(禪院)은 산과 숲, 정자와 누각이 어우러져 그 경치도 장관이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는 당나라의 정치·경제·종교·문화 및 중·일 양국 관계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를 갖고 있다.

② 봉래(蓬萊, 登州)

봉래는 고대 등주부(登州府)의 소재지로, 9개 현(縣)과 1개 주(州)를 관할한 중국 동쪽 지방의 문호 노릇을 하였다. 등주항(登州港)은 교동반도(膠東半島) 중



그림 175 | 봉래각



그림 176 | 보하이해와 황해 분계선

부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고대 북방의 중요한 대외 무역항 및 군항으로서, 동남연해의 천주(泉州)·명주(明州: 寧波)·양주(揚州)와 함께 중국 '4대 통상항구'로 불려 왔다.

또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고대 해군 기지이며, 중국 랴오둥반도와 한반도 해상 교통의 교차점이었다. 등주에서 출발하여 묘도군도(廟島群島)를 거쳐 보하이해 해협을 지나 랴오둥반도 남해안을 따라 한반도에 이르거나, 등주에서 출항하여 황해를 가로질러 한반도에 이를 수 있었다.

등주항은 육로로는 산둥반도의 동·서 양쪽의 대도(大道)와 연결되어 있어, 장안(長安)에 직접 이를 수 있었으며, 한반도에서 온 상인과 사신들은 대부분 등주를 거쳐 장안으로 갔다. 수나라 시기 일본에서 4 차례 사신을 중국에 파견하였고, 중국에서도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모두 등주항을 거쳐 갔다.

송(宋)의 천성년간(天聖年間) 이전에는 고려 사신들이 등주로 상륙하였으나, 강녕년간(熙寧年間) 이후 북쪽 요나라의 압박으로 영주(寧州, 현재 절강성 寧波)로 상륙하였다. 수·당 전성기의 등주항은 국제적인 왕래 거점으로서 경제 발전을 촉진하였고, 이후 무역항에서 군사 방어항으로 기능이 바뀐 뒤에는 왜구를 물리치고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

등주항은 전통 시대 중·한 양국 외교 활동의 관문으로, 그 지위와 역할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명 초기 해금 정책(海禁政策)으로 해상 교통이 점차 황폐화되어 갔으나, 중·한 교류가 원활치 못한 경우 등주는 항상 중국과 한반도 교류의 문호가 되었다. 명나라 말기 후금(後金)이 침략했을 때 등주항은 명과 조선의 소통 창구로 역할하였다.

등주는 장보고를 비롯한 신라인들이 당나라와 신라, 더 나아가 일본을 드나드는 주요 항구였다. 항구 소재지에는 크고 작은 규모의 신라인 부락이 산재해 있었는데, 큰 곳은 수백 명, 작은 곳은 수십 명에 달했다.

신라인 부락의 형성에 대해 천상성(陳尙勝) 교수는 「당 시기 산둥 지구의 신라교민 부락을 논함(論唐代山東地區的新羅僑民村落)」이라는 글에서, 당 태화년간(827~835) 이전 시기에는 등래(登萊) 지역의 신라인 노비 밀매가 매우 창궐했고, 당 목종(穆宗)은 신라와 당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신라 노비 교역을 엄격히 금지시켰다고 하였다. 즉, 당의 조정은 법령을 반포하여 신라 노비들을 방량(放良)하였으나, 여러 원인으로 많은 신라 노비들은 방량된 후에도 즉시 귀국하지 않고, 등주 연해 일대에서 신라인 부락을 형성했다고 한다.

산둥반도 연해 지역에 형성된 신라인 부락은, 장보고가 이끄는 황해 국제 무역 조직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신라 상인들이 상업 활동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산둥 연해 지구로 이주해 오게 되는 주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평현소촌(牟平縣邵村)·적산(赤山) 등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촌(新羅村)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산둥 연해 지구, 특히 등주는 점차 중요한 해상 무역 기지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곳은 장보고가 한·중·일 삼국 무역을 펼친 시기에 그 거점으로서 역할하였으며, 한·중 양국 간의 경제·문화 교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③ 대주산(大珠山)

대주산은 산둥성 교남시(膠南市) 남부 해안에 있다. 남북 길이 20km, 최고봉은 해발 486m, 총면적은 65km²이다. 풍경이 아름답고 날씨 변화가 무쌍하여 ‘해안명산(海岸名山)’ 또는 ‘교주제일관광지(膠州第一觀光勝地)’로 불린다.

두견화가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산속 곳곳에는 고대 거사(居士)들과 문인들의 필적이 남아 있으며, 대자연의 숨씨로 이루어진 기암괴석들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전설들이 담겨져 있다. 1994년 ‘교남시 대주산풍경구(膠南市大珠山風景區)’가 정식으로 대외적으로 개방된 후, 수당 시기에 지어진 불교 조각상 석굴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 등, 유서 깊은 인문 환경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당 시기 저명한 신라학자 최치원(崔致遠)이 귀국 길에 대주산에 머물며, 7율시(七律詩) 10수(首)를 남겼다고 한다.

그림 177 | 대주산



④ 정몽주와 일조시(日照市) 천태산(天台山)

최근 일조시 도락고진(壽離古鎭)에 있는 천태산은 ‘태양 문화(太陽文化)’로 국내외에 이름을 날리고 있다. 고고학적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면서, 천태산에 온 많은 문인들의 명단 가운데에서 고려 시대의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이름이 발견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명(明) 홍무년간(洪武年間) 고려의 유명한 문인이자 정치가인 정몽주가 6차례 명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세 번이나 명 태조를 배알하였고, 명에 있는 동안 일조시 천태산 아래에 있는 신라촌과 신라사(新羅寺)를 방문하여, 시 3수를 남겼다는 것이다.

海上孤城草樹荒，最先迎日上扶桑。我來東望仍搔首，波浪遙望接故鄉(日照縣)。

天台飄渺渤海間，不納凡人只見仙。幸得神女施法力，從此琅琊多一山(日照天台)。

饑餐紫霞渴飲露，無思無爲神自渡。朝采仙藥暮煉丹，不吐不納登仙去(天台山安期祠)。

원래 일조(日照)는 고거국(古莒國)에 속하였으며, 거국(莒國)과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교류가 빈번했다고 한다. 고거국의 찬란한 동이 문화 외에도 정몽주가 이곳을 방문한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일조현(日照縣)에 신라촌이 있었고, 거주민의 선조가 한국의 영천시(永川市)에서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IV

맺음말 : 전쟁 역사 유적에 대한 기억과 활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랴오둥반도 지역의 역사 유적

중국 랴오닝성 남부에 위치한 랴오둥반도는 만주(중국 동북) 대륙이 남단으로 뻗은 황해와 보하이해(渤海) 사이의 산간 지역을 말하는데 일명 여대 반도(旅大半島)라고 불리기도 한다. 랴오둥(遼東)이란 랴오허(遼河, 요하) 동쪽의 광대한 지역을 지칭하는 지명으로서 전국 시기 연(燕)나라가 이곳에 랴오둥 군(요동군)을 설치하면서 기원되었다.

랴오둥반도의 동북쪽은 백두산에 잇닿았고 북쪽은 압록강과 랴오허 입구를 일선으로 경계선으로 삼으며, 중부에는 반도를 관통하는 텐산(天山)산맥이 남북으로 뻗었으며, 오른쪽과 왼쪽은 각각 황해와 보하이해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산둥반도를 마주하고 있는데, 총면적은 2.16만 km²에 이르고, 주요 도시는 다롄(大連)·잉커우(營口)·단둥(丹東)을 포함하여 16개(그중에 지구급(地區級) 도시 7개, 현급(縣級) 도시 9개), 인구는 약 900만 명에 달한다.

한민족의 고대사에서 랴오둥반도는 고조선, 한사군 및 고구려 역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중국의 중원과 한반도 간 문화 교류의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랴오둥반도 북부에 위치한 랴오둥의 중진(重鎭)이었던 랴오둥성(遼東城, 요동

성은 오늘의 랴오양시(遼陽市)이다. 전국 시대(戰國時代)에 연(燕)나라가 이곳에 랴오둥군(遼東郡, 요동군)을 설치한 후, 진(秦)·한(漢)·위(魏)·진(晉)·남북조(南北朝)·수(隋)·당(唐)·요(遼)·금(金)·원(元)·명(明)·후금(後金, 淸)에 이르기까지 랴오양성(遼陽城)은 중원 왕조가 랴오둥 지역을 관할하는 중심지였다.

특히 고구려는 랴오둥(遼東, 요동)을 탈취하기 위해 약 2백여 년간 줄곧 전쟁을 하였으며 404년에 마침내 랴오둥을 점령하였다. 고구려인들은 랴오둥 지역을 장기적으로 점거하기 위해 랴오양성(遼陽城)을 중심으로 랴오둥반도에서 몇십 곳에 산성을 수축함으로써 랴오둥성과 랴오둥 지역을 수호했다. 수·당과 고구려 간의 전쟁에서 수·당 수군은 산둥반도 봉래각(蓬萊閣)에서 해상으로 랴오둥반도에 상륙하여 고구려를 전복하려고 했다.

특히, 근대에 서세동점의 위기 속에서 청나라는 북방 해안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양무운동을 주도하던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의 건의에 따라 1881년부터 약 8년 동안 뤼순구에 북양수군기지를 건설하면서부터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그 전략적 위치가 급격하게 부상하였다. 뤼순구는 당나라 때 ‘도리진(都里鎭)’, 원나라 때는 ‘사자구(獅子口)’라고 불렀는데,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은 1371년에 두 장군을 파견하여 수군을 거느리고 산둥반도 봉래각에서 배를 타고 보하이해를 건너 랴오둥에 정료도사(定僚都司, 1375년 遼東都司로 개칭함)를 설치할 때, 그 여정이 순풍에 돛을 단듯이 순조로웠기 때문에 사자구(獅子口)를 ‘뤼순구(旅順口)’라고 개칭하였다.

뤼순 군항은 중국 북방에서 열지 않는 항구이고 천연적인 요새로서 동쪽은 황금산(黃金山), 서쪽은 노호미반도(老虎尾半島), 서남쪽은 높은 노철산(老鐵山)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은폐성과 방풍성이 양호하여 전략적으로 역수난공의 군항으로서 당시 ‘북양 제1군항’으로 불리며 북양함대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곳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를 둘러싼 일본의 ‘대륙 정책’과 제정

러시아의 '남진 정책'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결국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전한 일본은 바로 관동주를 발판으로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도발하였다.

근대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한 두 차례 전쟁(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모두 뤼순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전쟁 유적지가 많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노천전쟁박물관'으로 불리고 있다. 러일전쟁에서 승전한 일본은 1906년 라오양에 설치한 관동총독부를 뤼순구로 옮겨 관동도독부로 개칭하고 대륙 침략의 교두보로 삼았다. 일본관동도독부는 전적보존위원회를 조직하여 러일전쟁 유적지를 보존하면서 일본 제국의 위상과 일본군의 '무사도 정신'을 홍보하는 장소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 구소련군이 약 10년 동안 뤼순 군항을 조차하다가 1955년에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부대에 이관하였으며, 현재는 세계 5대 군항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다렌 지역 뤼순구에 있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전쟁 유적지와 기념 시설, 그리고 전시관 및 박물관은 국가급 혹은 성급 애국주의교육기지·애국국방교육기지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관동군사령부박물관, 뤼순 일본러시아감옥 옛터 박물관, 관동지방방법원 옛터 전시관 등 일제 식민통치 기관들을 역사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뤼순 일본러시아감옥 옛터 박물관과 일본관동지방방법원 옛터 전시관은 안중근, 이회영, 신채호 등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재판받고 순국한 곳으로 해마다 한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그리고 단둥에 있는 압록강단교, 향미원조기념관 및 향미원조열사능원 등 전쟁 유적·기념 시설물들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업적을 선양하는 애국교육기지와 관광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장하시(庄河市)의 화원구기념비(花園口紀念碑), 뤼순구(旅順口)의 토성자저격전기념비(土城子狙擊戰紀念碑), 금주(金州)의 석문자저격전기념비(石門子狙擊戰紀念碑) 등 일부 전쟁 유적지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랴오둥반도는 다롄을 출해구로 삼고 랴오닝성 대중형 기업의 90%, 도시 인구와 고정 자산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고, 랴오닝성 전체 경제 총생산액의 85%를 점하는 중요한 경제 지역으로 도약하면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다롄을 중심으로 다롄-잉커우-단동의 경제 삼각구를 형성함으로써 중국 동북 지역의 미래 경제 발전과 관광 산업이 가장 큰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 주목된다.



2. 산둥반도 지역의 역사 유적

제(齊)나라(도읍: 淄博)와 노(魯)나라(도읍: 曲阜)가 있었던 산둥반도 지역은 일찍부터 문화가 발달한 지역으로 손꼽히며, 문화 관광 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오악지수(五嶽之首)인 태산(泰山), 칭다오(靑島)의 노산(嶗山), 교동반도(膠東半島)의 3개의 풍경구(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를 주요 관광지로 꼽는데, 그 가운데에서 태산과 공자(孔子)의 탄생지인 곡부(曲阜)가 ‘동방성성(東方聖城)’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고, 공부(孔府)·공묘(孔廟)·공림(孔林)이 유네스코 선정 ‘세계 문화유산’에 포함되었다. 또 제남(濟南)·칭다오(靑島)·곡부(曲阜)·요성(聊城)·치박(濰博)·추성(鄒城)은 중국 역사 문화의 명승지로 선정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산둥의 관광업은 제남(濟南)·태안(泰安)·곡부(曲阜)·추성(鄒城)을 주선(主線)으로 하는 ‘산수성인(山水聖人)관광구역’, 칭다오·옌타이·웨이하이를 하나로 이어놓은 ‘황해연안(黃海沿岸)관광구역’, 유방(濰坊)·치박(濰博)을 하나로 잇는 ‘천리민속관광선(千裏民俗觀光線)’의 ‘양구일선(兩區一線)’ 구도를 형성하였다. 산둥반도 지역 근현대사 유적지는 ‘황해연안관광구역’에 속한다.

산둥 지역에서 산둥반도의 칭다오와 옌타이는 1980년대에 개방 도시로 선

정되었고, 웨이하이는 1990년대 이후부터 급속한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경제 개방 도시로 주목받아 왔고 연해 도시로서 많은 관광객의 주목을 끌었다.

따라서 칭다오·엔타이·웨이하이 등지는 문화적 관광 자원보다는 피서 및 휴양지로서의 자원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고, 문화적인 관광은 제남·곡부·태산 및 치박·추성 등지를 중심으로 고대 문화 관광지 개발에 중심을 두었다. 이는 산둥 지역의 문화 자원 개발 정책에서 근현대 유적지보다는 고대 유적지의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혁명전통교육’을 중시하게 되면서, 이른바 ‘홍색관광(紅色旅遊)’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중국 공산당 주도하의 항일 전적지 등 관광 자원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애국주의 교육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 역시 관광 자원의 주요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고대사와 현대사 관련 유적지에 대한 개발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근현대 문화 유적지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1861년 엔타이항의 개항을 기점으로 하여, 산둥반도의 웨이하이·엔타이·칭다오 지역의 근현대사 관련 유적지가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890년대 이전까지는 산둥반도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유적지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 1890년대 이후 시기의 유적지다. 특히 1894~1895년 간의 청일전쟁의 현장인 웨이하이의 유공도는 제일 중요한 근현대사 유적지로서 일찍부터 개발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엔타이의 동포대·서포대·엔타이산 등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 전쟁과 관련된 유적지는 아직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엔타이에 오는 다수 관광객들이 이곳 유적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는 서포대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는 역사의식이 있는 제대로 된 관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칭다오의 근현대사 관련 유적지의 상황도 엔타이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칭다오의 근현대사 관련 관광지 다수가 독일·일본의 침략과 관련된 것이며, 웨이하이와 엔타이에 비해 양이나 규모 면에서 비교될 수 없는 것이지만, 소수의 유적지를 제외하고는 관광객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위에서 살핀 유적지는 주로 포대·보루·병영 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광객의 흥미를 끌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또한 산둥반도 지역의 칭다오·엔타이·웨이하이로 찾는 관광객들은 해수욕 및 피서를 위해 그곳을 가기 때문에 역사 유적지에 대한 관심이 미약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쟁 유적에 대한 기억과 활용

이 책은 청일·러일전쟁 관련 유적지와 기념물의 위치, 규모, 보존 상태, 구조, 교통편, 안내 설명문의 내용, 전시 시설과 전시 내용의 검토·확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쟁 유적지의 각종 구조물에 대한 사진 촬영 작업과 향후 탐방 코스로 활용하는 데 참고할 만한 제반 사항을 포괄하여 전쟁 유적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더불어 관련 유적지와 기념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정리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한·중·일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상호 간 역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쟁 유적지를 활용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다.

따라서 향후 한·중·일 동북아시아 세 나라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답사, 탐방, 관광, 수학여행 등의 형태)를 유도할 수 있는 '현장 가이드북' 형태의 유적지 및 기념물의 조사 자료집을 작성하였다.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에 남아 있는 전쟁 유적지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교사와 학생,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동북아의 평화 공존을 위한 지향점과 관련하여 중국 랴오둥·산둥반도 등지에 있는 유적(지)

및 기념물,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의 가치와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동북아 평화의 구현이라는 절실한 명제의 실천을 위해, 각종 유적(址) 및 기념 시설, 박물관 등을 어떻게 선순환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향후 보다 정리된 분석과 심화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랴오둥·산둥반도 일대의 역사 유적을 충분히 조사 연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에 남아 있는 전쟁 유적에 대한 기억과 기념,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있고, 논자에 따라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구축해야 하는 당위성을 놓고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21세기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19세기 말~20세기 전반기에 있었던 엄청난 인재(人災)인 청일·러일전쟁 등 국제 전쟁의 뼈아픈 교훈을 되새기고, 한·중·일 사이의 단기적 갈등을 극복하면서 장기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한 선린 우호 구축이 시급하다고 본다.

부록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록 1

1) 라오등반도 지역(다렌·뤼순·단둥) 근대 전쟁 유적·유물·기념 시설 탐방코스

지역	소요시간	교통수단	근대 전쟁 유적·유물·기념 시설	비고
다렌시 구역	오전 1시간 소요	전용버스	① 星海廣場 ② 老虎灘(다렌시 해변 관광풍경구) ③ 寶海路(다렌시 해변 관광풍경구) ④ 조선은행지점 옛 건물 (中山路中國工商銀行) ⑤ 우당 이회영이 체포된 수상경찰서 옛 건물 ⑥ 石門子阻擊戰紀念碑	(1박 2일) 다렌→뤼순으로 이동 과정의 유람 관광코스
뤼순	오전	전용버스	① 旅順日俄監獄舊址博物館 ② 旅順日本關東地方法院舊址陳列館 ③ 白玉山塔遺跡 ④ 白玉神社納骨祀 유적 ⑤ 甲午古炮 ⑥ 旅順萬忠墓紀念館 ⑦ 水師營會見所舊址 ⑧ 旅順大和旅館	
	오후	전용버스	① 東鷄冠山堡壘 유적 ② '203高地' 유적 ③ 電岩炮台 유적 ④ 望台炮台 ⑤ 南子彈庫 유적 ⑥ 蘇軍烈士陵園과 제정 러시아公墓 ⑦ 日本關東軍司令部舊址博物館 ⑧ 中蘇友誼塔	
다렌→뤼순	4시간 소요	전용버스	① 土城子阻擊戰紀念碑 ② 花園口紀念碑	다렌→단둥 이동 과정에 전쟁 유적 관광
단둥	오후	전용버스	① 鴨綠江斷橋 ② 丹東抗美援朝紀念館 ③ 丹東抗美援朝烈士陵園 ④ 怡隆洋行舊址	

2) 산둥반도 지역(웨이하이·엔타이·칭다오) 근대 전쟁 유적·유물·기념 시설 탐방코스

(1) 대중교통 이용

① 개별 도시별 '1일' 탐방코스 (1)

관광 도시	코스 및 관광지	체류 도시	교통편
엔타이	아침: 한국→엔타이 오전: 동포대 오후: 엔타이산공원, 서포대 저녁: 海濱廣場 음악분수	엔타이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시내로 이동 시내버스 및 택시, 자전거 이용 가능
봉래	오전: 한국→엔타이 오후: 봉래로 이동 후 봉래각 관광	엔타이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시내로 이동 엔타이-봉래, 버스 이용(20위안) 첫차: 5시 30분, 20분 간격으로 출발 운행시간: 약 1시간 출발지: 煙台青年路長途車站, 北馬路 汽車站 도착지: 蓬萊長途汽車站 봉래 도착 후 택시로 관광지 이동
웨이하이	오전: 한국→엔타이공항 한국→웨이하이공항 오후: 劉公島 (중일갑오전쟁 관련 유적지) “定遠艦景區”	웨이하이	(엔타이공항 도착 시) 공항버스 이용, 버스터미널로 이동 (30~40분) 엔타이-웨이하이, 버스 이용(30위안) 첫차 6시 출발, 30분 간격으로 발차 운행시간: 약 1시간 출발지: 煙台汽車總站 도착지: 影視城 도착 후 택시 이용 부두로 이동 (웨이하이공항 도착 시) 공항버스 이용 부두로 이동 부두에서 바로 劉公島(20분) 도착
칭다오	오전: 한국→칭다오 칭다오영빈관, 신호산공원, 독일領事館舊址 혹은 棧橋, 샤오칭다오, 칭다오산포대 유 적	칭다오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시내로 이동 시내버스, 택시, 자전거 이용 가능

② 개별 도시별 '1일' 탐방코스 (2)

관광 도시	코스 및 관광지	체류 도시	교통편
엔타이 봉래	아침: 한국→엔타이 오전: 동포대, 엔타이산공원 점심 식사 후 봉래로 이동 오후: 봉래각 관광 저녁: 海濱廣場 음악분수	엔타이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시내로 이동 엔타이-봉래, 버스 이용(20위안) 첫차: 5시 30분, 20분 간격으로 출발 운행시간: 약 1시간 출발지: 煙台青年路長途車站, 北馬路 汽車站 도착지: 蓬萊長途汽車站 도착 후 택시로 관광지 이동

③ 개별 도시별 '1박 2일' 탐방코스

관광 도시	코스 및 관광지	체류 도시	교통편
엔타이 봉래	첫째 날 오전: 한국→엔타이 동포대 관광 오후: 엔타이산공원, 서포대, 張裕술문화박물관 저녁: 海濱廣場 음악분수 엔타이호텔 투숙	엔타이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시내로 이동 시내버스, 택시, 자전거 이용 가능
	둘째 날 오전: 엔타이→봉래 봉래각 등 관광 오후: 봉래 海底世界 관광 및 엔타이 귀환		

엔타이 웨이하이	<p>첫째 날 오전: 한국→엔타이 동포대 관광 오후: 엔타이산공원, 서포대, 張裕술문화박물관 저녁: 海濱廣場 음악분수대 호텔 투숙</p>	엔타이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시내로 이동 시내버스, 택시, 자전거 이용 가능
	<p>둘째 날 오전: 엔타이→웨이하이 “定遠艦景區” 오후: 劉公島(중일갑오전쟁 관련 유적지)</p>		엔타이-웨이하이, 버스 이용(30위안) 첫차: 6시, 30분 간격으로 출발 운행시간: 약 1시간 출발지: 煙台汽車總站 도착지: 影視城 도착 후 택시로 “定遠艦景區” 이동
웨이하이 석도	<p>첫째 날 오전: 한국→웨이하이공항 오후: 劉公島(중일갑오전쟁 관련 유적지) “定遠艦 景區” 저녁: 웨이하이호텔 투숙</p>	웨이하이	웨이하이공항 도착 후 공항버스 이용 부두로 이동, 부두에서 배로 劉公島 이동 (20분)
	<p>둘째 날 웨이하이→석도 張保皋傳記館, 赤山禪院, 法 華院</p>		웨이하이-석도, 버스 이용(15위안) 첫차: 5시, 15분 간격으로 출발 운행시간: 1시간 30분 호텔에서 택시 이용 長途汽車站 이동 출발지: 威海長途汽車站短途乘車大廳 도착지: 石島長途汽車站 도착 후 택시로 관광지 이동

④ 개별 도시별 '2박 3일' 탐방코스

관광 도시	코스 및 관광지	체류 도시	교통편
엔타이 봉래 웨이하이	첫째 날 오전: 한국→엔타이 동포대 관광 오후: 엔타이산공원, 서포대, 張裕술문화박물관 저녁: 海濱廣場 음악분수 엔타이호텔 투숙	엔타이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시내로 이동 시내버스, 택시, 자전거 이용 가능
	둘째 날 오전: 엔타이→봉래 봉래각 등 관광 오후: 봉래 海底世界 관광 후 엔타이 귀환 저녁: 엔타이호텔 투숙	엔타이	엔타이-봉래, 버스 이용(20위안) 첫차: 5시 30분, 20분 간격으로 출발 운행시간: 약 1시간 출발지: 煙台青年路長途車站, 北馬路 汽車站 도착지: 蓬萊長途汽車站 도착 후 택시로 관광지 이동, 봉래에서 버스로 엔타이 이동
	셋째 날 오전: 엔타이→웨이하이 “定遠艦景區” 오후: 劉公島(중일갑오전쟁 관련 유적지)		엔타이-웨이하이, 버스 이용(30위안) 첫차: 6시, 30분 간격으로 출발 운행시간: 약 1시간 출발지: 煙台汽車總站 도착지: 影視城 도착 후 택시로 “定遠艦景區” 이동, 부 두에서 바로 劉公島로 이동(20분)

엔타이 웨이하이 석도	<p>첫째 날 오전: 한국→엔타이 동포대 관광 오후: 엔타이산공원, 서포대, 張裕술문화박물관 저녁: 海濱廣場 음악분수 엔타이호텔 투숙</p>	엔타이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시내로 이동 시내버스, 택시, 자전거 이용 가능
	<p>둘째 날 오전: 엔타이→웨이하이 “定遠艦景區” 오후: 劉公島 (중일갑오전쟁 관련 유적지)</p>	웨이하이	엔타이-웨이하이, 버스 이용(30위안) 첫차: 6시, 30분 간격으로 출발 운행시간: 약 1시간 출발지: 煙台汽車總站 도착지: 影視城 도착 후 택시로 “定遠艦景區”로 이동
	<p>셋째 날 웨이하이→석도 張保皋傳記館, 赤山禪院, 法華院</p>		웨이하이-석도, 버스 이용(15위안) 첫차: 5시, 15분 간격으로 출발 운행시간: 1시간 30분 호텔에서 택시로 長途汽車站 이동 출발지: 威海長途汽車站短途乘車大廳 도착지: 石島長途汽車站 도착 후 택시로 관광지로 이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⑤ 웨이하이, 옌타이, 칭다오를 탐방하는 '3박 4일' 코스 (1)

관광 도시	코스 및 관광지	체류 도시	교통편
	<p>첫째 날 오전: 한국→옌타이 동포대 관광 오후: 옌타이산공원, 서포대, 張裕술문화박물관 저녁: 海濱廣場 음악분수 옌타이호텔 투숙</p>	옌타이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시내로 이동 시내버스, 택시, 자전거 이용 가능
	<p>둘째 날 오전: 옌타이→봉래 봉래각 등 관광 오후: 봉래 海底世界 관광 및 옌타이 귀환 저녁: 옌타이호텔 투숙</p>	옌타이	옌타이-봉래, 버스 이용(20위안) 첫차: 5시30분, 20분 간격으로 출발 운행시간: 약 1시간 출발지: 煙台青年路長途車站, 北馬路 汽車站 도착지: 蓬萊長途汽車站 도착 후 택시로 관광지 이동, 봉래에서 버스로 옌타이 이동
옌타이 봉래 웨이하이 칭다오	<p>셋째 날 오전: 옌타이→웨이하이 “定遠艦景區” 오후: 劉公島(중일갑오전쟁 관련 유적지) 관광 후, 웨이하이 출발, 칭다오 도착 저녁: 칭다오호텔 투숙</p>	칭다오	옌타이-웨이하이, 버스 이용(30위안) 첫차: 6시, 30분 간격으로 출발 운행시간: 약 1시간 출발지: 煙台汽車站 도착지: 影視城 도착 후 택시로 “定遠艦景區”로 이동 부두에서 배로 유공도 이동(20분) 관광지에서 택시 이용, 버스터미널로 이동 웨이하이-칭다오, 버스 이용(80위안) 첫차: 6시, 30분 간격으로 출발 운행시간: 약 3시간 30분 출발지: 威海長途汽車站 도착지: 青島四方汽車站
	<p>넷째 날 오전: 칭다오영빈관, 칭다오 신호산공원, 기독교회 당 오후: 德國領事館舊址, 棧 橋, 사오칭다오, 칭다 오산포대 유적</p>		시내버스, 택시, 자전거 이용 가능

⑥ 웨이하이, 옌타이, 칭다오를 탐방하는 '3박 4일' 코스 (2)

관광 도시	코스 및 관광지	체류 도시	교통편
칭다오 옌타이 봉래 웨이하이	첫째 날 오전: 한국→칭다오 칭다오영빈관, 칭다오 신호산공원, 기독교회 당 오후: 德國領事館舊址, 棧 橋, 샤오칭다오, 칭다 오산포대 유적 저녁: 칭다오호텔 투숙	칭다오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시내로 이동 시내버스, 택시, 자전거 이용 가능
	둘째 날 오전: 칭다오→옌타이 오후: 옌타이산공원, 동포대, 서포대 저녁: 옌타이호텔 투숙	옌타이	칭다오-옌타이, 버스 이용(70위안) 첫차: 5시, 30분 간격으로 출발 운행시간: 약 3시간 10분 출발지: 靑島四方汽車站 도착지: 煙台汽車站 시내버스, 택시, 자전거 이용 가능
	셋째 날 오전: 옌타이→봉래 봉래각 등 관광 오후: 봉래 海底世界 관광 후 옌타이 귀환 저녁: 옌타이호텔 투숙	옌타이	옌타이-봉래, 버스 이용(20위안) 첫차: 5시 30분, 20분 간격으로 출발 운행시간: 약 1시간 출발지: 煙台靑年路長途車站, 北馬路 汽車站 도착지: 蓬萊長途汽車站 도착 후 택시로 관광지 이동, 봉래에서 버스로 옌타이 이동
	넷째 날 오전: 옌타이→웨이하이 “定遠艦景區” 오후: 劉公島(중일갑오전쟁 관련 유적지)		옌타이-웨이하이, 버스 이용(30위안) 첫차: 6시, 30분 간격으로 출발 운행시간: 약 1시간 출발지: 煙台汽車站 도착지: 影視城 도착 후 택시로 “定遠艦景區”로 이동, 부두에서 배로 유공도 이동(20분)

2) 전세버스 이용

① 개별 도시별 '일일' 탐방코스

관광 도시	코스 및 관광지	체류 도시	교통편
엔타이	아침: 한국→엔타이 오전: 동포대 오후: 엔타이산공원, 서포대 저녁: 海濱廣場 음악분수	엔타이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차 있음.
봉래	오전: 한국→엔타이 오후: 봉래 이동 및 봉래각 관광	엔타이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700~10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차 있음.
웨이하이	오전: 한국→엔타이(또는 웨이하이)공항 오후: 劉公島(중일갑오전쟁 관련 유적지) “定遠艦景區”	웨이하이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700~10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차 있음.
칭다오	오전: 한국→칭다오 칭다오영빈관, 칭다오신호산 공원, 德國領事館舊址 혹은 棧橋, 사오칭다오, 칭다오산 포대 유적	칭다오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700~10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차 있음.
엔타이 봉래	아침: 한국→엔타이 오전: 東炮台, 煙台山公園 점심식사 후 蓬萊市로 이동 오후: 봉래각 관광 저녁: 海濱廣場 음악분수	엔타이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700~10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차 있음.
엔타이 웨이하이	아침: 한국→엔타이공항 오전: 東炮台, 煙台山公園 오후: 劉公島(중일갑오전쟁 관련 유적지)	엔타이 웨이하이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700~10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차 있음.

② 개별 도시별 '1박 2일' 탐방코스

관광 도시	코스 및 관광지	체류 도시	교통편
엔타이 봉래	첫째 날 오전: 한국→엔타이 동포대 관광 오후: 엔타이산공원, 서포대, 張裕술문화박물관 저녁: 海濱廣場 음악분수 엔타이호텔 투숙	엔타이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 차 있음.
	둘째 날 오전: 엔타이→봉래 봉래각 등 관광 오후: 봉래 海底世界 관광, 엔타이 귀환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 차 있음.
엔타이 봉래 웨이하이	첫째 날 오전: 한국→엔타이 동포대, 엔타이산공원 오후: 봉래각 등 저녁: 엔타이호텔 투숙	웨이하이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 차 있음.
	둘째 날 오전: 엔타이→웨이하이 “定遠艦景區” 오후: 劉公島(중일갑오전쟁 관련 유적지)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 차 있음.
웨이하이 석도 엔타이	첫째 날 아침 한국→웨이하이공항 오전: 劉公島(중일갑오전쟁 관련 유적지) 오후: “定遠艦景區” 석도로 이동	석도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 차 있음.
	둘째 날 오전: 석도 張保皋傳記館, 赤山禪院, 法華院 오후: 석도 출발 엔타이 이 동, 동포대, 엔타이산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 차 있음.

③ 개별 도시별 '1박 2일' 탐방코스

관광 도시	코스 및 관광지	체류 도시	교통편
칭다오 엔타이	<p>첫째 날 오전: 한국→칭다오 칭다오영빈관, 칭다오 신호산공원, 기독교회 당 오후: 德國領事館舊址, 棧 橋, 샤오칭다오, 칭다 오산포대 유적 저녁: 칭다오호텔 투숙</p>	칭다오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 차 있음.
	<p>둘째 날 오전: 칭다오→엔타이 오후: 동포대, 엔타이산, 서포 대</p>		
엔타이 봉래 웨이하이	<p>첫째 날 오전: 한국→엔타이 동포대, 엔타이산공원 오후: 봉래각 등 저녁: 엔타이호텔 투숙</p>	웨이하이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 차 있음.
	<p>둘째 날 오전: 엔타이→웨이하이 “定遠艦景區” 오후: 劉公島(중일갑오전쟁 관련 유적지)</p>		
웨이하이 석도 엔타이	<p>첫째 날 아침: 한국→웨이하이 오전: 劉公島(중일갑오전쟁 관련 유적지) 오후: “定遠艦景區” 석도로 이동</p>	석도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 차 있음.
	<p>둘째 날 오전: 석도 張保皋傳記館, 赤山禪院, 法華院 오후: 석도→엔타이 동포대, 엔타이산</p>		

④ 웨이하이, 옌타이, 칭다오를 탐방하는 '2박 3일' 코스 (1)

관광 도시	코스 및 관광지	체류 도시	교통편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	<p>첫째 날 오전: 한국 → 칭다오 칭다오영빈관, 칭다오 신호산공원, 기독교회 당 오후: 德國領事館舊址, 棧 橋, 샤오칭다오, 칭다 오산포대 유적 저녁: 칭다오호텔 투숙</p>	칭다오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 차 있음.
	<p>둘째 날 오전: 칭다오 → 옌타이 오후: 옌타이산공원, 동포대, 서포대 저녁: 옌타이호텔 투숙</p>	옌타이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 차 있음.
	<p>셋째 날 오전: 옌타이 → 웨이하이 “定遠艦景區” 오후: 劉公島(중일갑오전쟁 관련 유적지)</p>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 차 있음.

⑤ 웨이하이, 옌타이, 칭다오를 탐방하는 '2박 3일' 코스 (2)

관광 도시	코스 및 관광지	체류 도시	교통편
웨이하이 옌타이 칭다오	첫째 날 오전: 한국→웨이하이 “定遠艦景區” 오후: 劉公島(중일갑오전쟁 관련 유적지) 웨이하이→옌타이	웨이하이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 차 있음.
	둘째 날 오전: 옌타이산공원, 동포대, 서포대 오후: 옌타이→칭다오	칭다오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셋째 날 오전: 한국→칭다오 도착 칭다오영빈관, 칭다오 신호산공원, 기독교회 당 오후: 德國領事館舊址, 棧 橋, 사오칭다오, 칭다 오산포대 유적	칭다오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 차 있음.

⑥ 웨이하이, 옌타이, 칭다오를 탐방하는 '3박 4일' 코스 (1)

관광 도시	코스 및 관광지	체류 도시	교통편
칭다오 옌타이 봉래 웨이하이	<p>첫째 날</p> <p>오전: 한국→칭다오 칭다오영빈관, 칭다오 신호산공원, 기독교회 당</p> <p>오후: 德國領事館舊址, 棧 橋, 사오칭다오, 칭다 오산포대 유적</p> <p>저녁: 칭다오호텔 투숙</p>	칭다오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 차 있음.
	<p>둘째 날</p> <p>오전: 칭다오→옌타이</p> <p>오후: 옌타이산공원, 동포대, 서포대</p> <p>저녁: 옌타이호텔 투숙</p>	옌타이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 차 있음.
	<p>셋째 날</p> <p>오전: 옌타이→봉래</p> <p>봉래각, 海底世界 관광</p> <p>오후: 봉래→웨이하이</p>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p>넷째 날</p> <p>오전: “定遠艦景區” 및 시내 관광</p> <p>오후: 劉公島(중일갑오전쟁 관련 유적지)</p>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 차 있음.

⑦ 웨이하이, 옌타이, 칭다오를 탐방하는 '2박 3일' 코스 (2)

관광 도시	코스 및 관광지	체류 도시	교통편
웨이하이 석도 옌타이 칭다오	<p>첫째 날</p> <p>오전: 한국→웨이하이 “定遠艦景區”</p> <p>오후: 劉公島(중일갑오전쟁 관련 유적지) 웨이하이→석도</p> <p>저녁: 석도호텔 투숙</p>	석도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 차 있음.
	<p>둘째 날</p> <p>오전: 석도 張保皋傳記館, 赤山禪院, 法華院</p> <p>오후: 석도→옌타이 옌타이산, 동포대 관광</p> <p>저녁: 옌타이호텔 투숙</p>	옌타이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 차 있음.
	<p>셋째 날</p> <p>오전: 옌타이→칭다오</p> <p>오후: 칭다오 德國領事館舊 址, 棧橋, 샤오칭다오 관광</p>	칭다오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⑧ 웨이하이, 옌타이, 칭다오를 탐방하는 3박 4일 코스

관광 도시	코스 및 관광지	체류 도시	교통편
웨이하이 석도 옌타이 봉래 칭다오	첫째 날 오전: 한국→웨이하이 “定遠艦景區” 오후: 劉公島(중일갑오전쟁 관련 유적지) 웨이하이→석도 저녁: 석도호텔 투숙	석도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 차 있음.
	둘째 날 오전: 석도 張保皋傳記館, 赤山禪院, 法華院 오후: 석도→옌타이 옌타이산, 동포대 관광 저녁: 옌타이호텔 투숙	옌타이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셋째 날 오전: 옌타이→봉래 오전 및 오후, 봉래각 관광 오후: 봉래→칭다오 저녁: 칭다오호텔 투숙	칭다오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넷째 날 오전: 한국→칭다오 칭다오영빈관, 칭다오 신호산공원, 기독교회 당 오후: 德國領事館舊址, 棧 橋, 샤오칭다오, 칭다 오산포대 유적	칭다오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⑨ 웨이하이, 엔타이, 칭다오를 탐방하는 '3박 4일' 코스

관광 도시	코스 및 관광지	체류 도시	교통편
칭다오 엔타이 봉래 웨이하이 석도	<p>첫째 날</p> <p>오전: 한국→칭다오 칭다오영빈관, 칭다오 신호산공원, 기독교회 당</p> <p>오후: 德國領事館舊址, 棧 橋, 샤오칭다오, 칭다 오산포대 유적</p> <p>저녁: 칭다오호텔 투숙</p>	칭다오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4인승 택시: 거리와 시간에 따라 가격 차 있음.
	<p>둘째 날</p> <p>오전: 칭다오→엔타이</p> <p>오후: 엔타이산, 동포대, 서포 대</p> <p>저녁: 엔타이호텔 투숙</p>	엔타이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p>셋째 날</p> <p>오전: 엔타이→봉래</p> <p>오전 및 오후, 봉래각 관광</p> <p>오후: 봉래→웨이하이</p> <p>저녁: 웨이하이 호텔 투숙</p>	웨이하이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p>넷째 날</p> <p>오전: 웨이하이→석도 張保皋傳記館, 赤山禪 院, 法華院</p> <p>오후: 석도→웨이하이 劉公島(중일갑오전쟁 관련 유적지)</p>	칭다오	7인승(別克商務車), 30인승, 40인승 등 사용료: 보통 하루에 800위안 계절·인원수·코스별 가격차 있음.

부록 2

1) 청일전쟁 참고문헌

- 広島市文化財団広島城編, 『日清戦争と広島城 : 企画展 : 広島市制施行一二〇周年・広島城築城四二〇周年記念事業』, 広島, 広島市市民局文化スポーツ部文化財課, 2009.
- 渡辺幾治郎, 『日清・日露戦争史話』, 東京, クレス出版, 2003.
- 遠藤永吉, 岡崎茂三郎合, 『日清戦争始末』, 水戸, 江湖堂, 1895.
- 由井正臣, 『軍部と民衆統合 : 日清戦争から満州事变期まで』, 東京, 岩波書店, 2009.
- 佐谷眞木人, 『日清戦争 : 「国民の誕生」』, 東京, 講談社, 2009.
- 檜山幸夫編集, 『日清事件』, 東京, ゆまに書房, 2008.
- 豊田泰, 『日清・日露戦争』, 東京, 文芸社, 2009.
- 樋口覚, 『日清戦争異聞 : 萩原朔太郎が描いた戦争』, 東京, 青土社, 2008.
- 末延芳晴, 『森鷗外と日清・日露戦争』, 東京, 平凡社, 2008.
- 原田敬一, 『日清戦争』, 東京, 吉川弘文館, 2008.
- 森富, 『日清戦争と軍医森鷗外 : 「明治二十七八年役陣中日誌」を中心として』, 松戸, 鷗出版, 2008.
- 一ノ瀬俊也, 『旅順と南京 : 日中五十年戦争の起源』, 東京, 文藝春秋, 2007.
- 大谷正, 『兵士と軍夫の日清戦争 : 戦場からの手紙をよむ』, 東京, 有志舎, 2006.
- 陸奥宗光著 ; 中塚明校注, 『蹇蹇録 : 日清戦争外交秘録』, 東京, 岩波書店, 2005.
- 吉岡吉典, 『日清戦争から盧溝橋事件』, 東京, 新日本出版社, 1998.
- 陸軍省編, 『日清戦争統計集 : 明治二十七八年戦役統計上巻1 - 下巻2』, 東京, 海路書院, 2005.
- 保々五郎, 『日清戦争實記第1巻』, 東京, 日清戦争実記刊行会, 1960.
- 小沢健志, 『写真明治の戦争』, 東京, 筑摩書房, 2001.
- 斎藤聖二, 『日清戦争の軍事戦略』, 東京, 芙蓉書房出版, 2003.
- 戴逸, 楊東梁, 華立共 ; 岩田誠一, 高美蘭共訳, 『日清戦争と東アジアの政治』, 八尾, 大阪経済法科大学出版部, 2003.
- 大濱徹也, 『庶民のみた日清・日露戦争 : 帝国への歩み』, 東京, 刀水書房, 2003.
- 黄文雄, 『近代中国は日本がつくった : 日清戦争以降, 日本が中国に残した莫大な遺産』, 東京, 光文社, 2002.

- 大日方純夫, 『開国から日清・日露まで』, 東京, 大月書店, 2002.
- 座馬斧太郎編, 『日清戦争』, 東京, 浅草座, 1894.
- 白羽祐三, 『日清・日露戦争と法律学』, 八王子, 中央大学出版部, 2002.
- 佚名輯, 『中日戦争資料』, 台北, 文海出版社, 1967.
- 王炳耀輯, 『甲午中日戦輯』, 台北, 文海出版社, 1966.
- 参謀本部編纂, 『明治二十七八年日清戦史第1巻 - 第8巻』, 東京, ゆまに書房, 1998.
- 小笠原幹夫, 『えがかれた日清戦争: 明治27・8年戦役と文学者たち』, 津山, 津山朝日新聞社, 1994.
- 田保橋潔, 『日清戦役外交史の研究』, 東京, 東洋文庫, 1951.
- 柳永益; 秋月望, 広瀬貞三訳, 『日清戦争期の韓国改革運動: 甲午更張研究』, 東京, 法政大学出版局, 2000.
- 東京都公文書館編, 『日清戦争と東京』, 東京, 東京都政策報道室都民の声部情報公開課, 1998.
- 進修太郎, 『日清戦争と経済社会』, 東京, 富山房, 1894.
- 塩島仁吉編, 田口卯吉閱, 『日清戦史第1巻 第8巻』, 東京, 経済雑誌社, 1895.
- 参謀本部編纂, 『明治二十七八年日清戦史第1巻』, 東京, 東京印刷, 1904.
- 松下芳男, 『日清戦争前後』, 東京, 白揚社, 1939.
- 小泉信三, 『支那事變と日清戦争』, 東京, 慶応出版社, 1937.
- 『日清戦争寫真圖』, 東京, 博文堂, 1894
- 出版者不明, 『日清戦争寫真圖』, 出版地不明, 発行年不明.
- 『日清戦争錦繪展観日録』, 京城, 朝鮮総督府図書館, 1937.
- 安井俊夫, 『十五年戦争への道: 自ら考える日本近代史』, 東京, 日本書籍, 1998.
- 細川嘉六, 『日清・日露兩役の現時局への教訓』, 東京, 創美社, 1938.
- 東京都編, 『日清戦争と東京』, 東京, 東京都公文書館, 1998.
- 大江志乃夫, 『東アジア史としての日清戦争』, 東京, 立風書房, 1998.
- 崔碩莞, 『日清戦争への道程』, 東京, 吉川弘文館, 1997.
- 白井久也, 『明治国家と日清戦争』, 東京, 社会評論社, 1997.
- 『日清戦争』, 東京, 人物往来社, 1965.
- 矢野仁一; 東方文化學院京都研究所編, 『日清役後支那外交史』, 京都, 東方文化學院京都研究所, 1937.
- 伊藤博文編, 『機密日清戦争』, 東京, 原書房, 1967.
- 巽来治郎, 『日清戦役外交史』, 東京, 東京専門學校出版部, 1902.
- 信夫清三郎, 『陸奥外交: 日清戦争の外交史的研究』, 東京, 叢文閣, 1935.

- 児島襄, 『日清戦争』, 東京, 文芸春秋, 1977.
- 橋川文三編, 『日清・日露の戦役』, 東京, 筑摩書房, 1970.
- 博文館, 『日清戦争實記第1編 第50編』, 東京, 博文館, 1894.
- 『日清媾和始末：附遼東半島還附始末』, 出版地不明, 福島新聞社, 1896.
- 『日清戦役記念帖』, 東京, 小川一眞, 1885.
- 東アジア近代史学会編, 『日清戦争と東アジア世界の変容上, 下』, 東京, ゆまに書房, 1997.
- 川崎三郎, 『朝鮮革新策：一名・日清開戦論』, 東京, 博文館, 1894.
- 桧山幸夫, 『日清戦争：秘蔵写真が明かす真実』, 東京, 講談社, 1997.
- 石井寛治, 『日本の産業革命：日清・日露戦争から考える』, 東京, 朝日新聞社, 1997.
- 金膺龍, 『外交文書で語る日韓併合』, 東京, 合同出版, 1996.
- 国書刊行会編, 『日清・日露戦争の時代の巻』, 東京, 国書刊行会, 1996.
- 比較史・比較歴史教育研究会編, 『黒船と日清戦争：歴史認識をめぐる対話』, 東京, 未来社, 1996.
- 井上晴樹, 『旅順虐殺事件』, 東京, 筑摩書房, 1995.
- 北原スマ子 [ほか] 編集, 『資料新聞社説に見る朝鮮：征韓論-日清戦争』, 東京, 緑蔭書房, 1995.
- 大谷正, 原田敬一編, 『日清戦争の社会史：「文明戦争」と民衆』, 大阪, フォーラム・A, 1994.
- 明治期外務省調査集成 明治期外交資料研究会編；日清講和関係調査集, 『機密外交彙報』, 東京, クレス出版, 1994.
- 明治期外務省調査集成 明治期外交資料研究会編；日清講和関係調査集 明治期外交資料研究会編, 『日清媾和始末：露独仏三国干渉要概他』, 東京, クレス出版, 1994.
- 松下芳男, 『日清戦争』, 東京, 人物往来社, 1966.
- 浜本利三郎；地主愛子編, 『日清戦争従軍秘録：80年目に公開する、その因果関係』, 東京, 青春出版社, 1972.
- 田保橋潔, 『日清戦役外交史の研究』, 東京, 刀江書院, 1951.
- 市川正明編, 『日清戦争』, 東京, 原書房, 1979.
- 田中康夫, 『戦争史』, 東京, 岩波書店, 1982.
- 信夫清三郎, 『日清戦争：その政治的・外交的観』, 東京, 南窓社, 1970.
- 中塚明, 『日清戦争の研究』, 東京, 青木書店, 1968.
- 朴宗根, 『日清戦争と朝鮮』, 東京, 青木書店, 1982.
- 尚友倶楽部調査室編, 『日清講和半年後におけるドイツ新聞記者の日本の三大臣(首相・蔵相・農商務相)訪問記』, 東京, 尚友倶楽部, 1994.

山形市史編集委員会編, 『第1 日清戦争関係資料: 日清戦争日誌, 征台従軍日記; 第2 日露戦争関係資料: 山形俘虜收容所日誌』, 山形 山形市史編集委員会, 1972.

高橋秀直, 『日清戦争への道』, 東京, 東京創元社, 1995.

杵淵信雄, 『海外の新聞にみる日韓併合』, 東京, 彩流社, 1995.

猪木正道, 『軍国日本の興亡: 日清戦争から日中戦争へ』, 東京, 中央公論社, 1995.

藤村道生, 『日清戦争前後のアジア政策』, 東京, 岩波書店, 1995.

鈴木孝一編, 『日清戦争 閔妃暗殺 凶悪殺人の時代』, 東京, 河出書房新社, 1995.

藤村道生, 『日清戦争: 東アジア近代史の転換点』, 東京, 岩波書店, 1973.

井口和起編, 『日清・日露戦争』, 東京, 吉川弘文館, 1994.

上海師範大学歴史系編著; 野原四郎, 小島晋治監訳, 『洋務運動と日清戦争』, 東京, 三省堂, 1981.

高橋秀直, 『日清戦争開戦過程の研究』, 神戸, 神戸商科大学経済研究所, 1992.

海野福寿, 『日清・日露戦争』, 東京, 集英社, 1992.

大浜徹也責任編集, 『戦争の記録』, 東京, ぎょうせい, 1992.

杵淵信雄, 『日韓交渉史: 明治の新聞にみる併合の軌跡』, 東京, 彩流社, 1992.

亀井茲明, 『日清戦争従軍写真帖: 伯爵亀井茲明の日記』, 東京, 柏書房, 1992.

片山邦雄, 『日清戦争前における日本海運の近海進出: 領事報告に見る諸相』, 神戸, 神戸商科大学経済研究所, 1985.

日本国際政治学会編, 『日清・日露戦争』, 東京, 日本国際政治学会, 1962.

藤原彰[ほか]編, 『開国〜日露戦争』, 東京, 大月書店, 1990.

大石汎, 『日清戦争中の森鷗外』, 横浜, 門土社総合出版, 1989.

鹿島守之助, 『日清戦争と三国干渉』, 東京, 鹿島研究所出版会, 1970.

後藤兼文, 『戦争』, 東京, 勁草出版サービスセンター 東京, 勁草書房, 1988.

参謀本部編, 『満州を繞る国際戦』, 東京, 鵬和出版, 1986.

宇野俊一, 『日清・日露』, 東京, 小学館, 1976.

小西四郎, 『日清戦争』, 東京, 講談社, 1977.

外山三郎, 『日清・日露 大東亜海戦史』, 東京, 原書房, 1979.

『日清戦争實記』, 東京, 博文館, 1894.

宜文, 『主編 军费花园: 甲午战争实录』, 北京, 军事谊文出版社, 2010.

李哈, 『甲午战争期间日军对清军战俘政策述论』, 辽宁大学 硕士论文, 2010.

- 谭皓,『甲午战后晚清国民心态研究』,云南大学 硕士论文,2010.
- 戚其章,『甲午战争新讲』,北京,中华书局,2009.
- 许知远,『醒来:110年的中国变革:从甲午战争到镀金年代』,武汉,湖北人民出版社,2009.
- 孙昉,『从联俄拒日到联盟日英:甲午战后中国外交(1895-1899年)』,华东师范大学 博士论文,2008.
- 王者祥,『甲午战争中日伤亡比较分析』,东北师范大学 硕士论文,2008.
- 陈悦,『碧血千秋:北洋海军甲午战史』,长春,吉林大学出版社,2008.
- 陈桦,『永远抹不去的印记:从发动甲午战争到参拜“靖国神社”』,南昌,江西人民出版社,2008.
- 高鸿志,『李鸿章与甲午战争前中国的近代化建设』,合肥,安徽大学出版社,2008.
- 戚俊杰,『为了历史的重托:中国甲午战争博物馆二十年(1985.3-2005.3)』,北京,海洋出版社,2007.
- 李剑桥,『甲午战争』,沈阳,辽海出版社,2007.
- 李少军,『甲午战争前中日西学比较研究』,武汉,湖北人民出版社,2007.
- 林伟功,『日藏甲午战争秘录:《征讨清国策案》与《甲午海战记事》』,澳门,中华出版社,2007.
- 周秀梅,『甲午战争前清政府的日本观:从决策者的知觉与错误知觉角度分析中国甲』,中山大学 硕士论文,2006.
- 姚颖冲,『甲午战争期间的《新闻报》舆论』,华东师范大学 硕士论文,2006.
- 李敬,『甲午战争期间的《字林沪报》舆论』,华东师范大学 硕士论文,2006.
- 王俊祥,『论甲午战后中朝关系演变(1895-1900)』,华东师范大学 硕士论文,2006.
- 王永娟,『甲午战争文学研究:中国近代国难文学研究之三』,北京师范大学 硕士论文,2006.
- 关捷,『中日甲午战争全史 第一卷,战前篇』,长春,吉林人民出版社,2005.
- 关捷,『中日甲午战争全史 第二-三卷,战争篇』,长春,吉林人民出版社,2005.
- 关捷,『中日甲午战争全史 第四卷,战后篇』,长春,吉林人民出版社,2005.
- 关捷,『中日甲午战争全史 第五卷,思潮篇』,长春,吉林人民出版社,2005.
- 关捷,『中日甲午战争全史 第六卷,人物篇』,长春,吉林人民出版社,2005.
- 刘玉明,『辩证看“甲午”』,北京,海洋出版社,2005.
- 官贤鹏,『甲午战争时期清军后勤研究:以陆路战场为中心』,中国人民大学 硕士论文,2005.
- 张颖,『试论美国与中日甲午战争:1894-1895』,中山大学 硕士论文,2005.
- 张鸿福,『末路王朝:中日甲午战争报告』,北京,中国文联出版社,2005.
- 李明韵,『甲午中日战争文学与中国的日本观』,北京师范大学 硕士论文,2005.
- 杨宝杰,『甲午战争与后清流』,中国人民大学 硕士论文,2005.
- 程栋,『中日第一战:甲午战争全景纪实』,天津,天津教育出版社,2005.

茅海建,『清代兵事典籍档册汇览 第七十一册』,北京,学苑出版社,2005.

(日)陆奥宗光,『甲午战争外交秘录』,台北,海峡学术出版社,2005.

(日)中塚明,『还历史的本来面目:日清战争是怎样发生的』,天津,天津古籍出版社,2004.

刘春明,『论甲午战争之前国人对外观念的转变』,武汉大学 硕士论文,2004.

孙占元,『甲午战争的和战之争』,天津,天津古籍出版社,2004.

弘治,『盛世之毁:甲午战争110年祭』,北京,华文出版社,2004.

戚其章,『甲午日谍秘史』,天津,天津古籍出版社,2004.

戚海莹,『甲午战争在威海』,天津,天津古籍出版社,2004.

王如绘,『甲午战争与朝鲜』,天津,天津古籍出版社,2004.

王守中,『威海卫与甲午战争』,济南,山东文艺出版社,2004.

王树强,『甲午战争始末』,北京,中国文史出版社,2004.

王记华,『甲午辽东鏖兵』,天津,天津古籍出版社,2004.

肖守库,『甲午战争前后捐纳舆论之考察』,河北师范大学 硕士论文,2004.

苏小东,『甲午中日海战』,天津,天津古籍出版社,2004.

苏小东,『甲午日军罪行录』,天津,天津古籍出版社,2004.

杨光,『东亚国际格局视角下的美日关系:从甲午战争到华盛顿会议』,2003.

陈鹏仁,『从甲午战争到中日战争:1894~1945』,台北,国史馆印行,1997.

季平子,『从鸦片战争到甲午战争』,台北,云龙出版社,2001.

戚其章,『国际法视角下的甲午战争』,北京,人民出版社,2001.

李延鉴,『军费花园:甲午战争实录』,北京,军事谊文出版社,1999.

『中国甲午战争博物馆学术丛书』,天津,天津古籍出版社,1999.

刘玉明,『甲午风云:中国甲午战争博物馆』,北京,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1998.

(美)唐德刚,『晚清七十年 叁,甲午战争与戊戌变法』,台北,远流出版事业公司,1998.

季平子,『从鸦片战争到甲午战争:1839年至1895年间的中国对外关系史』,上海,华东师范大学出版社,1998.

王俊彦,『掠夺的开端:日本侵略中国的甲午战争』,石家庄,花山文艺出版社,1998.

李晓菲,『忠魂:甲午战争的故事』,北京,中央民族大学出版社,1997.

杨惠萍,『国殇:从甲午战争至甲辰战争』,北京,中央民族大学出版社,1997.

- 王淑媛,『鞍山文史资料选辑·第十辑,中日甲午陆战辽海战事记』,鞍山,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鞍山市委员会文史资料研究委员会,1997.
- 石泉,『甲午战争前后之晚清政局』,北京,三联书店,1997.
- 龟井兹明,『血证:甲午战争亲历记』,北京,中央民族大学出版社,1997.
- 朱宗玉,『从甲午战争到天皇访华:近代以来的中日关系』,福州,福建人民出版社,1996.
- 王信忠,『中日甲午战争之外交背景』,上海,上海书店,1996.
- 郝瑞庭,『甲午战争全景纪实』,北京,世界知识出版社,1996.
- 孙克复,『甲午战争启示录』,沈阳,辽宁人民出版社,1995.
- 戚俊杰,『中国甲午战争博物馆:[摄影集]』,济南,山东大学出版社,1995.
- 戚其章,『甲午战争与近代中国和世界:甲午战争100周年国际学术讨论会文集』,北京,人民出版社,1995.
- 袁定基,『虎头蛇尾:中日甲午战争实录』,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1995.
- 常熟市人民政府,『甲午战争与翁同龢』,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1995.
- 国立台湾师范大学历史研究所历史学系,『甲午战争一百周年纪念学术研讨会论文集』,台北,国立台湾师范大学历史研究所历史学系,1995.
- 丛笑难,『甲午战争百年祭』,北京,华夏出版社,1994.
- 刘功成,『李鸿章与甲午战争』,大连,大连出版社,1994.
- 戚其章,『甲午战争国际关系史』,北京,人民出版社,1994.
- 戴逸,『甲午战争与东亚政治』,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4.
- 林声,『甲午战争图志』,沈阳,辽宁人民出版社,1994.
- 王冰,『甲午战争期间的俄国对日政策探微』,兰州大学 硕士论文,1994.
- 钱钢,『海葬:甲午战争100年』,台北,风云时代出版公司,1994.
- 柯平,『威海甲午战争遗址』,北京,文物出版社,1991.
- 戚其章,『甲午战争与近代社会』,济南,山东教育出版社,1990.
- 王信忠,『中日甲午战争之外交背景』,台北,文海出版社,1987.
- 戚其章,『甲午战争九十周年纪念论文集』,济南,齐鲁书社,1986.
- 黄征绘,『中日甲午战争形势图 舆图』,北京,测绘出版社,1986.
- 杨峰,『中日甲午战争』,济南,山东人民出版社,1983.
- 罗森,『早期日本游记五种:记述从闭关锁国到甲午战争四十年间的日本』,长沙,湖南人民出版社,1983.

潘兴富, 『中日甲午战争』, 沈阳, 辽宁人民出版社, 1982.

(清)文廷式, 『中日甲午战争』, 台北, 广文书局, 1981.

方遒, 『百年英烈传, 英法联军与甲午战争』, 香港, 香港朝阳出版社, 1973.

方遒, 『百年英烈传. 二, 英法联军与甲午战争』, 香港, 朝阳出版社, 1973.

(清)文廷式, 『中日甲午战争』, 台北, 广文书局, 1967.

王信忠, 『中日甲午战争之外交背景: 附日志条约附录』, 台北, 文海出版社, 1964.

章回, 『甲午战争』,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62.

陈伟芳, 『朝鲜问题与甲午战争』, 北京, 三联书店, 1959.

郑昌淦, 『中日甲午战争』, 北京, 中国青年出版社, 1957.

孙毓棠, 『中日甲午战争前外国资本在中国经营的近代工业』, 上海人民出版社, 1955.

潘向明, 『甲午战争的战略战术问题研究: 关于清朝所以失败的原因』, 中国人民大学 博士论文, 1992.

赵仁坤, 『壬午至甲午韩中关系研究: 以韩中日矛盾冲突为背景』, 中国人民大学 博士论文, 1996.

왕현중,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전략』, 동북아역사재단, 2009.

박종근, 『清日戰爭과 朝鮮: 外侵과 抵抗 清日戰爭과 朝鮮: 外侵과 抵抗』, 一潮閣, 1995.

고영자, 『청일전쟁과 대한제국: 대한제국의 몰락을 주도한 일본의 교란책』, 탕자출판사, 2006.

김기혁, 『清日戰爭의 再照明 清日戰爭의 再照明』, 翰林大學校 出版部, 1996.

한국사연구회, 『清日戰爭과 韓日關係: 日本의 對韓政策形成에 관한 研究』, 一潮閣, 1985.

동덕모, 『清日戰爭과 韓國: 清日兩國의 派兵을 中心으로』, 발행자불명, 1974.

임희재, 『清日戰爭과 女傑 閔妃』, 신필림, 1960.

한국사연구회, 『청일전쟁과 한일관계: 일본의 대한정책에 관한 연구』, 일조각, 1985.

김영수,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대립: 청일전쟁에서 한국전쟁까지』, 동북아역사재단, 200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사연구실, 『清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列強』,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한국사연구회, 『清日戰爭과 韓日關係: 日本의 對韓政策形成에 관한 研究』, 一潮閣, 1985.

유영익, 『東學農民蜂起와 甲午更張: 清日戰爭期(1894-1895) 朝鮮人 指導者들의 思想과 行動』, 一潮閣, 1998.

한국사연구회, 『清日戰爭과 韓日關係: 日本의 對韓政策形式에 관한 研究』, 일조각, 1985.

추계학술대회, 『김옥균암살, 갑오개혁, 청일전쟁 100주년 학술대회』, 발행자불명, 199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清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列強』,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변승웅, 『淸日戰爭後 日本의 對韓教育侵略에 關한 小考 淸日戰爭後 日本의 對韓教育侵略에 關한 小考』, 建國大學校 史學會, 1997.

유준수, 『淸日전쟁 . -1 淸日전쟁 . -1』, 한양문화사, 1974.

유영익, 『淸일전쟁의 재조명 淸일전쟁의 재조명』, 한림대출판부, 1997.

대한상이군경회, 『동양 60년사 . 제1권 , 신흥국일본과 淸일전쟁 동양 60년사 . 제1권』, 大韓傷痍 軍警會 서울特別市支會, 1975.

영남대학교교육대학원『동학농민운동이 淸일전쟁에 미치는 영향』, 1983.

대한상이군경회, 『新光國日本과 淸日戰爭 新光國日本과 淸日戰爭』, 1975.

병학연구회, 『淸日 露日 戰爭史』, 兵學社, 195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러일전쟁 참고문헌

- 飯倉章, 『日露戦争諷刺画大全上, 下』, 東京, 芙蓉書房出版, 2010.
- 山田朗, 『日露戦争の真実: 日本陸海軍の「成功」と「失敗」: これだけは知っておきたい』, 東京, 高文研, 2010.
- 榊原貴教編輯, 『近代日本軍隊関係雑誌集成日録: マイクロフィルム版』, 東京, ナダ書房, 1991.
- 和田春樹 [ほか] 編集委員, 『日露戦争と韓国併合: 19世紀末-1900年代』, 東京: 岩波書店, 2010.10. - (岩波講座東アジア近現代通史)』, 2010.
- 小野寺龍太, 『日露戦争時代のある医学徒の日記: 小野寺直助が見た明治』, 福岡, 弦書房, 2010.
- 新人物往来社編, 『軍談秋山真之の日露戦争回顧録』, 東京, 新人物往来社, 2010.
- 石和静著; 金容権訳, 『風刺画にみる日露戦争』, 東京, 彩流社, 2010.
- 関沢まゆみ編, 『戦争記憶論: 忘却, 変容そして継承』, 京都, 昭和堂, 2010.
- 平間洋一編, 『日露戦争を世界はどう報じたか』, 東京, 芙蓉書房出版, 2010.
- 丸山泰明, 『凍える帝国: 八甲田山雪中行軍遭難事件の民俗誌』, 東京, 青弓社, 2010.
- フランシス・マカラ著; 陸軍大學校將校集會所譯, 『胡朔隊=從軍記: 全』, 東京, 陸軍大學校將校集會所, 1908.
- 大竹博吉譯, 『日露戦争と露西亞革命: ウイッテ伯回想記上, 中, 下』, 東京, 南北書院, 1931.
- 渡辺幾治郎, 『日清・日露戦争史話』, 東京, クレス出版, 2003.
- I.I.ロストローフ編; 大江志乃夫監修; 及川朝雄訳, 『ソ連から見た日露戦争』, 東京, 原書房, 2009.
- 陸戦史研究普及会, 『旅順要塞攻略戦』, 東京, 原書房, 1969.
- 和田春樹, 『日露戦争: 起源と開戦上, 下』, 東京, 岩波書店, 2009.
- 片山慶隆, 『日露戦争と新聞: 「世界の中の日本」をどう論じたか』, 東京, 講談社, 2009.
- 偕行社編纂部編, 『戦争秘話(日露戦役第1輯)』, 東京, 偕行社, 1935.
- 須山幸雄, 『天皇と軍隊: 明治篇: 「大帝」への道・日清日露戦争』, 東京, 芙蓉書房, 1985.
- 山田朗, 『世界史の中の日露戦争』, 東京, 吉川弘文館, 2009.
- 豊田泰, 『日清・日露戦争』, 東京, 文芸社, 2009.
- コンスタンチン・サルキソフ著; 鈴木康雄訳, 『もうひとつの日露戦争: 新発見・バルチック艦隊提督の手紙から』, 東京, 朝日新聞出版, 東京, 朝日新聞出版, 2009.
- 岩崎晋, 『戦場からの手紙: 日露戦争最前線の軍医から新妻へ』, 鎌倉, 港の人, 2008.

- 末延芳晴, 『森嶋外と日清・日露戦争』, 東京, 平凡社, 2008.
- 福田和也, 『日露戦争と乃木希典の死』, 東京, 文藝春秋, 2008.
- 参謀本部第四部編纂, 『明治三十七八年役露軍之行動第6巻』, 東京, 偕行社, 1908.
- 遠藤源六, 『日露戦役国際法論: 全』, 東京, 明治大學出版部- 東京, 有斐閣書房 (發賣), 1908.
- 岡本隆司, 『世界のなかの日清韓関係史: 交隣と属国、自主と独立』, 東京, 講談社, 2008.
- 奥武則, 『露探 (ロタン): 日露戦争期のメディアと国民意識』, 東京, 中央公論新社, 2007.
- 東アジア近代史学会編, 『日露戦争と東アジア世界』, 東京, ゆまに書房, 2008.
- 中村義, 『川柳のなかの中国: 日露戦争からアジア・太平洋戦争まで』, 東京, 岩波書店, 2007.
- 陸軍省編纂, 『明治卅七八年戦役陸軍政史第一巻』, 東京, 湘南堂書店, 1983.
- 崔文衡, 子安宣邦, 『歴史の共有体としての東アジア: 日露戦争と日韓の歴史認識』, 東京, 藤原書店, 2007.
- 伊井春樹, 『ゴードン・スミスの見た明治の日本: 日露戦争と大和魂』, 東京, 角川学芸出版- 東京, 角川グループパブリッシング, 2007.
- 原田敬一, 『日清・日露戦争』, 東京, 岩波書店, 2007.
- 靖国神社編, 『日露戦争百年』, 東京, 靖国神社, 2005.
- 山梨学院大学ポーツマス講和100周年記念プロジェクト編, 『日露戦争とポーツマス講和: 山梨学院創立60周年記念誌』, 甲府, 山梨学院大学, 2006.
- 小笠原長生述, 『日露戦争軍事談片』, 東京, 春陽堂, 1905.
- 朝鮮史研究会編, 『朝鮮植民地化過程の再検討: 日露戦争から「併合」へ』, 国立: 朝鮮史研究会. - 東京: 緑蔭書房, 2006.
- 斎藤聖二, 『北清事変と日本軍』, 東京, 芙蓉書房出版, 2006.
- 偕行社日露戦史刊行委員会編, 『大国ロシアになぜ勝ったのか: 日露戦争の真実』, 東京, 芙蓉書房出版, 2006.
- 米国大使館広報文化局報道出版部編集, 『ローズヴェルトと日露戦争 / E. パーソンズ[著]』, 東京, 好学社, 1970.
- 中村勝範, 『日露戦争勝利の世界史に及ぼした影響』, 大阪, 国民會館, 2005.
- 田畑則重, 『日露戦争に投資した男: ユダヤ人銀行家の日記』, 東京, 新潮社, 2005.
- 読売新聞取材班, 『検証日露戦争』, 東京, 中央公論新社, 2005.
- 黒岩比佐子, 『日露戦争勝利のあとの誤算』, 東京, 文藝春秋, 2005.
- 清水美和, 『「驕る日本」と闘った男: 日露講和条約の舞台裏と朝河貫一』, 東京, 講談社, 2005.

産経新聞取材班,『日露戦争：その百年目の真実』,東京,産経新聞ニュースサービス-東京,扶桑社,2004.

イアン・ハミルトン;松本泰譯,『思ひ出の日露戦争』,東京,平凡社,1935.

防衛庁防衛研究所編集,『日露戦争と世界：100年後の視点から』,東京,防衛庁防衛研究所,2005.

溝上定男;溝上國義編,『日露戦争従軍記：軍医の陣中日記』,京都,思文閣出版,2004.

木下和寛,『メディアは戦争にどうかかわってきたか：日露戦争から対テロ戦争まで』,東京,朝日新聞社,2005.

本多熊太郎,『魂の外交：日露戦争に於ける小村侯』,東京,千倉書房,1938.

黒澤禮吉;尚友俱樂部調査室編,『日露戦争思出乃記：ミスチェンコ騎兵大集団営口逆襲実見記』,東京,黒澤禮太郎,1936.

日露戦争研究会編,『日露戦争研究の新視点』,横浜,成文社,2005.

安田浩,趙景達編,『戦争の時代と社会：日露戦争と現代』,東京,青木書店,2005.

コリアーズ編;小谷まさ代訳,『米国特派員が撮った日露戦争』,東京,草思社,2005.

スヴェン・サラー,稲葉千晴編;フロリアン・クルマス [ほか]著;辻英史訳,『ヨーロッパから見た日露戦争：版画新聞、絵葉書、錦絵：日露戦争百周年記念展覧会』,東京,ドイツ-日本研究所,2005.

吹浦忠正,『捕虜たちの日露戦争』,東京,日本放送出版協会,2005.

下関市立美術館編,『日本絵画：20世紀の草創：日清-日露戦争の時代』,下関,下関市立美術館,2004.

加藤陽子,『戦争の論理：日露戦争から太平洋戦争まで』,東京,勁草書房,2005.

茂沢祐作,『ある歩兵の日露戦争従軍日記』,東京,草思社,2005.

山室信一,『日露戦争の世紀：連鎖視点から見る日本と世界』,東京,岩波書店,2005.

横手慎二,『日露戦争史：20世紀最初の大国間戦争』,東京,中央公論新社,2005.

崔文衡;金成浩,齊藤勇夫訳,『閔妃は誰に殺されたのか：見えざる日露戦争の序曲』,東京,彩流社,2004.

沼田多稼藏,『日露陸戦新史』,東京,芙蓉書房出版,2004.

露国海軍軍令部編纂;帝国海軍軍令部翻訳;セット,『千九百四、五年露日海戦史上巻,下巻』,東京,芙蓉書房出版,2004.

原剛監修,『秘蔵日露陸戦写真帖：旅順攻防戦』,東京,柏書房,2004.

平間洋一,『日露戦争が変えた世界史：「サムライ」日本の一世紀』,東京,芙蓉書房出版,2004.

- ウッドハウス暎子, 『日露戦争を演出した男モリソン上, 下』, 東京, 新潮社, 2004.
- 國分種徳, 梅田又次郎, 田山録弥著; 博文館編輯局編, 『訂正日露戦史第1巻』, 東京, 博文館, 1907.
- 福田和也, 『乃木希典』, 東京, 文藝春秋, 2004.
- 青木彰, 『司馬遼太郎と三つの戦争: 戊辰・日露・太平洋』, 東京, 朝日新聞社, 2004.
- 多門二郎, 『日露戦争日記』, 東京, 芙蓉書房出版, 2004.
- 長山靖生, 『日露戦争: もうひとつの「物語」』, 東京, 新潮社, 2004.
- 崔文衡著; 朴晝熙訳, 『日露戦争の世界史』, 東京, 藤原書店, 2004.
- 小森陽一, 成田龍一編著; 木下直之[ほか著], 『日露戦争スタディーズ』, 東京, 紀伊國屋書店, 2004.
- 島貫重節, 『戦略・日露戦争上, 下』, 東京, 原書房, 1980.
- 寺本康俊, 『日露戦争以後の日本外交: パワー・ポリティクスの中の満韓問題』, 東京, 信山社出版, 1999.
- 馬場明, 『日露戦争後の満州問題』, 東京, 原書房, 2003.
- 齋藤聖二, 『日清戦争の軍事戦略』, 東京, 芙蓉書房出版, 2003.
- 長瀬隆, 『日露領土紛争の根源』, 東京, 草思社, 2003.
- 伊藤整, 『日露戦争の時代』, 東京, 講談社, 1996.
- 大濱徹也, 『庶民のみた日清・日露戦争: 帝国への歩み』, 東京, 刀水書房, 2003.
- 片岡正實, 『御座候: 濟々巒日露戦役記念帖解読作業を通して見た「明治」』, 熊本, 濟々巒日露戦役記念帖編集委員会, - 東京, 同成社, 2001.
- 大日方純夫, 『開国から日清・日露まで』, 東京, 大月書店, 2002.
- 中西立太, 『日本の軍装: 幕末から日露戦争 1841-1929』, 東京, 大日本絵画, 2001.
- 白羽祐三, 『日清・日露戦争と法律学』, 八王子, 中央大学出版部, 2002.
- 中田昭栄, 『魯迅、鴉外、ソフィア、明石、滔天と日露戦争: 愛と哀しみと旅立ちの歌』, 東京, 郁朋社, 2001.
- 朝河貫一原著; 矢吹晋著・編訳, 『ボーツマスから消された男: 朝河貫一の日露戦争論』, 東京, 東信堂, 2002.
- 大江志乃夫, 『世界史としての日露戦争』, 東京, 立風書房, 2001.
- 吉田恵吾, 『創出の航跡: 日露海戦の研究』, 東京, 本田技研工業・共創フォーラム - 東京, すずさわ書店, 2000.
- 黒澤禮吉著; 尚友倶楽部調査室編, 『日露戦争思出乃記: ミスチェンコ騎兵大集団營口逆襲実見記』, 東京, 尚友倶楽部, 2001.

- カール・ヘルフェリッヒ述, 『日露戦争と歐洲金融界』, 東京, 東京銀行集會所, 1907.
- 大竹博吉監修, 『ウイッテ伯回想記日露戦争と露西亞革命上, 中, 下』, 東京, ロシア問題研究所, 1930.
- 『日露戦争と第1次世界大戦』, 東京, 朝日新聞社, 2000.
- 大濱徹也監修; 芥々巽日露戦役記念帖編集委員会編, 『日露戦争従軍将兵の手紙』, 東京, 同成社, 2001.
- 沼津市明治史料館編, 『沼津市域にみる日清・日露戦争: 明治の戦争と民衆: 企画展解説書』, 沼津, 沼津市明治史料館, 1990.
- カール・ヘルフェリッヒ原著; 森孝三口訳; 尾崎茂筆記, 『日露之戦資: 日露戦争ノ財政的方面』, 台北, 台湾日日新報社, 1906.
- 伊藤之雄, 『立憲国家と日露戦争: 外交と内政: 1898~1905』, 東京, 木鐸社, 2000.
- 戸水寛人述, 『世界の大大勢と日露戦争の結末』, 東京, 有斐閣, 1905.
- レンガート; 才神時雄編著, 『旅順: 松山の歌』, 東京, 新時代社, 1974.
- 大竹博吉譯纂, 『滿洲と日露戦争: 外交秘録』, 東京, ナウカ社, 1933.
- 酒井修一編, 『日露戦争写真集』, 東京, 新人物往来社, 1987.
- 東京日日新聞社, 大阪毎日新聞社編; 陸軍篇, 『參戰二十將星回顧卅年日露大戦を語る』, 東京, 東京日日新聞社, 1935.
- 戦記名著刊行會編, 『記事そのまゝ日露戦争當時の内外新聞抄』, 東京, 戦記名著刊行會, 1929.
- 福島貞子, 『日露戦争秘史中の河原操子』, 東京, 婦女新聞社, 1935.
- 澤田次郎, 『近代日本人のアメリカ観: 日露戦争以後を中心に』, 東京, 慶応義塾大学出版会, 1999.
- 林えいだい, 『杉野はいずこ: 日露戦争秘話: 英雄の生存説を追う』, 東京, 新評論, 1998.
- 井口和起, 『日露戦争の時代』, 東京, 吉川弘文館, 1998.
- 鈴木孝一編, 『日露戦争: 日本海海戦: 社会主義運動の時代』, 東京, 河出書房新社, 1995.
- 鈴木孝一編, 『日露戦争: 旅順攻防戦: 八甲田遭難の時代』, 東京, 河出書房新社, 1995.
- 中山治一, 『日露戦争以後: 東アジアをめぐる帝国主義の国際関係』, 大阪, 創元社, 1957.
- 堀真琴, 『日露戦争前後』, 東京, 白揚社, 1940.
- 松村正義, 『日露戦争と金子堅太郎: 広報外交の研究』, 東京, 新有堂, 1980.
- 大山梓, 『日露戦争の軍政史録』, 東京, 芙蓉書房, 1973.
- 大浜徹也, 『明治の墓標: 「日清・日露」一埋れた庶民の記録』, 東京, 秀英出版, 1970.
- 黒羽茂, 『日露戦争と明石工作』, 東京, 南窓社, 1976.
- 市岡太次郎著; 海軍省認可, 『日露戦役海軍寫眞帖第1巻 - 第4巻』, 東京, 小川一真出版部, 1905.
- 『露國海軍中佐クラード論文集; 其1, 其2』, 東京, 海軍軍令部, 1905.

- 梅原喜太郎, 『日露戦争とニコライ教会』, 東京, 鴻盟社, 1904.
- 『「坂の上の雲」と日露戦争』, 東京, 文芸春秋, 1972.
- 細川嘉六, 『日清・日露兩役の現時局への教訓』, 東京, 創美社, 1938.
- 外務省臨時報告員編, 『露國海軍中佐「クラウド」意見書統一, 続-2』, 東京, 外務省臨時報告委員, 1905.
- 『日露戦争ニ於ケル滿洲ノ軍政ニ關スル告示及諸法令』, 天津, 滿鐵・天津事務所, 1937.
- 『日露戦争』, 東京, 人物往来社, 1965.
- 佐世保海軍勲功表彰會, 『日露海戦記 全』, 佐世保, 佐世保海軍勲功表彰會, 1906.
- 大橋新太郎編, 『日露戦争未來記』, 東京, 博文館, 1898.
- 下村富士夫編, 『日清・日露戦争』, 東京, 世界文化社, 1967.
- 早稲田大學編輯部編纂, 『日露戦役史前編, 後編』, 東京, 早稲田大學出版部, 1905.
- 桜井忠温, 『肉弾：旅順實戦記』, 東京, 英文新誌社出版部, 1906.
- 池野藤兵衛編, 『明治の青春横川省三：日露戦争と志士群像』, 東京, 牧野出版, 1980.
- 小野寺百合子, 『私の明治・大正・昭和：戦争と平和の八十年』, 東京, 共同通信社, 1990.
- 武川寿輔, 『日露戦争の思い出』, 赤穂, 武川先生顕彰実行委員会, 1989.
- 信夫清三郎, 中山治一編, 『日露戦争史の研究』, 東京, 河出書房新社, 1972.
- 大江志乃夫, 『日露戦争と日本軍隊』, 東京, 立風書房, 1987.
- デニス・ウォーナー, ペギー・ウォーナー著；妹尾作太男, 三谷庸雄共訳, 『日露戦争全史』, 東京, 時事通信社, 1978.
- 『昭和前史・日露戦争』, 東京, 毎日新聞社, 1984.
- 東海散士, 『日露戦争羽川六郎：全』, 東京, 有朋館, 1903.
- 博文館[編], 『日露戦寫眞画報第1巻 - 第38巻』, 東京, 博文館, 1904.
- バイオフィ編；参謀本部訳, 『日露戦争巻1 - 巻10』, 東京, 軍事教育会, 1907.
- 芳川寛治, 『日露戦争及ヒ朝鮮併合ノ機密ヲ述ベ併セテ現下ノ對策ニ及ブ』, 出版地不明, 芳川寛治, 1932.
- 『日露交渉ニ關スル往復』, 東京, 外務省, 19--(출간년도 불명).
- 渡邊幾治郎, 『日清・日露戦争史話』, 東京, 千倉書房, 1937.
- 外務省臨時報告員編, 『日露事件要報』, 東京, 外務省臨時報告委員, 1904.
- タイムス軍事投書家稿；森晋太郎訳, 『タイムス日露戦争批評第1巻, 第2巻, 第3巻』, 東京, 時事新報社, 1905.
- 国書刊行会編, 『日清・日露戦争の時代の巻』, 東京, 国書刊行会, 1996.

- 趙明哲, 『日露戦争前後の政治と軍事: 中堅層の政策構想を中心に』, 東京, 東京大学日本史学研究室, 1996.
- 井口省吾文書研究会編, 『日露戦争と井口省吾』, 東京, 原書房, 1994.
- 下村富士男, 『日露戦争』, 東京, 人物往来社, 1966.
- タイムス軍事投書家稿; 森晋太郎訳, 『日露戦争批評第1巻, 第2巻, 第3巻』, 東京, 時事新報社, 1905.
- 高橋作衛, 『日露戦争国際事件要論』, 東京, 清水書店, 1905.
- 史料調査会編, 『日露戦争と第一次革命』, 東京, ロシア大革命史刊行会, 1957.
- 東京府教育會編, 『日露戦役秘録』, 東京, 博文館, 1929.
- 本多熊太郎, 『魂の外交: 日露戦争に於ける小村侯』, 東京, 千倉書房, 1941.
- 信夫清三郎, 中山治一編, 『日露戦争史の研究』, 東京, 河出書房新社, 1959.
- 『日露戦争』, 東京, 原書房, 1980.
- 『満州: 日露戦争から建国・滅亡まで』, 東京, 毎日新聞社, 1978.
- 参謀本部編, 『明治三十七・八年秘密日露戦史』, 東京, 巖南堂書店, 1977.
- 宮地正人, 『日露戦後政治史の研究』,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82.
- 福島貞子; 尚友倶楽部調査室編, 『日露戦争秘史中の河原操子』, 東京, 尚友倶楽部, 1995.
- 尚友倶楽部調査室編, 『回顧三十年日露戦争を語る』, 東京, 尚友倶楽部, 1994.
- 岩井七五郎筆; 山形市史編集委員会編, 『日露戦争従軍日記』, 山形, 山形市, 1974.
- 山形市史編集委員会編, 『第1 日清戦争関係資料: 日清戦争日誌, 征台従軍日記; 第2 日露戦争関係資料: 山形俘虜収容所日誌』, 山形, 山形市史編集委員会, 1972.
- 明治期外交資料研究会編, 『日露講和会議録; 日露講和談判筆記』, 東京, クレス出版, 1995.
- 明治期外交資料研究会編, 『日露事件外評一斑』, 東京, クレス出版, 1995.
- 明治期外交資料研究会編, 『日露交渉ニ関スル往復; 日露事件要報』, 東京, クレス出版, 1995.
- 明治期外交資料研究会編, 『日露事件要報』, 東京, クレス出版, 1995.
- 稲葉千晴, 『明石工作: 謀略の日露戦争』, 東京, 丸善, 1995.
- 桑田悦編集, 『日清・日露戦争』, 東京, 同台経済懇話会 - 東京, 紀伊國屋書店, 1995.
- 阪東宏, 『ポーランド人と日露戦争』, 東京, 青木書店, 1995.
- 三野正洋, 田岡俊次, 深川孝行, 『20世紀の戦争』, 東京, 朝日ソノラマ, 1995.
- 藤村道生, 『日清戦争前後のアジア政策』, 東京, 岩波書店, 1995.
- ロシア史研究会編, 『日露200年: 隣国ロシアとの交流史』, 東京, 流社, 1993.

- NHK編、『日露戦争』、東京、日本放送出版協会、1990.
- 外務省編纂、『日露戦争』、東京、日本国際連合協会、1958.
- 外山三郎、『日露海戦史の研究：戦記的考察を中心として上、下』、東京、教育出版センター、1985.
- 黒羽茂、『世界史上より見たる日露戦争』、東京、至文堂、1960.
- 清水威久、『ソ連と日露戦争』、東京、原書房、1973.
- 古屋哲夫、『日露戦争』、東京、中央公論社、1966.
- 井口和起編、『日清・日露戦争』、東京、吉川弘文館、1994.
- 中村均、『韓国巨文島にっぽん村：海に浮かぶ共生の風景』、東京、中央公論社、1994.
- 細川源太郎著；喜多見昭彦編、『病院船弘濟丸見聞録：日露戦争秘帖』、東京、博文館新社、1993.
- 馬場明、『日露戦争後の日中関係：共存共栄主義の破綻』、東京、原書房、1993.
- 沼田多稼蔵、『日露陸戦新史』、東京、岩波書店、1940.
- 宮地正人、『日露戦後政治史の研究第4刷』、東京、東京大学出版会、1992.
- 海野福寿、『日清・日露戦争』、東京、集英社、1992.
- 藤村欣市朗、『日露戦争と「外債募集英文日記」』、東京、福武書店、1992.
- 杵淵信雄、『日韓交渉史：明治の新聞にみる併合の軌跡』、東京、彩流社、1992.
- ソフィア・フォン・タイル；小木曾龍、小木曾美代子訳、『日露戦争下の日本：ロシア軍人捕虜の妻の日記』、東京、新人物往来社、1991.
- 桜井忠温、『肉弾：旅順實戦記』、東京、国書刊行会、1978.
- バートン・ホームズ；読売新聞社編、『日露戦争：カラー・ドキュメント：バートン・ホームズ写真集』、東京、読売新聞社、1974.
- 根来藤吾、『夕陽の墓標：若き兵士の日露戦争日記』、東京、毎日新聞社、1976.
- 皆川三郎編訳、『日露戦争海外写真集』、東京、新人物往来社、1990.
- 日本国際政治学会編、『日清・日露戦争』、東京、日本国際政治学会、1962.
- 藤原彰[ほか]編、『開国～日露戦争』、東京、大月書店、1990.
- 日本近代史研究会編著、『日露戦争』、東京、国文社、1966.
- ウッドハウス暎子、『日露戦争を演出した男モリソン上、下』、東京、東洋経済新報社、1988.
- 谷壽夫、『機密日露戦史』、東京、原書房、1966.
- 三谷太一郎、『二つの戦後：権力と知識人』、東京、筑摩書房、1988.
- 鹿島守之助、『日露戦争』、東京、鹿島研究所出版会、1970.
- 大江志乃夫、『兵士たちの日露戦争：五〇〇通の軍事郵便から』、東京、朝日新聞社、1988.

- 黒羽茂, 『日露戦争はいかにして戦われたか』, 東京, 文化書房博文社, 1988.
- 伊藤整, 『日露戦争の時代』, 東京, 講談社, 1966.
- 袴田茂樹, 『ソ連: 誤解をとく25の視角』, 東京, 中央公論社, 1987.
- 向田初市原著; 向田悌介編, 『一下士官の日露従軍日記: 老爺嶺頭の寒月』, 東京, につかん書房, 1979.
- 大江志乃夫, 『日露戦争の軍事史的研究』, 東京, 岩波書店, 1976.
- 宮地正人, 『日露戦後政治史の研究: 帝国主義形成期の都市と農村』,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73.
- 『日露戦争・辛亥革命・帝国主義と第一次世界大戦』, 東京, 学習研究社, 1971.
- 宇野俊一, 『日清・日露』, 東京, 小学館, 1976.
- 小西四郎, 『日露戦争前後』, 東京, 講談社, 1978.
- 幣原坦著・明治外交要録 / 小川平吉著, 『日露間之韓國』, 서울, 亜細亜文化社, 1984.
- ロストローフ編; 及川朝雄訳, 『ソ連から見た日露戦争』, 東京, 原書房, 1980.
- 外山三郎, 『日清・日露・大東亜海戦史』, 東京, 原書房, 1979.
- 篠原宏, 『海軍創設史: イギリス軍事顧問団の影』, 東京, リプロボート, 1986.
- 真鍋重忠, 『日露旅順海戦史』, 東京, 吉川弘文館, 1985.
- 『日露戦争外國画集』, 東京, 近事畫報社, 1905.
- 『日露戦争實記』, 東京, 育英舎, 1904.
- 『日露戦争寫眞画報』, 東京, 博文館, 1904.
- 『日露戦争實記』, 東京, 博文館, 1904.
- 徐广宇, 『洋镜头里の日俄战争』, 福州, 福建教育出版社, 2009.
- 李刚, 『日俄战争给中国带来的损失问题研究』, 硕士论文 河北大学, 2008.
- 王刚, 『日俄战争时期的中日交涉研究』, 博士论文 北京大学, 2008.
- 王文君, 『《申报》与日俄战争』, 硕士论文 北京师范大学, 2008.
- 闫冬, 『日俄战争中日俄军队在中国东北的暴行研究』, 硕士论文 东北师范大学, 2007.
- 黄震遐, 『中日俄战争评论』, 北京, 全国图书馆文献缩微中心, 2007.
- 黄震遐, 『中日俄战争评论』, 北京, 全国图书馆文献缩微中心, 2007.
- 韩丽, 『日俄战争后清政府在东三省的內政善后问题述论』, 硕士论文 北京师范大学, 2006.
- 吕思勉, 『日俄战争』, 北京, 全国图书馆文献缩微中心, 2005.
- 吕思勉, 『日俄战争』, 北京, 全国图书馆文献缩微中心, 2004.

- 陈功甫,『日俄战争与辽东开放』,北京,全国图书馆文献缩微中心,2004.
- 陈功甫,『日俄战争与辽东开放』,北京,全国图书馆文献缩微复制中心,2004.
- 陈功甫,『日俄战争与辽东开放』,北京,全国图书馆文献缩微中心,2004.
- 佐佐木一雄,『苏俄军备与日俄战争』,北京,全国图书馆文献缩微中心,2003.
- 贺佛,『日俄战争的战略问题』,北京,全国图书馆文献缩微中心,2003.
- 佐佐木一雄,『苏俄军备与日俄战争』,北京,全国图书馆文献缩微复制中心,2002.
- 贺佛,『日俄战争的战略问题』,北京,全国图书馆文献缩微复制中心,2002.
- 刘志超,『争夺与国难:甲辰日俄战争』,沈阳,辽海出版社,1999.
- 潘茂忠,『日俄战争在旅顺』,大连,辽宁师范大学出版社,1997.
- 辽宁省档案馆,『日俄战争档案史料』,沈阳,辽宁古籍出版社,1995.
- 曲传林,『旅顺日俄战争遗址』,北京,文物出版社,1987.
- 苏俄国家中央档案馆,『日俄战争:库罗巴特金、利涅维奇日记摘编』,北京,商务印书馆,1976.
- 罗曼诺夫 B.A.,『日俄战争外交史纲:1895-1907』,上海,上海人民出版社,1976.
- 解放军37001部队,『日俄战争简史』,北京,商务印书馆,1976.
- 孔经纬,『日俄战争至抗战胜利期间东北的工业问题』,沈阳,辽宁人民出版社,1958.
- 李纯武,『日俄战争』,北京,通俗读物出版社,1956.
- 切尔明斯基 E.Д.,『日俄战争:一九〇四—一九〇五年』,北京,时代出版社,1955.
- 吕思勉,『日俄战争』,北京,全国图书馆文献缩微复制中心,2004.
- 吕思勉,『日俄战争』,上海,商务印书馆,1933.
- 陈功甫,『日俄战争与辽东开放』,上海,商务印书馆,1931.
- 吕思勉,『日俄战争』,上海,商务印书馆,1929.
- 程廷镛,『日俄戰爭始末譯略』,熱河,1914.
- 강성학,『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사무라이:러일전쟁의 외교와 군사전략』,고려대학교출판부,1999.
- 석화정,『(풍자화로 보는)러일전쟁』,지식산업사,2007.
- 전사연구소,『러일전쟁사』,건국대학교출판부,2004.
- Hamilton, Angus,『러일 전쟁 당시 조선에 대한 보고서:1899~1905년 사이의 격동과 성장』,살림,2010.
- 고영자,『러일전쟁과 대한제국』,탕자출판사,2007.
- 심현용,『러일전쟁과 한반도』,국방부,2004.

- 최문형, 『국제 관계로 본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 병합』, 지식산업사, 2004.
- Zabel, Rudolf, 『독일인 부부의 한국 신희여행 1904 : 저널리스트 차벨, 러일전쟁과 한국을 기록하다』, 살림, 2009.
- Kuropatkin, A. N, 『러일전쟁』,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
- 정성화, 『러일전쟁과 동북아의 변화』, 선인, 2005.
- London, Jack, 『(책 런던의)조선사람 엿보기 : 1904년 러일전쟁 종군기』, 한울, 1995.
- 이주영, 『러일전쟁, 제물포의 영웅들 : 『오페라의 유령』의 작가 가스통 르루의 르포르타주』, 작가들, 2006.
- 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 . 4 , 러일전쟁에서 한국군 해산까지』, 인물과사상사, 2008.
- 산실신일, 『러일전쟁의 세기 : 연쇄시점으로 보는 일본과 세계』, 소화, 2010.
- 조병한,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 질서』, 일조각, 2006.
- 현대일본학회, 『러일전쟁 100주년 회고와 21세기 일본』, 현대일본학회, 2004.
- 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 . 4권 , 러일전쟁에서 한국군 해산까지』, 인물과사상사, 2007.
- 정상현, 『통째로 세계사 . 9 , 제국주의는 너무해:동인도회사부터 러일전쟁까지』, 휘슬러, 2007.
-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한길사, 2009.
- 威海, 烟台, 靑島 地方史資料
- 遼東·山東半島 지역 문헌, 관광지 해설문, 인터넷 관광자료
- 甲午戰爭紀念館 http://v.youku.com/v_show/id_XMzg4Nzc3MjQ=.html
- 威海市 근대사 사이트, <http://www.whnews.cn/mlweihai/jindss.htm> 등
- 각종 현지답사 자료

ㄱ		ㄴ	
가등도	154	남자탄고	54
갑오고포	41	내주	120
갑오해전기념관	142	노기 마레스케	47
건건록	43	노천전쟁박물관	192
고다마 겐다로	72	노호미포대	41
고포대	127		
관광유람선	57		
관동청감옥	101		
관동청의원	44		
교오경찰서	177	다렌	34
교오법원	173	단도포대	160
교오상부독판공서	151	단동	108
교오전구제독관저	151	대륙 정책	36
교오조계지	151	대서포대	159
교오조차조약	151	대주산	187
교오총독	166	대한민국 임시정부	116
교주만	150	대화여관	105
교주만조계지	174	도고 헤이하치로	47
국민정부	151, 179	동계관산보루	65
국사범	102	동양평화론	98
그로바토킨	81	동인도 회사	133
금주보위전	50	동진남하 정책	27
기정산포대	147	동청철도부설권	56
		동대산	50
		동포대	125

ㄷ

동학농민운동	37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92
등주	120

ㄹ

라오동반도	32
러일전쟁	56
러일전쟁기념비	90
러일전쟁진열관	70
레이스	86
루스벨트	63
뤼순	41, 95
뤼순 감옥	96
뤼순 일본러시아감옥 옛터	97
뤼순 쟁탈전	91
뤼순전적지유람코스	83
뤼순해군기지역사전람관	49
뤼순해군병기관	49
뤼순형무소	101

ㅁ

마오쩌둥	112
만년산	158
만보산	59
만주군	67
만주 독점권	56
만주전적보존회	57
만충묘	43

망대포대	82
메이지 유신	22
문물보호단위	49
문화대혁명	48
물망국치	46
민영준	38

ㅂ

보하이해	32
백옥산	47
백옥산탐	47
백옥산포대	47
백옥신사납골사	47
법화경	182
법화원	180
법화탑	181
베이징	121
봉래	184
북양수사	138
북양함대	137
북양해군장사기념관	142
북양해군제독서	141

ㅅ

산둥반도	120
산둥순무	165
산둥 해방포대	122
샤오칭다오	153

서계관산포대	65	연통제	117
서대문형무소	97	영국 조차 웨이하이웨이 역사박물관	134
서포대	128	영성민속관	180
석도	180	영성자	51
석문자저격전기념비	49	영토 분할 경쟁	37
소련군기념탑	92	엔타이	124
소련군열사능원	89	엔타이산	130
송수산보루	82	왜구	133
수사영	85	용왕묘	130
수사영회견소	86	웨이하이	133
스토셋리	86	웨이하이만	133
시하누크	168	웨이하이수사학당	145
식민부	133	웨이하이웨이	133
식민지 전쟁	28	웨이하이웨이 행정장관서	133
식민통치 기구	101	유공도	133
신경	107	유상근	99
신라사	188	이령산	57
신라인	182	이룡산	57
신라촌	188	이룡양행	116
신채호	98	203고지	71
		이토 히로부미	38
		이홍장	35
		이회영	98
		일본관동법원 옛터	95
		일조시	188
		임시포대	161
		입당구법순례행기	182
		잉커우	190
아문산포대	159		
안동교통국	117		
안동역사문물진열관	111		
안봉선	113		
안중근	98		
압록강단교	113		
애국주의교육기지	49		
엔닌법사	182		

○

ㄱ

장군석포대	65
장보고	182
장보고전기관	183
장졸유해위원회	90
장징궈	168
장춘	106
적산	181
적산선원	181
전봉준	38
전암포대	76
전적선	57
정몽주	188
정성공	121
정여창	144
정여창우소	134
정원함	149
정효서	106
중국 러시아 여대 조차지 조약	66
중국인민지원군	108
중립 지대	56
중소우의	45
중일전쟁	36
중조우의교	113

ㄷ

천태산	188
철부두	146
청군총병아문	159

청일 강화 조약	39
청일전쟁	37
청해진	184
최치원	187
최흥식	99
칭다오기독교당	169
칭다오산포대 유적	154
칭다오영빈관	166
칭다오잔교	152
칭다오지구순무장정	177
칭다오총독부	165

ㅋ

칸트라친크	67
크루프 병기공장	42

ㅌ

탈아론	22
태평양전쟁	28
태평양함대	63
텐진 조약	131
토성자저격전기념비	50

ㅍ

평화 지대	24
폐쇄대기념비	47

포츠머스 조약	89	항미원조기념관	111
표충탑	42	항미원조전쟁	108
푸이	106	해군영	174
		해금 정책	186
		화원구기념비	52
		황금산포대	74
		황해	32
		황해대해전	142
하얼빈	95		
한반도	3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